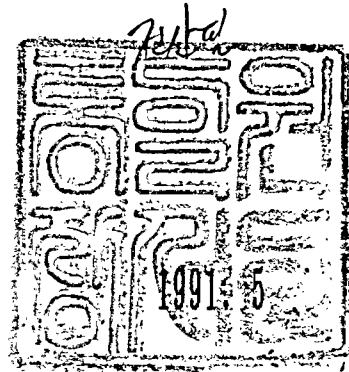


독일 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



28451  
4339

주 독 대 사 관

주독대사관은 독일통일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서 한반도에서도 남·북 통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90.7.1부터 직제를 개편하고, 공관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독과정 연구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정치, 군사,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종교, 언론, 기타분야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동·서독간 구체적 통합실현 과정, 통독이후 제기된 문제점, 과거 내독간 교류·협력 사례 등에 관해 당관이 본국에 수집·송부한 자료는 '91.4월말 현재 362건으로, 관련사안에 따라 23개 부처에 배포(총 1,774건)하여 각 부처가 소관사항을 연구·검토한 후 우리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된 자료중 활용성과 제고를 위해 중요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번역하여 송부하고 있는 바, 이번에 당관은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통독을 즈음하여 발간된 책자 "Kurze Chronik der deutschen Frage"(Gebhard Diemer 엮음)와 동·서독 관계 전문학술지 Deutschland-Archiv '90년도분에 실린 사건연표를 번역·정리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독일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 및 동·서독 관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이 연대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요약되어 있는데, '41 대서양 헌장 합의로부터 통독이 달성된 '90 말까지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통독이 진행되는 과정과 통독이후의 후유증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양독간에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거의 20년에 걸친 교류협력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기반과 그에 따른 정치이념이 상이한 체제간의 통합에서 오는 충격은 몇사람의 계산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통일은 이미 달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에 입각한 요구를 보다 이성적으로 수렴해 내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친 차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통독과정 연구도 보다 차원높게 본격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991. 5. 20.

주독대사 신 동 원

국 제 관 계	독 일
<p>’ 41 . 8 . 14  <u>Roosevelt 대통령과 Churchill 수상</u>이 북대서양의 각각 미, 영 연합상에서 향후 평화질서에 관한 대서양헌장 (Atlantik-Charta) 발표 : 국가합병의 금지, 각 민족은 그 통치형태를 스스로 결정, 지구상의 원자재에 대한 동등한 사용. 대서양 헌장은 후일 UN 헌장의 기본이었으며, 독일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함.</p> <p>’ 43 . 1 . 14-24  Roosevelt와 Churchill은 Casablanca에서 미군의 이탈리아 및 프랑스 진격일에 합의한 후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함.</p> <p>’ 43 . 10 . 19-30  <u>모스크바에서 반 히틀러 연합국의 외무장관이 독일정책의 기본원칙에 합의 :</u>  독일제국의 영토는 '37년 국경으로 정의됨으로써 오스트리아, 수테텐란트 및 기타 합병지역은 배제됨. 연합국 감시위원회가 행정권을 인수하여 무장해제, 탈나치화, 민주화, 군수산업 파괴의 임무를 수행함. 연합국중 3대국의 외교대표가 유럽자문위원회(European Advisory Commission=EAC) 구성</p>	

국 제 관 계	독 일
<p>° 43.11.28-12.1  <u>Teheran에서 Roosevelt, Churchill, Stalin이 회담</u>  <u>독일문제에 관하여 논의 :</u>  5개의 자치국 구성, Ruhr 지역과 Saar 지역은 감시하에 둠, 폴란드는 Curzon선으로부터 소련에게 할양되며 그대신 독일 지역은 Oder강 까지 유지함. 기타 요구사항은 EAC에게 위임 (Stalin은 독일의 군사력을 영원히 파괴하기 위하여 독일군 장교 50,000명의 숙청을 촉구함.)</p> <p>° 45.2.4-11  <u>Jalta 회담</u> : Roosevelt, Churchill, Stalin은 종전의 결정 사항을 강조함과 동시에 EAC가 작성한 '44.9.12 및 11.14의 2대 "점령지역 의정서"를 인정함. 프랑스의(추가) 개입과 함께 독일을 4대 점령지역으로 분할. 독일의 완전한 비무장화 및 비군사화에 합의. 독일의 분할 및 독일의 전쟁배상액 200억달러(그중 50%는 소련에게 할당)에 관한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함. 이 회담결과 독일 분할계획은 3대국 정부에 의해 폐기됨. "해방된 유럽에 관한 선언"에서 모든 민족의 자결권이 강조됨. 3대국 정부는 해방된 제민족을 도와 "주민들간에 민주주의적 요소가 대체적으로 표현되는 잠정적 행정처를 구성한후 민족의 의지에 부응하는 선거를 거쳐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를 구성할 의무"가 부과됨. 그러나 이와 같은 선언은 유럽내 소련 점령지역에서는 실현되지 못하였음. 그대신 정당연합("민족전선")의 도움으로 소위 "인민민주주의"가 정착한후 점령군이 지원하는 공산당이 주도권을 장악, 단시일내에 단일통치체제가 구축됨.</p>	<p>° 45.4.30  <u>Hitler Berlin에서 자살</u>  망명중이던 독일공산당(KPD) 선발대("Ulbricht 그룹")가 Moskau로부터 Berlin으로 귀환. 2개의 그룹이 그 뒤를 따름. 이들은 KPD의 당원을 규합한후 독일내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소련의 의도를 관철시키도록 되어있었음.</p> <p>° 45.5.17  소련군 Berlin시 주둔군 사령관은 Dr. Werner시장을 필두로한 시의회를 구성함.</p> <p>° 45.6.5  4대 점령군 최고사령관들이 "<u>베를린 선언</u>"(Berliner Erklarung)에 서명  1. 독일 패전에 관련한 선언 : 4대 전승국은 독일에 관한 최고 행정권을 인수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45. 5. 7- 8 Reims와 Berlin에서 <u>독일군이 무조건 항복문서에 서명</u></p> <p>° 45. 6. 26 San Francisco에서 50개국이 UN 헌장에 서명. <u>10.24 UN 헌장 발효.</u></p> <p>° 45. 7. 17- 8. 2 <u>Potsdam 회담</u> : Truman(45.4.12 서거한 Roosevelt 후임), Churchill(7.28 Attlee에 의해 수상교체), Stalin이 다음과 같이 합의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화협정을 준비할 외무장관회의 설치</li> <li>2. 독일문제 처리에 있어서 정치, 경제적 원칙 : <u>탈나치화, 탈군사화, 민주화, 지방분권화.</u> 정치활동은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재개되도록 함. 4대 점령지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설치. 독일은 "통일된 경제적 단위"로서 취급될것. 산업잠재력은 공장해체 및 대기업 분할로 약화시킴. 전쟁배상은 점령국에 의해 주로 각 점령지역으로부터 징발하게 함. 소련과 서방점령 지역의 산업생산품 및 농업생산품 교환이 허용됨. (전쟁 배상문제는 향후 외무장관 회담시 논의대상이었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4대 점령군 최고 사령관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 (Kontrollrat)를 구성하여 독일전체에 관한 최고권력 행사자로서 모든 당면문제를 관장함.</li> <li>3. 점령지역의 설치. '37.12.31 당시 국경내 독일은 4대 점령지역으로 분할됨.</li> <li>4. Berlin은 4대지역으로 분할되어 "연합국 사령부"가 행정 관리함.</li> </ol> <p>° 45. 6. 9 <u>주독 소련군 군정청(SMAD)이 Berlin에 구성됨.</u> 7.27 명령 11호에 따라 "독일 중앙행정기구"가 설치되어 SMAD의 위임하에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향후 독일 중앙 정부의 핵심을 이루도록 함.</p> <p>° 45. 6. 10 SMAD는 명령 제2호를 통해 "<u>반파쇼 민주주의</u>"정당 및 노조를 허용. 6.11 Berlin에서 "독일공산당(KPD)", 6.15 "독일사회민주당(SPD)", 6.26 "기독교민주주의연맹(CDU)", 7.5 "독일자유민주당(LDPD)이 창당됨. 7.14 점령군의 지시에 따라 "반파쇼 민주주의 제정당 동맹(Antifa-Block)"이 구성되었으나 주로 KPD가 주도권을 장악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3. Koenigsberg 및 동 Preussen의 북반부는 소련에게, 기타 동부독일중 Oder-Neisse선까지는 평화협정을 통한 최종 결정이 내릴때까지 폴란드의 통치하에 둬. "독일주민을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머물러 있는 독일민족의 독일에의 인도는 질서정연하고 인도주의적 방법으로 수행될 것."이 결정됨.</p> <p>'45. 8. 7 프랑스가 외무장관회의에 가입. 7.26 EAC 합의에 따라 Berlin 연합국 감독위원회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자체의 점령지역 확보.</p>	<p>'45. 6. 17 <u>Koeln에서 Rhein지구 기독교민주연맹(CDU)이 창당됨.</u> '45.8.27부터 3대서부 피점령지역중 처음으로 Kreis(시·군) 단위로 정당이 허용됨. Land(주)단위 및 피점령지역 단위에 걸친 정당의 허용은 서부 피점령지역간에 각각 다른속도로 허용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프랑스 점령지역에서 허용됨.</p> <p>'45. 7. 1- 3 소련점령군 지역중 서부지역 (Sachsen, Thueringen, Mecklenburg)으로부터 미, 영군이 철수하고 소련군에게 점령이 양도됨. 반면 서방연합국이 Berlin 점령지역으로 진주함. 연합국 통제사령부 업무개시</p> <p>'45. 7. 9 <u>SMAD의 명령에 따라 소련점령지역(SBZ)에 5개주가 형성됨:</u> Mecklenburg-Vorpommern, Brandenburg, Sachsen-Anhalt, Thueringen, Sachsen</p> <p>'45. 7. 30 <u>연합국 감독위원회가 Berlin에서 최초 회동</u> 프랑스 위원회가 Saar 지역에 대한 행정을 인수함. 프랑스는 그 이후 Saar 지역을 프랑스 점령지역으로부터 분리하고('46.2.12) 감독위원회의 관할권을 해제함. Saar 헌법('47.12.15)에 "독일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이라고 명문화한 이후 '48.3.30 Saar 지역은 관세동맹을 통해 프랑스에 귀속됨.</p>

국 제 관 계	독 일
	<p>' 45 . 7 . 31  SMAD는 "반파쇼 청소년위원회"를 허용함 : Berlin에서 중앙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45.9.10 그 위원장에 Erich Honecker가 피선됨. '46.3.7 "자유독일청소년단(FDJ)"이 소련점령지역내 유일한 청소년단체로 허용되어 설립됨.</p> <p>' 45 . 8  <u>Oder 강과 Neisse강 이동 독일지역의 560만명의 독일인이 피난 시작 :</u> '44 여름부터 이미 수많은 피난민 물결이 일기 시작하여 그중 약 200만명이 Ostpreussen으로부터 Ostsee를 거쳐 Schleswig-Holstein과 Denmark로 이동함. 종전과 함께 동부지역(Potsdam 회담시까지 약 250,000명)과 Sudetenland의 독일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추방이 시작됨. 제2차 추방의 물결(약 400,000명)이 Potsdam 회담과 관련 뒤따름.  '45.11.20 연합국 통제사령부를 통한 추방계획의 수락과 함께 폴란드의 200만명은 소련점령지역으로, 150만명은 영국점령 지역으로 추방됨. 헝가리와 체코로부터 추방된자들은 미국 점령지역으로 추방됨. '46.2.14에 합의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추방은 비인간적이고 무질서하게 자행되어 비인간적인 부작용과 약탈이 발생됨. '47에도 또다시 추방의 물결이 일어나 50만명이 추방됨. 미국과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와같은 사실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남. 추방이 일단락된 이후 서독에는 780만명의 추방민이('50 인구센서스), 동독에는 약 360만명, 오스트리아에 약 40만명이 집계됨. 약 200만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피난과 추방되던중 생명을 잃음.</p>



국 제 관 계	독 일
<p>’45. 9. 10-10. 2</p> <p>제1차 4대 전승국 외무장관 회담이 London에서 개최됨.</p> <p>프랑스는 Rhein-Ruhr 지역이 독일로부터 분리될 것을 요구함. 소련은 독일중앙정부의 구성 및 Ruhr 지역에 대한 4대 전승국 감독을 원함.</p>	<p>’45. 9. 3-10</p> <p>쏘련점령지역내 주정부들은 토지개혁 시행령을 발표함. 이와함께 쏘련점령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변경과정이 시작됨. "나치 활성화분자 및 전범"의 대지를 비롯하여 100ha 이상의 토지는 아무 보상금없이 완전 국유화됨. 국유화된 토지의 1/3이 Land, Kreis, Gemeinde에 이전됨. 2/3는 "신흥농부"(농장노동자, 피난민)와 토지부족 농부에게 농장 확장용으로 노동자와 수공업자들에게 초원지로 분배함. 농장 규모가 평균 7.7ha 소유의 신흥농부가 '52년부터 시작된 농업 집단화 과정으로 형성된 농업생산 협동조합(LPG)의 근간을 이룸.</p> <p>’45. 9. 19</p> <p>Bayern, Baden-Wuerttemberg, Hessen이 Land로서 미국 점령 지역에서 구성됨(Bremen이 뒤따름)</p> <p>’45. 10. 5- 7</p> <p>SPD 가 Hannover 부근 Wennigsen에서 재참당대회 를 개최. Kurt Schumacher가 당대표가 됨. 그는 KPD와 여하한 형태의 협력도 거부함.</p> <p>’45. 10. 13</p> <p>CSU 가 Wuerzburg에서 연방주의적, 보수주의적 목표설정과 함께 참담.</p>

국 제 관 계	독 일
<p>' 45 . 10 . 24  <u>51개국이 서명한 UN 헌장 발효</u> : 그 제53조 및 제107조에 제2차 세계대전중 서명국가의 적이었던 국가들에 대한 특별 규정 및 유보사항이 명기됨.  ("Feindstaatenklausel : 적국 조항")</p>	<p>' 45 . 10 . 17  Stuttgart에서 미국점령지역의 주평의회(Laenderrat)가 구성됨. 이와같은 주지사 상설회의체는 점령지역내 주행정 구축을 촉진하도록 되어 있음.</p> <p>' 45 . 10 . 18  동독내 KPD와 SPD는 "<u>학교제도의 다양한 민주화</u>"를 촉구함. '46에 종합학교(기초학교 8학년 이후 고등학교 4학년 또는 직업학교)제도가 도입됨. 학교개혁 과정중 구 나치당원 및 그 예하기관의 소속원들의 교직이 박탈됨과 동시에 "신흥 교사"의 속성양성으로 학교수업의 사회주의적 이념화를 위한 인적기초를 마련함. <u>쑨련점령지역의 "법률개혁"</u> ('45.9 부터)을 통해 탈나치화(나치스 극성당원 및 일반당원을 법조계로부터 제거)와 동시에 당노선 충실한 법률기구 ("인민 판사"의 속성양성)를 구성함. <u>쑨련점령지역내 공산화</u> 반대자를 척결하기 위하여 쑨련 비밀경찰은 격리수용소(그중 <u>Buchenwald와 Sachsenhausen의 구나치수용소</u>)를 설치함. 11개의 격리수용소에서 나치스의 고위층 및 SMAD와 KPD의 사실상의 반대자와 반대용의자들이 구금됨 : 공무원, 교사, 학자, 성직자, 기독교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등 단지 그들의 "계급성" 때문에 적으로 간주되었던 자들이었음. 총 구금자수는 140,000 내지 180,000명으로 추정됨. 구금자중 약 1/3은 격리수용소에서 사망함. '50 격리수용소의 최종 해체당시 남아있던 구금자중 일부는 형무소로 일부는 쑨련 수용소로 이송됨.</p>

국 제 관 계	독 일
	<p>' 45 . 10 . 30 / 31  <u>SMAD는 국가, 나치스, 독일제국군, 기업체의 소유재산의 몰수 및 압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u> <u>쏘련점령지역의 경제는 공장해체 및 쏘련에 대한 무자비한 전쟁보상으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게 됨.</u></p> <p>' 45 . 11 . 1  <u>쏘련점령지역에서 "반파쇼 여성위원회"가 인가됨.</u> 이는 "민주독일여성동맹(DFD)"의 전신으로서 그 주요직책은 KPD가 차지하고 회원은 공산당의 사상에 입각하여 조종됨.</p> <p>' 45 . 11 . 20  <u>Nuernberg의 국제재판장에서 22명의 전범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u> '45.8.8 London에서 체결된 4대전승국의 협정으로 이와같은 재판과 각종 판결절차를 거친 전범에 대한 판결의 근거가 마련됨. 판결은 '46.9.30 및 10.1 판결문 공포로 종결됨 : 사형 12명, 구금형 7명, 무죄 3명. 서방점령지역 (총 5,025명에 대한 소송)에서 후속재판이 계속됨. 서방점령지역에서는 전적으로 독일인에 의한 나치스 심사 재판소에서 나치스 전력에 대한 절차판결로 수행됨. 설문서를 근거로하여 당면자들은 5개의 집단으로 분류된 ("주범"으로 부터 "석방"에 이르는)후 그에 상응하는 유죄 판결 및 무죄가 선고됨. 쏘련점령지역에서 "탈나치화"는 부분적으로는 군사재판으로, 부분적으로 법원판결 절차없이 구금으로 처리됨. 탈나치화는 기존 권력기반 약화를 겨냥한 공산당 통치의 수단으로서 이용됨(상기 법률개혁 참조)</p>

국 제 관 계	독 일
<p>’ 46 . 3 . 5  <u>Churchill</u>은 미국의 Fulton에서 행한 연설에서 “철의감막”이 유럽대륙을 소련점령지역과 잔여지역으로 분단한다고 역설함.</p>	<p>’ 45 . 12 . 21          소련점령지역 CDU의 의장단 Hermes와 Schreiber는 SMAD의 강요에 따른 “Antifa-Block”내 토지개혁에 관한 격론끝에 사퇴함. KPD 중앙위원회와 소련점령지역내 SPD 중앙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두 당의 합당을 준비할 것이 결정됨.</p> <p>’ 46 . 1 . 22          영국점령지역내 CDU는 <u>Konrad Adenauer</u>를 <u>당수로</u> 선출함.</p> <p>’ 46 . 1 . 27/28          Bayern, Hessen, Baden-Wuerttemberg에서 Gemeinde 대표를 선출하는 최초의 선거가 투표율 83%로 실시됨.</p> <p>’ 46 . 2 . 9-11          Berlin에서 “<u>자유독일노총(FDGB)</u>” 창립 총회</p> <p>’ 46 . 2 . 15          Hamburg에서 영국점령지역을 위한 점령지역 평의회가 구성됨. 정당대표, 노조대표, 행정대표가 점령지역 평의회를 통해 군사정부를 자문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46. 4. 25- 7. 12</p> <p>Paris에서 제2차 외무장관회담 : 미국은 독일의 경제적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4대 점령지역의 통합에 진력함. 이에 대해 소련은 물론 프랑스도 Ruhr 지역 때문에 반대함. 소련은 독일을 25년간 비무장화하고 점령한다는 미국 외무장관 Byrnes의 계획을 거부함. 감독기간의 연장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보려던 후일의 시도 역시 실패하고 말았음.</p>	<p>° 46. 3. 26</p> <p>연합국 감독위원회가 대독일 산업계획 발표 : 생산제한, 생산 능력 한계 설정, 1,800개 기업체 공장 해체. 서방 점령 지역과 소련점령지역의 공장해체의 정도는 상이함. '46 말 소련점령지역내 추정 생산잠재력 손실은 '36과 비교할때 약 55%에 달하여 그중 14%는 전쟁피해, 41%는 공장해체 때문이었음. 서방점령지역에 대한 비교치는 10%(전쟁피해) 및 8% (공장해체) 였음. 사실상의 생산상태는 생산잠재력의 이하였음. 서방측의 추산에 따르면 '53까지 소련이 취득한 급부는 총 664억 RM(171억 달러 상당)으로서 소련이 주장한 전쟁배상금 100억 달러보다 엄청나게 높은 것이었음. 서방측에 대한 전쟁배상 총액은 200억 내지 250억 RM으로 추산됨.</p> <p>° 46. 4. 21/22</p> <p>KPD와 SMAD의 압력하에 소련 점령지역내에서 KPD와 SPD의 합당이 이룩됨. Berlin의 통합전당대회에서 Wilhelm Pieck (KPD)와 Otto Grotewohl(SPD)이 "사회주의 독일통일당"(SED) 의장단으로 선출됨. 소련점령지역 및 Berlin 동부지역내 SPD 당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합당 찬반결의는 방해공작으로 무산. Berlin 서부지역에서 시행된 SPD 당원중 82%는 합당에 반대 의사를 표현함. <u>당 감령의 핵심</u> : "사회주의 독일통일당은 사회주의화를 위한 민주적 방법에 진력한다." "자본가 계급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혁명적 수단"을 취한다.</p>

국 제 관 계	독 일
	<p>' 46 . 5 . 25 미국은 전쟁배상을 통한 독일에 대한 경제적 처리에 관한 Potsdam 결의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소련에 대한 미국점령 지역의 전쟁배상 급부를 중단함.</p> <p>' 46 . 6 . 21 Land로서의 Nordrhein-Westfalen이 프로이센 지방인 Westfalen과 북부 Rheinprovinz가 병합하여 생성됨.</p> <p>' 46 . 6 . 30 미국점령지역내 각 Land에서 입헌기구인 Land 의회가 선거로 구성. "전범과 나치스 열성분자"소유대기업의 국유화에 관한 Sachsen의 직접투표 결의이후 소련점령지역 전체에 걸친 "산업개혁"이 단행됨. '48까지 국유화조치는 우선 약 9,200 기업체에 단행되었는데 이는 당시 총산업생산의 약40%에 달했음. 기업중의 일부는 "소비에트식 주식회사"로 전환됨. 그중 대다수를 '53 동독이 재인수 함.) 연합국 감독위원회는 SMAD의 요청에 따라 대서방 점령지역 경계선을 봉쇄하고 점령지역간 통과용 여권을 도입하여, 향후 동부지역과 서방 지역간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였음.</p> <p>' 46 . 8 . 23 Schleswig-Holstein이 Land의 지위를 획득함.</p>

국제관계	독일
<p>’ 46 . 9 . 6 미국 외무장관 <u>Byrnes</u>는 Stuttgart에서 행한 연설에서 향후 미국의 대독일 정책의 기본원칙을 설명함 : 산업계획의 수정, 독일정부의 구성 ; 동부독일지역의 지역할양의 범위는 아직 미결상태임.</p> <p>이 연설은 미국의 대독일정책의 변환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한단계였음. 그 배경은 미국과 소련간의 악화일로에 있는 국제적 긴장이었음.(그리스 내란, 소련군의 이란 철수 합의 이행지연 등등) 독일민족은 자유세계속에서 "명예스런자리"를 잡도록 촉구됨.</p> <p>’ 46 . 9 . 19 Winston Churchill은 Zuerich 대학생에게 행한 연설에서 유럽 합중국의 조성을 촉구함. 그 전제조건은 프랑스와 독일간의 우호적인 관계였음.</p>	<p>’ 46 . 8 . 30 Pfalz와 남부 Rheinprovinz가 합쳐 Rheinland - Pfalz Land가 됨.</p> <p>’ 46 . 9 . 1-15 소련점령지역내 Gemeinde 선거 : SED는 선거조작,CDU 및 LDPD 지부의 등록거부, 공천기각 및 SMAD의 비호를 받고 소련 점령지역내 평균 50% 이상을 차지함.</p> <p>’ 46 . 9 . 5-11 미국과 영국점령지역의 각 Land는 경제행정자문회(Minden), 교통행정자문회(Fraukfuert/M), 식량농업행정자문회(Stuttgart), 우편전화행정자문회(Frankfurt/M), 독일재무자문회(Stuttgart)의 설치를 결의함.</p> <p>’ 46 . 9 . 15-10 . 13 영국 및 프랑스 점령지역에서 Gemeinde 의회, Kreis 의회 선거 가 시행됨.</p> <p>’ 46 . 10 . 20 소련점령지역내 Land 의회 및 Kreis 의회 선거, 대 Berlin 시의회 선거 : 다시금 대중정당은 선거전에서 방해를 받음. 대Berlin에서는 4대 전승국의 감독하에 선거가 실시됨. 소련점령지역내 선거결과 : SED47,63% LDP24,64% CDU24.52% Berlin 선거결과 : SED19.80% LDP9,30% CDU22,20% SPD48.70%</p>

국 제 관 계	독 일
<p>’ 46 . 11 . 4 - 12 . 11  <u>New York에서 제3차 외무장관회담.</u> 구독일제국 동맹국들과의  평화협정이 논의됨.</p> <p>’ 47 . 2  미국 외교관 <u>George Kennan</u> 이 사실을 통해 소련의 팽창을  막기위한 미래의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개진함.  (“<u>봉쇄정책 : Containment</u>”)</p>	<p>’ 46 . 11 . 1  Land로서의 Niedersachsen이 성립됨.</p> <p>’ 46 . 11 . 16 / 17  <u>SED가 미래의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을 초안.</u> 이것이 후일  동독(DDR) 헌법의 골간이 됨.</p> <p>’ 46 . 11 . 24  Wuerttemberg-Baden에서 최초의 Land 의회선거 및 주헌법에  관한 주민 직접투표 결의.</p> <p>’ 46 . 12 . 2  영국과 미국이 미·영 양대 점령지역 <u>Bizone(미·영 점령  지역의 경제적 병합)</u> 구성 협약에 서명. 프랑스와 소련과  공동보조는 불가능하였음.</p> <p>’ 47 . 1 . 1  Bizone 협약이 발효. 미국 및 영국주둔지역의 Land 의회가  통일경제지구의 최고기관인 양대점령지역 경제자문회  (“제1 경제자문회”)를 선출하였으며, ’48.2.9 그 예하에  재편된 경제자문회에 나란히 각주 자문위원회 및 행정자문  위원회를 설치함.(“제2경제자문회”)</p>



국 제 관 계	독 일
<p>'47. 3. 12 Truman 대통령 -그리스의 위기 및 소련의 중동침투 위기에 즈음하여- "트루먼 독트린"을 공표 : "무장한 소수나 외부압력에 의한 굴복요구에 저항하는" 국가들을 위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p> <p>'47. 3. 10- 4. 24 Moskau에서 개최된 제4차 외무장관회담 은 독일문제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에 실패됨. 소련은 통일독일과 동시에 Ruhr 지역의 공동감독, 100억 DM의 전쟁배상금 지불, Oder-Neisse선을 독일동부의 궁극적인 국경선으로 인정할것을 원함 영·미 공동점령지역(Bizone)의 철회 및 Saar 지역의 반환을 요구함. 미국과 영국은 연방정치적 구조하의 독일의 경제적 통일을 원했으나 프랑스는 Saar 지역과 Ruhr 지역의 분리를 주장함. 독일 전쟁포로에 관해서는 합의되어 '48.12.31까지 모두 석방되도록 함.</p>	<p>'47. 2. 25 연합국 감독위원회를 통해 Preussen국의 공식적인 해체.</p> <p>'47. 3. 14 미국점령지역의 각주지사들이 "평화문제를 위한 독일 행정청" 설치를 결의함. 후일 재개설된 독일 외부성에 흡수됨.</p> <p>'47. 4. 20 영국점령지역내 Land 의회 선거</p>

국 제 관 계	독 일
<p>° 47. 6. 5 미국 외무부장관 Marshall이 Harvard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재건계획 및 원조계획 발표함. (유럽재건계획 : European Recovery Program- "Marshall-Plan")</p> <p>° 47. 7. 12- 9. 12 <u>Paris에서 제1차 Marshall-Plan 회의</u> : 유럽 16개국이 유럽 최초의 공동체인 <u>유럽경제협력위원회(CEEC)를 창설함.</u> 이 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제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여 돈을 분배하도록 함. 서방 3대 점령지역도 이에 고려됨. 소련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동유럽제국 역시 불참하지 않을 수 없었음. 따라서 소련 점령지역은 고려될 수 없었음.</p> <p>° 47. 9 국제공산주의 노동당정보국 (Kominform)이 <u>Belgrad에 설치됨</u> ('48 Bukarest로 이전). Kominform은 소련공산당의 주도하에 국제업무를 조정함. 그 해체시('56)까지 소련정책의 보조 기구의 역할을 담당함.</p>	<p>° 47. 6. 4 <u>SMAD는 독일경제위원회(DWK)를 설립.</u> 산업·교통·상업·공급·농림·연료 및 에너지에 관한 지금까지의 중앙행정기관을 쏘련점령지역의 최고 경제행정기구로 통합함. 이로써 생산 분야에 있어서의 계획과 명령의 집중화 구조가 확립됨.</p> <p>° 47. 6. 5- 7 Bayern의 주 수상 Erhard의 발의에 따라 전 독일 Land의 주 수상 합동회의가 Muenchen에서 개최됨. 그러나 회의가 개시되기 전에 정치적인 의견의 불일치가 표면화 됨. 프랑스점령지역을 비롯, 특히 쏘련점령지역의 각료회 의장은 견해차로 인하여 회의장을 떠나고 서부점령지역 출신 각료회의장들 간에 의견교환만이 있었음.</p> <p>° 47. 6. 25 <u>Bizone의 경제자문위원회가 Frankfurt에서 그업무를 개시함</u> 5개의 행정기관이 형성되어 각각 당해 기관장이 관장함. 경제자문위원회의 행정위원회가 "정부"로서 활동함.</p> <p>° 47. 10. 9 생산성 증대 및 직장인 공급개선을 위한 SMAD 명령. 이 명령의 수행이 FDGB의 노조활동의 주입무가 됨.</p>

국 제 관 계	독 일
<p>' 47. 11. 25 - 12. 15</p> <p>London에서 제5차 외무장관회담. 이 회담은 독일문제에 관한 미합의 때문에 조기에 중단됨. Molotow는 Bizone를 Potsdam 협정 위반이라고 표현함. Marschall은 Bizone를 독일통일을 위한 최초의 대책으로 간주함. 다른 점령지역의 가입의 문호 역시 개방되어 있음.</p> <p>London 외무장관회담의 결렬과 함께 반히틀러연합의 붕괴와 소련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형성된 세계의 양분화 ("<u>양대진영 이론</u>")가 기정 사실화 함.</p> <p>유럽내 소련점령지역에 대한 스탈린식 동화정책은 서방3대국에게 '45년도 합의사항에 대한 위반 및 위협으로 인식됨. 서방 3대국은 이에 대해 "봉쇄"정책, 동맹체의 설립, 서유럽 공동성장 계획 등으로 대처함. 이로써 동·관계는 "냉전" 시대로 돌입함. 베를린 서부지역에 대한 소련의 개입은 최악상태를 유발함.</p> <p>' 48. 2. 23 - 3. 6</p> <p>London 6개국 정상회담(서방3개국+Benelux 3국)</p> <p>1차 회의 : 서부독일내에 후일의 통일을 위한 초기단계로서 연방제 정부체제를 구축하고 서방점령지역을 마샬플랜과 Ruhr 지역 감독에 참여시키도록 권유.</p>	<p>' 47. 12. 6/7</p> <p>SED 당간부회는 London에서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u>독일 인민회의</u>"를 소집함. 이에 반대하는 CDU 정치가 Kaiser와 Lemmer는 SMAD의 지시에 따라 Nuschke와 Dertinger로 교체됨. 이 대회에 소련점령지역의 제정당과 대중조직 및 서부점령지역의 대의원들이 참석함. SED의 구상에 따라 이 대회가 독자적인 국가건국을 합법화하도록 함.</p> <p>' 48. 2. 9</p> <p>"프랑크푸르트 헌장"의 효력발효 : 경제자문위는 그 회원수가 2배 증가한 104명이 됨. 주 자문회(Laenderrat)가 제2의회(상원격)로서 구성되고 행정기관의 5대 기관장이 행정자문회(Verwaltungsrat)를 구성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48. 3. 17  영국·프랑스간의 Duenkirchen 협정('47.3.4)의 확대로서 영국, 프랑스 Benelux 3대국은 방위동맹("Bruesseler Pakt")으로 결속함. 이 동맹은 형식상으로는 "독일 침략정책의 재연" 가능성에 반대를 표방했으나, 프랑스에게는 안전보장과 아울러 영·미 노선에 동참 우회적으로 (서부)독일과의 협력개시를 허용하는 것이었음.  사실상 "<u>브뤼셀 협정</u>"은 <u>-현실적 여건에의 적응으로서-</u> <u>쏘련에 대한 안보동맹 형성의 핵심이었음.</u></p> <p>° 48. 3. 20  <u>Sokolowski 원수(쏘련)가 연합국 감독위원회를 탈퇴.</u>  이로서 독일에 대한 4대 전승국의 공동행정의 시도는 끝남.</p> <p>° 48. 2/3  체코에서 쿠데타 발생. 쏘련의 압력으로 지금까지 공산주의식 연립내각은 순수한 공산정부로 교체됨. 예정된 선거대신 단일명단에 의한 인민투표가 실시됨.</p>	<p>° 48. 2. 12  쏘련점령지역에 독일경제위원회가 개편되어 "독일의 전기관에 대한 명령과 지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독일경제위원회는 정부와 유사한 역할을 부여받음.</p> <p>° 48. 3. 17/18  베를린 동부에서 제2차 독일인민회의가 개최되어 "통일독일을 위한 의회의 전신"으로서의 "독일민족자문회"가 구성됨.  Wilhelm Pieck(SED)가 의장, Otto Nuschke(CDU)가 부의장으로 피선됨.</p>

국제관계	특일
<p>° 48. 4. 16 Marshall Plan의 시행기구인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가 Paris에서 창설됨. 이에 서부독일은 3대국 점령군 사령관에 의해 대표됨.</p> <p>° 48. 4. 20- 6. 2 London 6개국 정상회담 2차 회의 : 서부독일의 각 Land 주 수상은 헌법제정 회의를 소집할것. 국제 Ruhr 지역 감독기관이 설치되고 서방 3대국 안전청이 설치될 것. 최종 커뮤니케에서 "현재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독일통일의 궁극적 재현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정부형태를 기본으로하는 가능성이 독일국민에게 주어져야할 필요성"이 인정됨.</p>	<p>° 48. 4. 1 <u>쏘련이 전철, 도로, 수로를 통한 Berlin 진입을 방해하기 시작함.</u></p> <p>° 48. 4. 23 SMAD의 명령을 근거로 쏘련점령지역내에 "인민소유기업연합(VVB)"의 구축이 시작됨.</p> <p>° 48. 4. 29 쏘련점령지역내 또하나의 제휴정당으로서 "민주독일농민당"(DBD)이 <u>창당됨.</u></p> <p>° 48. 5. 25 제휴정당들은 SED에 예속된 정당들로서 SED와 함께 공천 명단을 구성함.</p> <p>° 48. 6. 16 쏘련은 연합국 군사사령부(Berlin 행정부) 내의 업무도 중단해 버림. 따라서 <u>12.21 서방3대국은 Berlin 서부를 위해 자체 사령부를 설치함.</u></p>

국 제 관 계	독 일
<p>' 48 6. 23 / 24</p> <p><u>동유럽 8개국의 Warschau 회담.</u> 이들 국가들은 서방3대국이 독일을 분단했다고 비난하면서 Potsdam 의정서를 기본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함.</p>	<p>' 48. 6. 20</p> <p><u>서방점령지역내 화폐개혁.</u> 독일마르크 DM(독일 각 Land의 은행이 발권)이 공식 지불수단이 됨. <u>제국마르크(RM)</u> 은 10:1로 평가절하 되고 <u>임금과 연금은 1:1로 환산됨.</u></p> <p>독일인은 1인당 60마르크를 받음. 화폐개혁과 동시에 계획경제는 시장경제를 위해 끝남. Bizone 경제행정처의 부장인 Ludwig Erhard는 "사회적 시장경제" 방안(후일 독일 연방 경제성의 차관이 된 Alfred Mueller-Armack 교수의 지원과 함께)을 수개월간 도입하였으며 '49부터 초대 독일 연방 경제성장관으로서 이를 관철함.</p> <p>' 48. 6. 24-28</p> <p><u>쏘련점령지역내 화폐개혁.</u> 독일통화은행의 Mark 도입(70 RM 까지 1:1로 교환, 기타 현금 10:1, 저축금은 누진환율 적용) 서부 Berlin에서는 점령군사령부가 DM을 통용화폐로 결정, <u>동독마르크를 전 Berlin에 관철시키려던 쏘련의 시도는 좌절됨.</u></p> <p>' 48. 6. 24</p> <p><u>쏘련은 Berlin 서부점령지역에 대한 모든 육로와 수로의 완전 봉쇄조치를 단행</u> 하여 진입 및 (전력공급을 포함한) 모든 공급이 중단됨.</p>

국 제 관 계	독 일
	<p>' 48 . 6 . 26 미국은 미군주둔군 사령관 Lucius D. Clay 장군의 건의에 따라 Berlin 지원 공중가교(Luftbruecke)를 설치하여 봉쇄된 도시에 물자를 공급함. 6.28 영국공군이 합세함.</p> <p>' 48 . 7 . 1 서방점령군 사령관들은 그 점령지역내 주지사에게 "<u>프랑크푸르트 문서</u>"를 전달함 : 헌법제정 회의개최 제안, Land 간 국경을 검토할 것을 건의, 향후 독일정부와 점령군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p> <p>' 48 . 7 . 8-10 Koblenz-Rittersturz에서 각 Land의 주지사들이 "<u>프랑크푸르트 문서</u>"를 논의한후 헌법제정회의 소집 대신 각주의 의회대표회의를 구성할 것을 결정함. "<u>헌법</u>"이라는 용어 대신 신국가의 잠정적성격을 강조하고 조만간 달성될 수 없는 제국의 통일에 손상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 "<u>기본법</u>"이라는 용어로 대체함.</p> <p>' 48 . 7 . 20/26 점령군 사령관과 각 Land 주지사들이 Frankfurt에서 회동, 서부독일국가 건국의 절차에 관하여 합의 함.</p>

국 제 관 계	특 일
	<p>° 48. 7. 28-29 SED 당지도부는 기존노선의 변경을 도입함. SED는 "새로운 형태의 정당"으로서 그 형태를 변경함. 이는 조직과 강령상 소련공산당에의 접근 및 <u>SED의 스탈린주의화를</u> 뜻하는 것임.</p> <p>° 48. 8. 10-23 각 Land의 주지사들이 소집한 Herrenchiemsee의 헌법 제정회가 <u>헌법초안을 작성함.</u></p> <p>° 48. 8. 26 Berlin 시 의회가 공산주의 방해집단에 의해 폭파됨. 소련 점령지역에 있던 시청건물이 기습당한후 '48.9.6 시 의회와 시 행정당국은 서 Berlin에 있는 Schoeneberg의 Rathaus로 이전함.</p> <p>° 48. 9. 1 Bonn에서 <u>헌법제정자문회(Parlamentarischer Rat)</u>가 개최됨. 이자문회는 11개 Land의회가 선출한 65명의 의원 및 5명의 Berlin 출신 자문의원으로 구성됨. Konrad Adenauer가 회장, Carlo Schmid는 본회의 의장으로 선출됨.('48.9.15.)</p> <p>° 48. 9. 16 SED 당지도부는 "중앙 당감독위원회(ZPKK) 및 Bezirk와 Kreis 단위의 당감독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으며 당원의 모든행동을 검토하도록 함("새로운 형태의 정당" 구성을 위해)</p>



국 제 관 계	특 일
	<p>' 48 . 10 . 13          쏘련점령지역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광부인 Adolf Hennecke의          목표량 예정 초과달성 사례를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열성 노동운동"이 제창됨.</p> <p>' 48 . 10 . 14          쏘련점령지역의 독일민족자문회가 독일민주공화국을 위한          헌법초안을 통과시킴.</p> <p>' 48 . 10 . 22          FDGB가 Bitterfeld에서 총회개최 : <u>노조활동이 계획경제의          일환으로서 확정됨.</u> 기업자문회는 기업노조통제기구에          병합되어 철폐됨.</p> <p>' 48 . 11 . 30          SED출신의 시의회의원과 "민주블럭"의 대표들은 동Berlin에서          Friedrich Ebert의 주도하에 "임시민주시의회"를 구성함.          Berlin 임시 시헌장을 근거로한 전 Berlin선거는 '48.12.5          서부지역에서만 실시될 수 있었음. 이로부터 구성된 시의회는          Ernst Reuter(SPD)를 재차 시장으로 선출하였는바 서부지역          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Reuter는 이미 '47.6.24에          시장으로 선출되었으나 SMAD가 그 취임을 방해 하였음.          Louise Schroeder(SPD)가 그 서리로 집무함.)</p>

국제관계	독일
<p>’48.12.28 London 6대국 회담 : 국제 Ruhr 관리기구의 창설. 서방3대 점령지역은 이 기구에 우선 점령군 사령관을 대표로 참여케 함.</p>	<p>’48.12.11/12 Heppenheim에서 <u>자유민주당(FDP)</u>이 3대 서방점령지역을 단위로 <u>참당됨</u>. Theodor Heuss가 당수로 선출됨.</p>
<p>’49.1.25 Warschau에서 상호경제협력위원회 (RWG)가 <u>창설됨</u>. 서방측에서는 COMECON 으로 통칭됨.</p>	<p>’49.1.25 SED 제1차 전당대회 : 정치국을 구성하여 당내의 모든 기구가 그 지도를 받도록 함.(민주적 집중주의 고수 및 당내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금지)</p>
<p>’49.4.4 <u>북대서양조약기구(NATO)</u>가 <u>창설됨</u>. 민간적 임무와 군사적 임무가 있는 다국적 방어동맹. 최고기관인 "상설위원회"에 하에 최고사령관을 둠.</p>	<p>’49.4.9 프랑크푸르트 경제자문회가 서부독일에서 기업주와 노조간에 임금자율권을 제도입 함.</p>
<p>’49.4.6-8 Washington에서 개최된 서방3대국의 독일회의에서 점령상태에 관한 원문을 결의 : 공장해체(징발)의 완화 서방3대국 군사 정부 대신 연합국 최고위원회 설치, Bizone를 프랑스의 가입으로 Trizone로 확장</p>	<p>’49.4.22 Ruhr 지역에 관한 협약이 발효됨. Ruhr 지역의 석탄생산과 철강생산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에 서부독일, 서방3대 점령국 및 Benelux 3국이 참여함.</p>
<p>’49.5.5 London에서 유럽 10개국에 의한 <u>유럽평의회(Europarat)</u>가 <u>창립</u>. 유럽평의회는 유럽의 전통을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의 존중을 고수함.(창립회원국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웨이, 스웨덴, 본부 : 스트라스부르크)</p>	<p>’49.5.4 Berlin 봉쇄 종료에 관한 4강협정 (미국과 소련의 UN 대표인 Jessup과 Malik가 회담에 성공한후),독일인과 서방점령국이 공동으로 Berlin 봉쇄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이래 독일의 친서방 노선이 더욱 강화됨.</p>

국 제 관 계	특 일
<p>' 49 . 5 . 23</p> <p>Paris에서 4개국 외무장관 회담, 6.20까지 독일문제에 관하여 토의 : <u>쏘련</u> 은 서방3대국에 의해 Potsdam 협정이 위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u>Potsdam 결의에의 복귀</u> 및 <u>연합국 공동 감독위원회의 부활을 촉구함</u>. 이에 대해 <u>서방 3대국은 쏘련점령지역의 독일연방에의 걸속을 제안 함</u>.</p> <p>독일문제에 관한 견해가 너무나 판이하여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남.</p>	<p>' 49 . 5 . 8</p> <p><u>헌법제정회가 기본법을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함</u>. 그 이틀후 <u>Bonn이 독일연방의 잠정적 수도(행정소재지)로 결정 됨</u>.</p> <p>' 49 . 5 . 12</p> <p><u>서방 3대국 기본법을 승인함</u>. <u>Berlin 지원 공중가교의 끝</u>. 총 277,728회의 비행 -가장 많았던 때는 하루 4,000회의 발착- 과 함께 2,110,235톤의 각종재화가 서 Berlin으로 운송되었으며 그중 67%는 석탄, 24%는 식품이었음. 이 지원활동중 78명이 목숨을 잃음.</p> <p>' 49 . 5 . 23</p> <p><u>기본법이 공포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BRD;이하 통칭 서독)이 건국됨</u>. 그 이전에 각 Land 의회가 기본법 수용여부를 결의함. <u>Bavern주만이 기본법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본법의 연방주의적 요소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었음</u>. 그러나 Bayern 주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임을 표방 하였음. <u>Berlin 서부와 관련하여 서방 3대국은 "이후 Berlin은 Bundestag이나 Bundesrat에서 투표권이 없으며, 연방정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유보조항을 선언함</u>.</p> <p>' 49 . 5 . 29/30</p> <p><u>동Berlin에서 개최된 제3차 독일인민회의에서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을 채택함 ('49.3.19에 독일인민회의에 의해서 승인됨.)</u></p>

국 제 관 계	서 록	봉 록
	<p>° 49. 8. 14  <u>제1차 독일 Bundestag 선거</u> : 18개  정당이 허용. CDU/CSU 31%, SPD 29.2%,  FDP 11.9%, KPD 5.7%, Bayernpartei  4.2%, 독일당(DP) 4%</p> <p>° 49. 9. 7  <u>Bonn에서 Bundestag과 Bundesrat가</u>  <u>구성됨.</u></p> <p>° 49. 9. 12  독일연방대통령 선거인단(Bundesver-  sammlung)이 Theodor Heuss를  대통령으로 선출함.</p> <p>° 49. 9. 15  <u>Konrad Adenauer가 수상으로 선출됨.</u>  아데나워는 CDU/CSU, FDP, DP의 연립  내각을 구성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49.10.1            소련이 서방3대국에 대해 외교통첩을 통해 서독의 건국에 항의함.</p>	<p>'49.9.21            점령규약이 독일연방으로 통합된 서방 3대 점령지역에서 발효함. 서방 3대국 최고위원이 Bonn 근교 Petersberg에서 독일연방정부 인사를 영접함. 안보, 외부관계, 법률제정과 행정 및 경제의 감독은 유보사항으로 존속시킴.</p> <p>'49.10.8  <u>점령지역간 무역에 관한 협정("프랑크 푸르트협정")</u>으로 독일 화폐지역간 지불교류 및 청산교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p> <p>'49.10.12-14            독일노동조합연맹 (DGB) 이 Muenchen에서 <u>단일노총으로 결성됨.</u> Hans Boeckler가 그 위원장으로 피선됨.</p>	<p>'49.10.7            독일민주공화국(DDR: 이하 통칭동독)이 '49.10.5 "독일인민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구성된 인민의회를 통과한 헌법에 의해 <u>건국됨.</u> 서독은 동독이 <u>자유선거로 창설되지 않았으므로 동독 정부를 인정하지 않음.</u>            동독헌법은 Berlin 동부를 "동독의 수도"로 명기함.</p> <p>'49.10.10            SMAD의 해체 및 소련감독위원회(SKK)의 구성. 행정일체를 잠정적인 동독 정부에게 위임함. 동독의 5개 주의회는 선거를 통해 임시 인민의회를 구성(인민의회는 '58.12.8. 법률을 통해 Land가 해체된지 6년만에 해산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49.11.9-16 Landon에서 서방3대국 외무장관회담 : 서독에 보다 많은 정치적 재량이 부여될 것. 서독에서 자유스런 가운데 민족공동체의 결속이 촉진될것.</p> <p>° 49.11.22 Petersberg 협정이 점령국 최고위원회와 Adenauer 수상에 의해 서명됨. 이후부터 서독은 영사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체의 생산제한은 완화되고 공장해제는 중단됨.</p>	<p>° 49.10.31 독일연방공화국 OEEC에 가입</p> <p>° 49.11.30 서독이 국제 Ruhr지역 관할기구에 관한 협정에 가입</p>	<p>° 49.10.11 Wilhelm Pieck(SED)가 잠정 인민의회에서 동독 대통령으로 선출됨.</p> <p>° 49.10.12 각료회의장 Otto Grotewohl(SED)이 이끄는 동독 임시정부가 인민의회로부터 승인받음.</p> <p>° 49.10.15 <u>쏘련과 동독간의 외교관계 수립</u></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50. 3. 3 Poland에서 추방된 독일인의 제1진이 Niedersachsen의 Friedland에 설치된 수용소에 도착함.</p> <p>'50. 3. 16 Churchill 수상이 하원에서 행한 연설중 <u>독일의 재무장을 주장함.</u> 증가일로에 있는 동·서 긴장에 따라 독일의 국방비 부담의 필요성이 서방측에서 논의됨. '50.8.29/30 Adenauer 수상은 각서를 통해 독일의 국방비 부담을 제의하고 그와 동시에 독일의 주권을 요구함.</p> <p>'50. 3. 31 유럽평의회가 서독과 Saarland를 초치하여 준회원국이 될것을 종용함.</p>	<p>'50. 1. 13 정치정당의 면허 의무제도가 철폐됨.</p> <p>'50. 2. 1 Berlin 전권 대표청이 신설됨.</p> <p>'50. 3. 7 Berlin의 경제적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u>Berlin 지원법이 통과 됨.</u></p> <p>'50. 3. 22 서독정부가 국제감시하의 <u>전독자유선거</u>를 주장함. 전독헌법을 제정할 민족의회가 선출되도록 함. 모든 점령지역에 걸쳐 자유선거를 위한 전제조건이 형성되고 4대강국이 이를 보장함.</p> <p>'50. 3. 31 식품 배급권 발급이 중지됨.</p>	<p>'50. 1. 7 "민족전선"과 민족자문회의 비서국의 설립. 제후정당과 아울러 FDGB, FDJ 및 여성동맹과 같은 거대한 대중조직 관장. "민족전선"의 중요 과제로는 각 계층을 망라하는 선거시 단일 공천명단의 작성이었음.</p> <p>'50. 2. 8 <u>국가보위부(MfS)가 설립됨.</u></p> <p>'50. 5. 1 사회주의적 노동권이 "노동법률"에 확정됨.(직장보장 등)</p> <p>'50. 7. 6 동독과 Poland간의 불변의 국경으로서의 Oder-Neisse선에 관한 "Goerlitzer 협약"의 체결</p>

국 제 관 계	서 록	동 록
<p>* 50. 5. 4          소련은 독일전쟁 포로의 귀환조치가 종결 되었다고 확인함. 독일이 항복한 이래 1,939,063명의 전쟁포로가 그들의 고향 내지 독일내 4대점령지역으로 돌아옴. 서독정부는 소련의 그와같은 선언을 불충분하다고 거절하고 소련에 억류중인 포로의 석방을 요구함.</p> <p>* 50. 5. 9          프랑스 외무장관 Robert Schuman이 앞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유럽 제국이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철강 산업 분야를 관장하고 통제할 것을 건의함.</p> <p>* 50. 6. 25  <u>한국동란 발발.</u> 북한 공산군이 한국으로 진격 함.          미국과 UN이 한국을 도와 '50. 9부터 북한군을 퇴각시킴. <u>한국 동란은 유럽내 서방동맹의 구축에 관한 논의를 특히 독일의 재무장과 관련 촉발시켰음.</u></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0. 9. 12-18  <u>New York에서 서방3대국 외무장관회담</u> :  서유럽 방어를 위한 서독의 방위부담에  관한 논의, 서독이 재통일될때까지"자유  스런 가운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유일한  독일정부"라고 선언함.  (서독의 단독대표권 인정)</p> <p>' 50. 9. 19  서독을 포함한 17개 OEEC 회원국이  Paris에서 유럽지불연맹(EZU) 결성.  서방 3대국의 Berlin 보장에 관한  New York 선언</p>	<p>' 50. 8. 5  "실향민 헌장"과 함께 구 동부독일 출신  실향민회는 그들의 추방시 받았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복 및 복수를 포기한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실지에 대한 권리  주장 승인을 요구함.</p> <p>' 50. 8. 9  Berlin 서부가 연합국의 유보권 행사  조건하에 서독의 일개주로서의 헌법적  권리를 취득함.</p>	<p>' 50. 7. 20-24  SED는 그 제3차 전당대회를 통해 독일  노동자계급의 정당으로서 그 계급조직의  최고형태라고 당에관한 정의를 내림.  이와 함께 "사회주의를 향한 독일독자노  선"이라는 명제는 결국 지양되고 소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완결됨.  3차 중앙위원회 총회(50.10.26/27)에서  구 사민당 출신들을 겨냥한 정풍운동  (당원증 검사)이 결정됨.</p> <p>' 50. 9. 29  <u>동독 COMECON에 가입</u></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0.10.20/21 Prag에서 동유럽 외무장관이 회동하여 New York 외무장관회담이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외무장관회담을 새로 개최하자고 주장함. Potsdam 협정의 결의에 따라 동·서독 출신의 동수로 구성된 독일중앙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함.</p> <p>° 50.10.24 프랑스 총리 Pleven은 동일한 무장과 지휘계통하의 유럽군 창설을 제안함 ("Pleven-Plan"). 이로써 서부독일의 국방분담은 초국가적 방위구조에 결속 되도록 함. 유럽통합계획은 동·서 긴장하에서 소련에 대한 서유럽에 안전을 보장하고 서독의 경제적, 군사적 잠재력을 결속시키는 이중적인 역할 부여함.</p> <p>° 50.11.4 Strassburg에서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이 서명됨. 이 협약은 '53.9.3에 효력발효</p>	<p>° 50.10.26 Adenauer 수상이 CDU 하원의원 Theodor Blank를 "연합군 주둔과 관계되는 제문제 담당 수상 전권위임자"로 임명함. ("Dienststelle Blank")</p>	<p>° 50.10.15 민족전선이 제출한 단일 공천명단으로 인민의회, 주의회, Kreis 의회, Gemeinde 의회 선거. 투표율 98.44%, 단일 공천명단 지지율 99.7%</p> <p>° 50.11.8 정부개각 및 인민의회 구성</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1. 4. 18  <u>유럽공동체 석탄철강 협약</u> (EGKG, 일명 Montan-Union) 서명. 이로써 Ruhr 점령상태는 폐기되고 Ruhr 관리기구는 해체되도록 함. Montan-Union은 <u>유럽 통합의 제1단계</u>이며 석탄, 철강에 관한 공동시장이 조성됨.</p> <p>* 51. 7. 9  영국은 대독일 전쟁상태 종료를 선언함. 7.13 프랑스, 10.24 미국이 뒤따름.</p>	<p>* 50. 12. 2  Adenauer 수상이 소련의 공격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등한 자격으로 독일의 국방부담을 주장함. '50.11.3 소련은 서방3대국에게 Potsdam 협정의 준수와 독일의 비무장화를 촉구함.</p> <p>* 50. 12. 12  SPD의 Kurt Schumacher 당수가 동등한 자격으로 독일이 참가하는 국제군장설을 주장함.</p> <p>* 51. 3. 15  독일연방 외무성 재개. Adenauer가 외무성장관 겸임</p> <p>* 51. 3. 16  독일연방 국경수비대 편성</p>	<p>* 50. 11. 30  <u>동독 각료회의장이 Adenauer 수상에게 전독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전독 입헌 자문회 구성을 건의하는 편지.</u>  그 이래 반복되는 이 건의는 동독이 서독과 동등한 지위 획득을 꾀하려는 목표가 있었음.</p> <p>* 51. 3. 14  동독의 인민의회와 내각은 다음과 같은 표어를 제창함.  "전 독일인을 한 협상 테이블로"  (소위 민주세력의 통일전선 형성을 통한 전독일 회의 개최 주장)</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1. 9. 14 Washington에서 서방3대국 외무장관회담: 대독일 관계가 수정되어 서독은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유럽대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독일조약으로 점령상태를 대치하도록 함.</p> <p>* 51. 12. 11 서방 3대국이 UN 사무총장에게 발의하여 독일대표를초청한 가운데 UN에서 전독 총선에 관한 문제 취급. UN 정치 위원회에서 동독대표는 UN 감시하의 양독 총선을 반대하였으나 서독대표는 그와같은 UN의 감시를 환영함. '51.12.20 유엔총회는 서독, 동독, Berlin의 선거 여건 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결의함</p> <p>* 51. 12. 20 동유럽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UN총회는 전독총선의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단을 동·서독지역에 파견하기로 결의함. '52 초 동독정부는 조사단 입국을 거부함.</p>	<p>* 51. 9. 10 <u>Berlin 협정</u> 이 DM 통화지역과 동독 DM 통화지역의 점령지역간 무역을 규정함으로써 <u>내독무역의 법적기초가 마련됨.</u></p> <p>* 51. 9. 27 서독정부가 연방의회에 헌법제정 국민회의 선출을 위한 전독 "유엔감시하 자유선거"에 관한 선거규정을 제출</p> <p>* 51. 9. 28 <u>연방 헌법재판소가 Karlsruhe에 설치됨</u></p>	<p>* 51. 9. 27 동독이 소련과 무역협정 및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기타 동유럽권 국가와도 이와 비슷한 협정 체결.</p> <p>* 51. 11. 1 동독 제1차 5개년 계획('51-'55) 수립</p> <p>* 51. 11. 2 <u>동독 대통령 Pieck가 서독의 Heuss</u> <u>대통령을 초청.</u> Heuss 대통령 이를 거절</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52. 3. 10  <u>서방3대국에 대한 Stalin 통첩(Stalin-Note)</u> 은 대독 평화회담의 기본원칙을 건의하는 것임. 독일은 "통일, 독립, 민주, 평화애호국"으로 재건되어야 함. 독일은 연합국이나 군사동맹으로부터 탈퇴하여야 하며, 자체의 국방력을 유지할 권한이 있음. Potsdam에서 설정한 국경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인정되어야 함(즉 Oder-Neisse 최종적 결정, Saarland의 귀속). "반평화적, 반민주적" 단체는 금지되어야 함. 소련은 유럽 방위공동체 구성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체안(전쟁배상 지불의 양보, Ruhr 지역에 대한 4대국 통제기구 및 독일 비무장화기구 설치의 양보, 점령군의 철수)을 제시. 서방측은 UN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평화회담 이전에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전독 정부구성이 우선과제임을 간주, 그답신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룸. 이에 소련의 입장은 불분명함. 제2차 통첩('52.4.9)으로 이 문제를 재론할 것을 제의하면서 UN 감시위원회를 통한 선거여건 검토는 계속 거부함. 수차의 통첩교환(서방측 '52.5.13, 소련 '52.5.14, 서방측 '52.7.10, 소련 '52.8.23, 서방측 '52.9.23)은 아무런 성과가 없음. 그이후 Stalin 통첩은 정계와 학계의 논란의 대상이 됨</p>	<p>' 52. 2. 8  연방의회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유럽방위공동체(EVG) 가입을 결정</p>	<p>' 52. 1. 9  서독정부가 연방의회에 UN 감시 전독 총선을 위한 선거규정을 제출한 이후 동독의 인민의회는 국민의회 선출을 위한 전독선거법 초안을 통과시킴.</p> <p>' 52. 5. 8  동독 "인민군" 창설이 공포됨. 이는 "병영화한 인민경찰"을 근간으로 함.('48 이래)</p> <p>' 52. 5. 17  Sachsen과 Thuringen에서 정치재판. 장기간에 걸친 구금형으로 야당이 위협을 받도록 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52. 5. 26 "서독과 서방3개국간의 관계에 관한 협약"인 "<u>독일조약</u>"(Deutschland - Vertrag)이 Bonn에서 서명됨. 이 조약으로 <u>점령상태가 끝남.</u> <u>이 조약은 유럽방위공동체 비준과 연계됨.</u> 이 조약은 연합국 특별법으로서 병력주둔권, 긴급사태에 관한 규정, Berlin에 관한 책임, 전체독일의 통일과 평화조약 등을 규정함. 서독은 평등 원칙하에 유럽공동체에 귀속됨. 평화스런 방법으로 자유로운 독일통일이 추구되도록 함.</p> <p>'52. 5. 27 Paris에서 유럽방위공동체(EVG)에 관한 협정이 조인됨. 프랑스, 이탈리아, Benelux 3국 및 서독은 그들의 군사력을 동일한 장비, 복무기간과 함께 합동 최고사령부 예하에 통합하려고함. 이와 동시에 "유럽정치공동체"(EPG)가 EVG 국가의 초국가적 정치기구로서 계획됨. 프랑스 국민의회가 '54. 8.30/31 EVG 협정을 비준하지 않아 결국 EVG는 좌절되고 맘.</p>	<p>'52. 5. 26 <u>동독 각료회가 대서독 국경의 완전차단을 결의함.</u> 동·서독간의 1381Km에 달하는 국경에 연하여 넓이 5Km의 차단지역이 설치되어 특수허가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게됨. 10m 넓이의 깊은 차단지역(사선지대)에 들어갈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격이 가해짐으로서 완벽한 철의장막이 됨. 서독여행용 점령지역간 여권은 아주 적은 숫자만 발행됨. 이와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동독내에서 일기시작한 피난 행렬은 계속됨. 도주로의 최적지는 Berlin 이었음.</p> <p>'52. 6. 6 자민당 출신 연방하원의원 Karl Georg Pfleiderer는 Rhein강과 Oder강 사이에 점령국이 없는 독일지역이 설치되고 독일 국민군이 설립되어 서방과 동유럽의 교량역할을 하며, 이곳에 연합국 점령 지위가 제한될 것을 건의함.</p>	<p>'52. 7. 9 - 12 SED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토대의 계획적 건설"을 "내적 계급투쟁의 강화로 추진 할 것을 결정함. 그 결과 학교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하에 학생들을 교육할 임무가 부여됨. 대학에서는 사회학적 기초 과정 이수가 필수과목화 됨. "모든 반동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쟁"이 촉진됨.</p>

국제관계	서록	동록
<p>'52. 7. 15 서방3대국 독일에 관한 4대 전승국 회담을 제안</p>	<p>'52. 8. 2 서독 국제통화기구(IWF : IMF)에 가입</p> <p>'52. 10. 23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회주의 제국당(SRP)이 금지 조치됨.</p>	<p>'52. 7. 24 5개주가 해체됨. 그대신 14개 행정 관구(Bezirke)가 자치행정부 없이 구성됨. Landkreis의 수는 121로부터 194개로 증가되고 Kreis가 없는 Stadt의 수는 143개로부터 23개로 감소됨. '52년 여름부터 재화 결핍으로 인하여 생활수준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함.</p> <p>'52. 8. 7 대중조직 "체육기술협회"(GST)의 창립. 이 단체는 청소년들의 입영전 훈육 및 교육을 위한 대규모 조직이었음.</p> <p>'52. 12. 5 - 6 "농업생산조합"(LPG)의 구성 및 확장에 관한 결의. 농업의 집단농장화가 서서히 강화됨. 강제대책으로 '58-'60에 그절정에 달함.</p> <p>'53. 1. 15 외무장관 겸 동독 CDU 당수 Dertinger가 체포됨.</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53. 3. 5  <u>Stalin 사망.</u> 3.6 Malenkow가 소련 각료회의 의장으로 임명됨.  부의장에 Berija, Molotow, Bulganin, Kaganowitsch가 임명됨. 외무장관에 Molotow, 내무장관에 Berija 취임.  7.10 Berija는 모든 관직으로부터 숙청된 후 12월에 처형됨.  9.13 Nikita S. Chruschtschow가 소련 공산당 중앙위 서기장이 됨. ’55.2.8 Bulganin이 Malenkow의 후임으로 취임함  ’55.6.1 Molotow가 외무장관직을 사임.  <u>Chruschtschow는 제20차 전당대회의 비밀연설에서 "탈스탈린화"를 개진 하여 Stalin의 무수한 범죄행위와 권력남용 행위를 비난함.</u> ’58년 그는 각료회의 의장이 됨. 신지도층은 조심스럽게 스탈린주의 정책으로부터의 탈피, 특히 소비재 산업의 강화 및 문화정책적 완화 ("해빙")를 시도함.</p> <p>’53. 7. 27  한국에서 정전협정 서명</p>	<p>’53. 5. 19  <u>독일연방 실항민법</u> 이 도주자와 추방민의 경제적, 사회적 적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p>	<p>’53. 4. 21  신교의 감독장들이 교회업무의 방해에 대해 항의. ’53.1~3까지 50여명에 이르는 성직자, 보조원, 부목사가 체포됨. "청소년교인단"이 신랄하게 비판되어 300명에 이르는 고등학생이 종교 때문에 정학처분 당함.  자유농민에 대한 SED의 압력도 점점 증가함. 58,605명이 서독으로 피신함.  4.9 동·서독국경 통과자, 자영업자들로 부터 식품 배급권이 박탈됨.</p> <p>’53. 5. 28  소련 감독위원회가 "동독 최고위원회"가 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독	동 독 독
	<p>* 53. 6. 10 서독하원 전독 자유선거, 전독정부의 구성,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4대전승국 회담을 만장일치로 가결, 요구함.</p> <p>* 53. 7. 1 Adenauer 수상 서독하원에 봉독을 위한 즉각 대응책을 제출 : 동·서독간의 모든국경 개방, 전독일내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집회의자유, 모든정당의 허가, 민주주의 통치방법의 조성이 자유 선거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함. 공급분야의 즉각대응책은 이미 준비 되었다고 함.</p>	<p>* 53. 5. 29 각료회의가 노동기준량 10% 증가를 결의함.</p> <p>* 53. 6. 9 SED 정치국은 "신노선" 정책 도입에 관한 커뮤니케 발표 : 국가권력의 강화, 당과 국가와 주민간의 밀접한 결속, 주민의 불평불만의 뿌리를 뽑도록 함.</p> <p>* 53. 6. 16 동 Berlin 건축 노동자 스트라이크</p> <p>* 53. 6. 17 <u>동 Berlin 인민봉기</u> 가 발발하여 동독 일대로 확산됨. 총 272개에 이르는 도시와 마을(217개의 Stadt와Landkreis중 16개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됨) 봉기의 중심지는 특히 산업조밀지대였음 시위대의 요구는 즉각적으로 정치적 요구로 돌변함 : <u>정부퇴진, 자유선거, 동·서독간 국경 철폐, 인민봉기는 소련군에 의해 진압됨.</u>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 가담자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됨. (최소 1,400명), 피난의 물결이 새로운 절정을 이룸('53 : 331,390명)</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4. 1. 25 - 2. 18 Berlin에서 4대 전승국 외무장관 회담, 독일에 관한 영국외무장관의 "Eden-Plan"이 논의됨 : 전독자유선거, 헌법과 평화협정을 준비하기위한 국민회의의 소집, 헌법의 제정 및 정부구성. 평화협정 체결 이후 독일은 동맹관계의 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것. 기타 국제문제는 미결상태로 놔두며 후일 다시 처리하도록 함. 독일에 관계되는 제문제에 관하여 소련 외무장관 Molotow는 '52.3.10 Stalin 통첩과 관련된 논쟁을 반복함.</p> <p>* 54. 10. 19 - 23 <u>Paris 회담</u> : 9개국 회담에서 Brussels 협정('48.3.17)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가입과 함께 서유럽동맹(WEU)으로 변경될 것을 결의. 15개국 회담(NATO의 14개 서명국 + 참관국으로서의 서독)에서 <u>서독의 NATO가입이 결의됨</u> 으로서 이에 독일의 주권이 연계됨. 또한 '52.5.26의 "<u>독일조약</u>" 이 수용됨. 이와같은 "Paris 협정"과 함께 서유럽제국에 의한 서독의 보호가 보장됨. Paris협정은 '55.5.5 조인과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함.</p>	<p>* 53. 8. 4 서독하원 6월 17일을 "<u>독일통일의 날</u>" 로 선언함.</p> <p>* 54. 2. 26 기본법의 제1차 "국방관련 조항" 개정으로 서독의 국방분야 주권이 근거를 찾음. SPD는 이에 반대.</p>	<p>* 53. 6. 21 SED 중앙위가 동독의 인민봉기를 서독측의 책동에 의한 "반혁명적 파쇼 혁명"이라고 선고하고 할당량 증가를 원상복귀 시킴. 당내 숙청으로 연결됨. 국가보위부가 서기국으로서 내무부에 소속됨.('57년 부터 다시 독립부가 됨)</p> <p>* 54. 1. 23 SED 중앙위가 일부 고위간부급을 탈당 시키고 당내 대숙청을 단행하여 Kreis 서기장급의 71%가 희생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5. 1. 15  <u>소련의 독일문제에 관한 선언</u> : 소련은 Paris협정 조인이전에 독일문제에 관한 4대 전승국 회담을 요구.          목표 : 전독총선실시, 평화협정, 집단안보체제, 독일의 동맹관계 가입 배제</p> <p>* 55. 1. 25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다고 선언</p> <p>* 55. 5. 11 - 14          Warschau에서 동유럽의 소련,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가 방위공동체인 <u>바르샤바조약기구를 결성.</u></p>	<p>* 55. 2. 26 - 27          Paris협정이 서독하원에서 비준됨. 독일통일에 관한 결의로 서독하원은 서독이 참가하는 4대 전승국회담 개최를 요구.          목표 : 전독의회구성을 위한 선거, 전독 헌법 마련, 전독 정부의구성, 통독의 수행 및 그 과정의 국제 감시</p> <p>* 55. 5. 1          Washington, Landon, Paris 주제 독일 외교기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됨.</p> <p>* 55. 5. 5  <u>서독이 주권국가가 됨.</u></p> <p>* 55. 5. 9  <u>서독 NATO 가입</u></p>	<p>* 55. 3. 2          인민의회가 Paris협정에 반대하면서 독일통일에 관한 국민투표를 제의함</p> <p>* 55. 3. 27          동 Berlin에서 최초의 청소년 축제. 청소년들은 서약을 통해 "노동자계급과 당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할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당으로부터의 결정 사항"을 위해 투쟁함. 견진성사나 성찬식을 대신하는 청소년축제와 함께 청소년들이 교회로부터 이탈한후 동독과 사회주의와 소련과의 우방관계에만 혼신할 것을 선서함.</p> <p>* 55. 5. 1          처음으로 직장 방위대가 "노동과 향토 방위에의 준비"라는 표어와 함께 출범함. SED는 '53년 인민봉기의 경험을 근거로하여 이를 선동한 것임.</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5. 5. 15 오스트리아와 국가조약 서명. 4대전승국은 오스트리아의 주권과 중립을 보장.</p> <p>° 55. 7. 17 - 23 Genf 4대국 정상 + 외무장관 회담 (Eisenhauer/Dulles, Bulganin/Molotow/ Chruschtschow, Eden/Macmillan, Faure/ Pinay) 자유선거를 원칙으로하는 독일 통일과 전유럽 안보체제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결의함. 또한 군축계획, 원자력 에너지 문제, 극동문제, 냉전종식 문제가 토의됨. 행정규정을 근거로 외무장관들은 계속적으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함.</p> <p>° 55. 7. 24 - 27 Chruschtschow가 동 Berlin에서 독일 통일은 독일인의 사항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인 "동독의업적"은 비방되어서는 안된다고 함. 그의 논리는 "2개국 이론"에 근거하고 있었음.</p>	<p>° 55. 6. 6 "Dienststelle Blank"가 독일연방 국방성이 됨.</p> <p>° 55. 9. 9 - 13 Adenauer수상 을 필두로하는 초당적인 사절단이 <u>Moskau 방문 : 외교관계 수립</u> 및 잔류 전쟁포로의 석방에 합의 (약 10,000명)</p> <p>° 55. 9. 22 Moskau 회담에 관한 시정연설. 서독정부는 합법적으로 구성된 유일한 정부로서 전독일민족을 대변할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펴. ("<u>단독 대표권</u>") 동독이 체결한 제3국(소련 제외)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독일의 분단을 고착화 시킬 수 있는 비선린적인 행동으로 간주함.(독일연방 외무성 국무차관인 Dr. Walter Hallstein 교수의 이름을 따 "<u>Hallstein-Doktrin</u>")이라 함.</p> <p>° 55. 9. 23 연방하원이 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만장일치로 결의함.</p>	<p>° 55. 5. 15 동독 은 소련 주도하의 동유럽 군사 동맹인 <u>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u>이 됨</p> <p>° 55. 9. 20 동독은 Moskau에서 소련과 회담한 결과 조약을 통해 주권을 회복함.</p> <p>° 55. 9. 26 인민의회는 국방력구축의 전제조건으로서 헌법개정 에 관한 법안을 결의함.</p> <p>° 55. 12. 1 - 2 SED의 대학회의는 '51.9.1 발표된 대학 개혁(사회과학적 기본과정 등)을 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해 계속 진행함. 인문과학 분야는 교수와 연구의 자유가 더이상 없게 됨. 고등학교 입학허가는 새로운 규정 (°55.12.12)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의 자녀가 우선적이어야 하며", 특히 "노동자권력 및 농민권력의 주요직"을 소유하고 있는자들의 자녀가 입학되도록 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5. 10. 27 - 11. 16 Genf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Genf 외무 장관 회담은 서독과 동독의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의 안보문제 및 군축 문제를 토의함. Molotow는 전독총선에 관한 서방측의 건의를 거절함. 이에 서방측은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행정 규정의 위반이라고 비난함. 소련은 2개국 이론을 주장하면서 동·서독 국가연합을 건의함.</p> <p>° 56. 2. 14 - 25 Moskau에서 거행된 제20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Chruschtschow는 비밀 연설을 통해 Stalin과 그의 국내정책을 준엄하게 비난함.</p> <p>° 56. 6. 28 폴란드의 Posen에서 노동량 할당기준에 반대하는 노동자 봉기가 군부에 의해 진압됨.</p>	<p>° 55. 10. 23 Saar 지역의 주민중 2/3가 Saar 규약과 Saar의 유럽화를 거부함. 그와같은 규약은 독일과 프랑스간에 체결된 Paris 협정의 일부('54.10.23)로서 합의 되었었음. '56.1.31 기본법 제23조에 의해 Saarland의 주의회는 '56.10.27 프랑스와 Saar 협정을 체결, 그에 따라 '57.1.1부터 Saarland는 정치적으로 서독에 속하게 됨. 경제적 통합은 '59.7.5에 수행됨.</p> <p>° 56. 7. 21 양심을 근거로한 병역기피권과 함께 일반 병력의무제도의 도입</p> <p>° 56. 8. 17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산당(KPD)이 금지 조치됨.</p> <p>° 56. 11. 30 외무장관 Von Brentano는 폴란드에 대하여 서독이 국경문제중 특히 Oder-Neisse 국경문제에 무력적 해결방안을 사양한다는 보장을 제안함.</p>	<p>° 56. 1. 9 - 14 제4차 대회와 함께 문인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예술작품을 통해 참여할 것이 요구됨. 이에는 "사회주의적 현실주의의 방법"이 가장 적격이라고 함.</p> <p>° 56. 1. 18 "인민군(NVA)"과 국방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p> <p>° 56. 6. 30 SED 중앙위는 SPD와 함께 서독의 병역의무제도 도입을 공동으로 저지하자고 제안</p> <p>° 56. 7. 15 - 18 제5차 교육자대회에서 어린이의 "애국적 육성"이 촉구됨. 종합기술 학습으로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기도하였음.</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6. 10. 23  대학생소요에 이어 헝가리에서 인민  <u>봉기</u>가 일어남. 신임각료 회의장  Imre Nagy가 헝가리식 사회주의 건설  (공공생활의 민주화, 생활수준의 향상,  '53년도 개혁계획의 실현 -이는 Rakosi  주도하의 Stalin 일파에 의해 방해됨)을  공표함. 소련군 병력의 동원으로  인하여 인민봉기는 시민전쟁으로 확대됨.  11.1 헝가리는 중립국을 선포하고  Nagy와 부의장 Pal Maleter가 체포됨.  11.11. 인민봉기는 소련의 강권때문에  분쇄됨. Nagy와 Maleter는 다수의  봉기자들과 함께 체포된후 후일 처형됨.</p> <p>* 57. 3. 25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GKG : 일명  Montanunion) 국가의 외무장관들에 의해  "로마협정"이 서명됨. 이 협정과 함께  유럽경제공동체(EWG=EEC) 및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가 창설됨(관세장벽 및  경제장벽의 철폐,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또한 경제통합이 추진되도록  함.</p>	<p>* 57. 1. 1  Saarland가 서독의 한 주가 됨</p> <p>* 57. 5. 23  안보와 독일통일에 관한 Deutschland-  Plan과 함께 SPD는 서독의 NATO가입 및  동독의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함.</p>	<p>* 56. 7. 27 - 29  SED의 제28차 중앙위가 개인송배 및  폴란드의 봉기사태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의 단축, 연금지급의 개선과  같은 문제를 다룸. 또한 60년도까지  100,000동의 추가주택 건설을 약속함.</p> <p>* 56. 11. 29  Wolfgang Harich을 중심으로 하는 당내  야당그룹의 체포(재판 및 판결 '57.3)</p> <p>* 57. 1. 31 - 2. 1  SED의 중앙위는 독일통일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가 대치하고 있는한 다른  가능성이 없으므로 <u>독일식 국가연합과  동·서독 동일숫자로 구성된 전독  의회의 구성</u>으로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함.</p> <p>* 57. 7. 27  동독정부는 <u>동독과 서독의 국가연합을  제안</u> 함.</p>

극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7. 7. 29 서방3대국과 서독은 "Berlin 선언"과 함께 독일통일에 대한 서방측 입장의 원칙을 확인함 : 독일은 자결권을 갖어야 함. 독일통일은 유럽의 평화 체제를 위한 전제 조건임. 자유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만이 통일된 독일을 대변할 수 있음. 독일은 외교정책적 결정의 자유가 있으며, 중립화나 비무장화 주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됨. 소련을 비롯한 모든 관련국의 정당한 안보 이해는 고려되어야 함. 4대국 정부는 소련과 함께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함.</p> <p>° 57. 10. 3 폴란드 외무장관 Rapacki가 유럽내 비핵지대 설치계획 을 제시함. ("Rapacki-Plan")</p> <p>° 57. 10. 19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Sputnik)발사. 이와함께 서방측의 기술우위의 맹신은 '58.2.1 미국이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권에 발사하기까지 흔들리기 시작함</p>	<p>° 57. 8. 9 독일연방 전독문제성이 설치한 독일통일 문제 연구자문위원회가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함 : <u>독일통일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통화 통합 및 중앙통제 경제 체제의 변경</u> 이라고 함.</p> <p>° 57. 10. 19 유고슬라비아가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서독은 <u>Hallstein-Doktrin</u>을 적용 하여 유고슬라비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함.</p>	<p>° 57. 12. 11 인민의회는 서독 연방하원에게 중유럽내 비핵및 비로케트 지대화를 제안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8. 1. 1 유럽경제공동체(EWG) 협약이 발표. 행정소재지는 Bruessel. Hallstein이 EWG 집행위원장으로 취임.</p> <p>* 58. 11. 27 소련의 Chruschtschow와 동독의 Ulbricht는 베를린의 지위문제와 관련 6개월 이내에 Berlin이 자치적 정치 단위로 변경되지 않으면 소련의 Berlin에 대한 권한을 동독에게 이전해 버리겠다는 <u>소련의 베를린 최후통첩</u> (Berlin- Ultimatum)과 더불어 소련은 국제위기를 불러 일으킴. '58.12.31 서방3대국은 이 요구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Berlin의 자유권을 방어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선언함.</p>	<p>* 58. 3. 19 소련대사 Smirnow와의 독일정책에 관한 일련의 회담후 <u>Adenauer는 동독이 오스트리아의 모델과 같은 상태로 될 것을 제안 : 내적인 주권 유지 및 군사적 중립의무.</u> 이 제안은 소련측이 받아들이지 않음.</p> <p>* 58. 7. 2. 서독연방의회는 평화협정체결 준비를 위한 4대국 최고기관 구성을 만장일치로 촉구함.</p> <p>* 58. 10. 3 Berlin에서 개최된 연방하원은 <u>자유소련 자결권을 바탕으로 하는 독일통일 이 재현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함.</u></p>	<p>* 58. 2. 3 - 6 SED의 중앙위 제35차 회의에서 간부 수석인 Schirdewan과 안전부장인 Wollweber가 "반당그룹"으로 중앙위로 부터의 축출이 결의됨</p> <p>* 58. 5. 28 식품배급제도가 폐기됨. 단일물가 제도가 도입되고 임금, 봉급, 연금이 확정됨.</p> <p>* 58. 6. 16 SED 제5차 전당대회에서 Ulbricht는 무신론적인 "사회주의적 윤리와 도덕의 10대원칙"을 공포하고 농업의 사회주의적 변경(집단화)을 예고함('60.4.14에 "농지몰수"는 100% 수행으로 완결됨)과 동시에 '61년 말까지 동독은 중요 소비재의 일인당 소비가 서독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언함.</p> <p>* 58. 9. 4 동독은 <u>평화협정체결</u> 을 준비하기 위한 4대국 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u>평화 회담</u> 을 수행하기 위한 동·서독 위원회 구성을 제안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9. 1. 10          소련은 서독과 독일에 반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국가(53개국)에게 통첩을 통해 평화회담의 진행 및 독일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함. 평화협정 체결후 동·서독은 서Berlin이 "비무장 자유시"가 되도록 서로 양해하여야 함. 서방 3개국은 이와같은 소련의 요구가 동독내 공산주의체제를 하나의 독일 국가로서 인정받아 유지하려는 의도로 간주하여 거절함.</p> <p>° 59. 3. 4  <u>Chruschtschow</u> 는 동독체재중('59.3.4-12) 연설을 통해 동독과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위협함. 그는 <u>동독을 포기하는 통독은 배제함.</u></p> <p>° 59. 3. 19          Chruschtschow는 기자회견석상에서 서방 3대국의 Berlin에 대한 권한을 인정함. 그러나 평화협정에 관한 그의 제안을 고수함.</p>	<p>° 59. 1.          Berlin문제와 Deutschland 문제 해결을 위한 "<u>Globke-Plan</u>" 의 제1안 :          (Dr. Hans Globke는 연방수상실 국무차관 이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년이내에 동·서독의 다수결에 의한 자유선거로 독일통일이 실현되어야 함. 통일된 독일은 주권국가로서 NATO나 WP의 동맹가입을 스스로 결정함. 동맹에 가입된 지역은 무장해제됨. 독일은 무력사용 포기의 의무가 있으며, 앞으로 군축협정과 안보협정에 참여함.</li> <li>2. 국민투표가 실시될때 까지의 과도기간에 걸쳐 동·서독의 동맹가입 관계는 유지됨. 전독에 걸친 인권과 완전 거주이전의 자유확보. 1년 이내에 서독하원과 동독인민의회 구성을 위한 자유선거 실시</li> <li>3. 과도기간중 전체Berlin은 자유시로서 4대전승국과 UN 감시하에 둬.</li> <li>4. 국민투표 과정과 독일통일 과정은 UN의 참여하에 실시됨.</li> </ol>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59. 4. 29 - 30 Paris에서 서방 3대국 및 서독 외무장관 회담. 독일통일의 단계적 실현과 연계된 군사적제안과 정치적제안이 결합됨. Berlin 문제를 독일통일과 결합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동유럽제국의 견해(4.27-28 Warschau 회담)때문에 합의가 이룩될 수 없었음.</p> <p>° 59. 5. 11 - 8. 15 Genf 외무장관회담(6.21-7.12간 중단). 동·서독은 자문 자격으로 참가. 서방측은 Berlin 지위가 독일통일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전체독일과의 평화 협정이 오로지 자유선거 이후에야 체결 될 수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함. Berlin 관련, 서방3대국은 Berlin의 자유와 독일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한 잠정규정을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함. Gromyko는 Berlin에 관한 소련의 제안을 반복하면서 동·서독의 국가연합을 주장함. Berlin 문제는 독일문제로부터 분리됨.</p>	<p>° 59. 1. 5 서독정부는 통첩을 통해 소련에게 동독의 승인을 비롯하여 동·서독의 국가연합과 같은 소련의 제안을 거부함.</p> <p>° 59. 3. 18 SPD 지도부는 중유럽내 비무장, 비핵지대 구축을 주장함.</p> <p>° 59. 8. 31 제2차 세계대전 발발 20주년 행사에서 Adenauer 수상은 기념사를 통해 폴란드 국민과 선린관계하에 살기를 원하는 독일민족의 소망을 표현함.</p> <p>° 59. 9. 8 Berlin 시장 Willy Brandt가 Berlin 정책에 관한 4대 원칙을 거론함 : 서Berlin은 자유 Deutschland의 일부임. 베를린 시민들의 자결권, Berlin에 대한 4대국의 책임, Berlin 출입의 자유권.</p>	<p>° 59. 6. 3 인민의회가 "농업생산조합"(LPG)에 관한 법률을 결의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회담중에 제시된 서방3대국의 평화계획 (미국 외무장관 Christian A. Herter의 이름을 따 "Herter-Plan")에는 4단계에 걸친 평화보장 방안이 내포되어 있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감시하의 전 Berlin 자유선거, 군축회담 개시</li> <li>2. 혼합구성된 전독위원회가 동·서독간 교류협력 및 전독에 걸친 거주이전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 선거법 작성. 독일은 ABC 무기 포기. 4대국의 점령 군사력의 최소화, 감축대책의 합의.</li> <li>3. 전독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 헌법을 작성 이를 근거로 전독정부가 성립되도록 함. 독일군 및 외국군의 제한적인 주둔지역이 조성됨.</li> <li>4. 평화 협정 체결</li> </ol> <p>' 59. 12. 15 - 27 Chruschtschow가 미국 방문. 합의에 의한 독일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Berlin에 관한 회담이 재개될 것이 결정됨.</p>	<p>' 59. 10. 13 Adenauer 수상은 Rapacki-plan ('57.10.3)을 거부하고 전반적으로 통제된 군축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의제로 할 것을 주장함.</p> <p>' 59. 11. 13 - 15 <u>SPD 비정기 전당대회에서 "Godesberg 프로그램"을 결의함으로써 대중정당으로 탈바꿈.</u> 자유, 정의, 연대의식이 민주적 사회주의의 기본적 가치 기준으로서 공식화 됨.</p>	<p>' 59. 10. 1 제2차 5개년 계획이 중단됨 : 인민의회는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7개년 계획에 관한 법률을 결의함. ('59-'65) 동독국기에 관한 법률(흑색, 적색, 황금색 독일기에 망치와 낫을 이삭의 관으로 둘러 씌움)</p> <p>' 59. 12. 2 학교제도의 사회주의적 발전에 관한 법률로 '64년까지 10학년제도의 종합 기술 학교가 도입되도록 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60. 4. 2 Chruschtschow는 프랑스를 방문하는 도중 평화 협정에 관한 합의가 이룩되지 못할 경우 동독과 단독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위협을 반복함.</p> <p>° 60. 5. 16 - 17 Paris 정상회담(Eisenhauer, Chruschtschow, de Gaulle, Macmillan) : Chruschtschow는 미국에게 영공침공사건(5.1 미국 정찰기 U2가 소련 영공에서 격추됨)을 통한 도발의 책임을 질것을 촉구하면서 정상회담을 6-8개월간 연기할것을 제안함. 서방측 3대국 정부수반은 회담 속개에 전력하였으나 5.17 Chruschtschow는 더이상 회담에 참석하지 않음. 서방측은 분개하고 국제적 긴장이 고조됨. 독일에 관한 회담은 내용에 관한 토의도 하기전에 결렬됨.</p> <p>° 60. 5. 31 프랑스 대통령 Charles de Gaulle은 유럽제국의 국가연합을 제창하면서 초국가적 유럽 통합을 반대함.</p>	<p>° 60. 6. 30 Herbert Wehner가 서독하원에서 <u>SPD의 향후 외교정책노선</u>에 관한 기본강령을 연설함 : SPD는 유럽과 북대서양의 동맹체제 및 국방체제가 독일 통일의 근간을 이룬다고 천명 함.</p> <p>° 60. 9. 30 서독정부는 동·서독간 여행교통의 제한 때문에 동·서독 무역협정을 해약통고함 ('60.12.31에 재개)</p>	<p>° 60. 9. 12 Pieck 대통령의 사망(9.7)이후 국가평의회가 동독의 집단지도체제 영도적 기구로 설립됨. <u>국가평의회 의장에 Walter Ulbricht</u>가 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60. 10. 26 서방 3대국은 소련에 대한 통첩을 통해 동·서 Berlin 및 그 왕복교통을 비롯하여 서독지역과 Berlin간의 약정된 항공통로에 대한 책임은 소련에게 있음을 재삼 선언함. 이는 Berlin 통과로에 대한 감독을 동독에게 양도하려는 소련의 위협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임.</p> <p>° 60. 12. 14 OEEC가 새로운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변경됨</p> <p>° 61. 5. 8 - 10 Oslo에서 개최된 NATO 회담에서 서방 3개국과 서독의 외무장관은 독일문제의 해결은 오직 자결권의 원칙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정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61. 6. 4 Wien에서 신임 미국 대통령 John F. Kennedy와 Chruschtschow가 만남. 미·소간 견해의 접근점을 모색하지 못함. Kennedy는 Berlin에 관한 권한을 보장한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함.</p> <p>'61. 7. 25 Kennedy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연설을 통해 Berlin에 관한 미국의 권한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함.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언함 : 서방3대국의 서 Berlin 주둔, 서 Berlin 진입의 자유와 생존권 보장</p> <p>'61. 8. 3 - 5 Moskau에서 개최된 WP 제국의 공산당수 정상회담에서 Ulbricht는 서 Berlin 봉쇄를 재차(제1차 '61.3) 제안함. 이 제안은 회담에서 수락됨.</p>	<p>'61. 5. 12 독·소 문화협정 갱신에 관한 회담이 소련측이 서 Berlin을 새 협정에 포함할 것을 반대하므로 중단됨.</p> <p>'61. 6. 14 <u>서독하원</u>은 정부에게 독일통일을 달성하고 대 동유럽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u>서방측 동맹국과 동방정책을 강화할 것을</u> 만장 일치로 <u>추구</u> 함.</p> <p>'61. 8. 13 <u>서베를린을 둘러싼 국경을 장벽으로 봉쇄.</u>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서 Berlin 과 동·서독 국경간의 장벽은 사선, 군견, 지뢰('85년도에 철거) 및 자동발사 장치('70년 설치, '84년도에 철거)로 설치되어 사실상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음. '52년이래 동·서독 국경에는 사살 명령 이 있어 왔으며 점점 강화되다가 Berlin 접령지역으로 확장되었음('89.11.13.에 철거). '61-'89간 Berlin장벽과 동·서독 국경간에 약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있었음을 서독측은 집계하고 있음.</p>	<p>'61. 7. 6 동독의 평화 계획은 동·서독간의 협정 체결을 전제로 함 : 양측의 기존 사회 질서 존중, 양독간 평화 협정 체결, 서 Berlin을 자유시로 변경, 후일 재통일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양독은 군사동맹체로부터 점차적으로 탈퇴하며 중기적인 전체독일의 국가 연합 구성</p> <p>'61. 8. 12 수일간에 40,000명이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피난 함. '59년도에 약 144,000명, '60년도에 약 200,000명, '61년 6/7월에 약 50,000명.</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61. 8. 5 - 7 Paris에서 서방3대국과 서독의 외무 장관은 Berlin 주변에 감돌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대책을 결의함.</p> <p>'61.8.7 Chruschtschow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서부 국경에 대한 소련군의 강화 및 예비군 소집을 공포함.</p>	<p>'61.11.15 <u>Salzgitter</u> 에서 각주 법무상 회의의 결의에 따라 동독지역 <u>정치적 폭력 사례 기록 보존소가</u> 설립 되어 국경에 의한 사살행위, 정치범에 대한 정치적 판결 및 가혹행위 등이 기록되고 있음. 이 보존소는 80년에 들어 SPD가 집권하던 주들이 재정지원을 중단하자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됨.</p> <p>'61. 8. 23 동독 내무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u>서 Berlin 시민의 동 Berlin 체류에 체류허가가</u> 필요하게 됨.</p>	<p>'61. 8. 16 <u>동독주민 전체에게 서독행 국경이</u> 차단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62 . 2 . Berlin 왕복 공중회람이 소련의 방해로 항공교통의 지장이 초래됨.</p> <p>’ 62 . 9 . 17 소련은 Berlin에 대한 4대전승국 점령 상태가 끝났다고 선언함. 미국정부는 동 선언을 철회할 것을 주장.</p> <p>’ 62 . 10 . 14 - 28 <u>Kuba 위기</u> : 소련이 중거리 로켓을 주둔시키자 미국은 그 방위상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 Kuba 봉쇄령을 발함. 미국은 소련의 로켓철거를 요구함. 소련은 호송선의 호위하에 로켓 배치를 계속 강행함. Kennedy 대통령은 소련이 로켓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군사적 반응을 보이겠다고 위협함. 미국의 단호한 태도가 의문의 여지가 없게되자 소련은 로켓을 철거함. <u>Berlin 위기와 Kuba 위기의 이중위기의 결과 유럽의 현실은 독일의 분단 고착화로 나타남.</u> 위기의 첨예화를 완화시키려는 필요성이 점점증함.</p>	<p>’ 62 . 2 . 21 서독 정부가 기념사를 통해 소련에게 대 동유럽 관계개선 태세를 강조함 (외무장관 Gerhard Schroeder는 대 동유럽 정치적 행동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함)</p> <p>’ 62 . 6 . 6 Adenauer 수상이 소련대사 Smirnow에게 "영내 평화"(Burgfrieden)를 제의함 : 독일 통일문제를 10년간 동결. 이와 같은 10년 동안을 기존 긴장관계의 해소 및 특히 동독내 주민들의 자유의 신장에 이용토록 제안함.</p>	<p>’ 62 . 1 . 24 동 Berlin에서 유효한 일반 병역의무 도입법 가결.</p> <p>’ 62 . 3 . 28 인민의회가 관세법을 결의함으로써 독일의 단일관세 제도가 철폐됨.</p> <p>’ 62 . 8 . 22 소련군 Berlin 주둔 사령부가 해체됨. 동독 인민군의 장성이 그 임무를 위임 받음.</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62.12.18 NATO의 요구에 따라 서독정부는 대 소련 파이프라인 수출금지 조치를 단행함 (Rohren-Embargo). '66.11.10에 해제됨.</p> <p>'63.6.20 미국과 소련은 양국 정부간 직통전화 개설 ("Heisser Draht" = hot line)</p>	<p>'63.1.22 Paris에서 Konrad Adenauer와 Charles de Gaulle이 <u>독·불 협력 협정</u> 에 서명함. ("<u>Elysee-Vertrag</u>")</p> <p>'63.2.6 Adenauer 수상이 서독의 안보를 위해 NATO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핵무기 계획과 사용에 관한 비핵국가들의 발언권을 요구함. 그는 서독이 초국가적 핵 무장군에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함. '63.4.8 소련이 이에 반대 항의함.</p> <p>'63.3.7 <u>폴란드와 무역협정 체결</u>, Warschau에 독일무역 사무소 개설에 합의함.</p> <p>'63.7.15 Egon Bahr가 Tutzing 소재 신교 아카데미에서 그의 <u>신동방 정책안</u>을 개진함. 통일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수많은 단계와 노정이 따르는 한 과정이라는 것임. 대소관계 개선이 그 전제조건이라고 함. 그이래 "<u>접촉을 통한 변화</u>" 라는 공식이 이와 관련된 토론에서 주도되어 왔음.</p>	<p>'63.1.15 - 21 제6차 SED 전당대회 : '61년 소련공산당 제22차 전당대회에서 결의된 테제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공화국 전체 사회생활"을 영도하는 SED의 권한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함.</p> <p>'63.3.25 "민족전선"의 "민족적 기록문서" : "동독의 역사적 임무와 독일의 미래"가 평등과 "평화적 공존"을 원칙으로 하는 동·서독 관계를 촉구함. 동독은 미래의 통독의 표준이며, 통독은 서독내 독점 자본주의 및 대지주,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통치가 극복되어야만 이룩된다는 것임.</p> <p>'63.5.14 중앙위와 각료회가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사회적 통제기구"로서 "노동자 농민 감시단"(ABI :Arbeiter- und Bauern-Inspektion)을 결의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63. 6. 23 - 26 John F. Kennedy 대통령이 서독 및 서 Berlin 방문. Kennedy는 서독과 서 Berlin에 대한 보장을 재삼 강조하였는바, Schoeneberg 시청앞에 운집한 군중들의 열광을 받으면서 그 연설중 "나는 Berlin 사람 입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김.</p> <p>'63. 8. 5 미국, 소련, 영국간에 체결된 핵실험 금지조약 : "군비경쟁에 증지부를 찍고 핵폭탄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무기생산 및 실험의 자극"을 철폐. "일반적이고 완벽한 군축을 엄격한 감시하에" 가능하게함. 특히 핵무기 실험이 중단되도록 함. 8.8 동독가입, 8.19 서독가입.</p>	<p>'63. 9. 18 서독이 Warschau에 독일무역 대표부를 설치함.</p> <p>'63. 10. 11 Adenauer 수상이 사임함. '63.10.16 서독하원은 경제장관 Ludwig Erhard (CDU)를 그 후임으로 선출함.</p> <p>'63. 10. 17 Bukarest 에서 상호간 무역대표부 개설 에 관한 독일·루마니아간 의정서가 서명됨. '63.11.9 헝가리 와, '64.3.6. 불가리아 와 '67.8.3. 체코슬로바키아 와 동일한 협정이 체결됨.</p> <p>'63. 12. 17 동독과 서 Berlin시 간에 통과사증협정 (Passierscheinabkommen) : 서 Berlin 시민들은 기한부로 동 Berlin에 있는 친척을 방문할 수 있게 됨.</p>	<p>'63. 6. "인민경제의 계획과 지도를 위한 새로운 경제제도" 도입 : 자치행정과 소유 기업과 그 연합체의 자립을 통한 능률향상의 시도("경제적 증점제도" : System der oekonomischen Hebel")</p> <p>'63. 6. 20 동독정부가 동·서독간 관계 정상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독주민에게 호소함"이란 성명을 발표함.</p>

국 제 관 계	서 록	동 록
<p>'64. 6. 12          소련은 우호·원조 조약을 통해 동독 국경의 불가침성을 보장함.('64.9.28에 효력 발효) '64.6.26 서방3대국은 Berlin 전체에 대한 공동책임과 독일인의 자결권을 재차 강조함.          소련은 서방3대국에 대한 봉쇄를 통해 독일민족의 자결권을 거듭 거부함.</p>		<p>'64. 3. 13  <u>Robert Havemann</u> 교수가 동독정치에 대하여 비판적 발언 을 하여 동Berlin의 Humboldt 대학으로부터 교수직을 박탈당함.</p> <p>'64. 5. 4          동독 청소년법(Jugendgesetz)은 "모든 청소년 시민들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해야할 임무가 있다"고 못박음.</p> <p>'64. 9. 7          동독인민군의 건설부대(Baueinheiten)의 편성이 가능하게 됨. 동독은 신교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 비무장 병역의무 수행이 가능토록 함. 교회는 계속해서 진정한 민방위 근무를 요구함.</p> <p>'64. 9. 24          Grotewohl의 사망(9.21)후 Willi Stoph가 각료회의 의장이 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64 . 10 . 14  <u>Chruschtschow</u> 실각. 그 후임에 Leonid Breschnjew가 제1서기장으로, Aleksej Kossygin이 각료회 의장으로 취임함.</p>	<p>' 64 . 9 . 24  서 Berlin시와 동독정부간의 제2차 통과사증협정 체결. 후속 협정이 '65.11 및 '66.3에 체결됨. 동독정부는 서독과 서 Berlin의 연금수령 노령자의 방문여행을 원칙적으로 허가함.</p> <p>' 64 . 10 . 10 - 24  동경올림픽대회에 전독단일팀이 마지막으로 참가함.</p>	<p>' 64 . 11 . 25  동독정부가 서독, 서Berlin, 비사회주의 국가 출신의 입국자들에게 최소의무 환전액(Mindestumtauschquote)을 확정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65 . 1 . 19 - 20  바르샤바조약기구(WP)가 유럽집단안보 문제 및 NATO와 불가침조약 체결준비를 위한 전유럽회의를 건의함.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66.7.6 WP의 Bukarest 선언이 행해짐.</p> <p>' 65 . 4 . 30  소련 외무장관 Gromyko가 Paris에서 프랑스와 소련은 전후 독일국경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음을 선언함.</p> <p>' 65 . 5 . 12  서방 3대국은 London에서 개최된 NATO 회의에서 자결을 원칙으로 하는 독일 문제의 해결방안이 유럽의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임을 표방함.</p> <p>' 65 . 9 . 12  서독정부는 Oder-Neisse-Linie가 폴란드의 서부국경이라는 결정이 Potsdam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 폴란드 각료회의 의장 Josef Cyrankiewicz의 견해에 반대함. 프랑스 대통령 de Gaulle이 폴란드의 견해에 동조함.</p>	<p>' 65 . 4 . 7  서독하원은 Berlin에서 다섯번째로 총회를 개최함. 소련과 동독은 서독 하원의원 통과금지, 교통방해, 저공비행 훈련을 통한 방해 등으로 반응을 보임.</p> <p>' 65 . 10 . 1  교회가 동방정책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함. 독일신교연맹(EKD)이 신동방정책 및 Oder-Neisse-Linie에 대한 수정된 입장을 표방함.</p> <p>' 65 . 11 . 18  폴란드의 구교 추기경들이 서독 구교의 추기경들에게 조회하였으므로 이에 12.5에 답함. 교회차원에서 최초의 폴란드와의 화해를 위한 접촉이 이룩됨.</p>	<p>' 65 . 4 . 24 - 28  SED는 제9차 중앙위 회의에서 대규모 서독도주에 따른 손실(그간 인력육성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할 것을 요구함.</p> <p>' 65 . 12 . 15 - 18  SED 중앙위 제11차 정기총회에서 문화 정책의 재이데올로기화를 선언하고, 영화, TV, 문학의 "유해한 추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66. 3. 11 프랑스가 NATO회원국을 향한 통첩을 통해 NATO 탈퇴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p>	<p>'66. 3. 25 Erhard정부가 동유럽 제국(동독제외)을 향한 "평화통첩" : 무력포기 선언의 용의, 동유럽 이웃나라의 이해관계 고려 및 자결권의 원칙하에 독일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이 통첩은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환영 받았으나 소련('66.5.17.) 및 기타 동유럽제국으로부터 거절됨.</p> <p>'66. 10. 6 Berlin의 통과사증발행소(Passierscheinstelle)가 긴급한 가사문제 발생시 인도적인 견지에서 업무를 보도록 기한부로 재개됨.</p> <p>'66. 12. 13 대연정의 Kurt Georg Kiesinger 수상이 시정연설 : 서독은 독일통일의 목표를 고수하며 앞으로도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나 동독과의 인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의 강화에는 용의가 있음. 평화통첩의 무력포기 선언 용의가 반복 강조됨.</p>	<p>'66. 5. 26 SPD와 SED는 Karl-Marx-Stadt(7.14)와 Hannover(7.21) 두도시에 걸친 연사 교환에 합의. 이에 서독하원은 "독일재판관할권의 기한부 면제조치에 관한 법률"(Gesetz ueber befristete Freistellung von der deutschen Gerichtsbarkeit)을 통과시켜 SED 고위층에 대한 치외법권적 신분보호 조치를 보장함. '66.9.29 동독은 연사교환을 취소함.</p> <p>'66. 12. 15 Ulbricht가 중앙위 제14차 본회의에서 동.서독간의 대등관계 수립을 요구함. 그는 '66.12.31. <u>독일 국가 연합의 실현을 위한 계획을 공포</u> 하였는데 그 전제조건은 서독의 "민주적 혁명"(demokratische Umwaelzung)이었음.</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67 . 4 . 24 - 26 유럽공산당이 칼스바트회의(Karlsbader Konferenz)에서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할것을 요구함.</p> <p>' 67 . 7 . 1 EGKS, EWG, Euratom이 유럽공동체 (EG : EC )로 통합됨. EC는 4대 기구를 갖게됨.: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의회, 법원</p> <p>' 67 . 12 . 13 벨기에 외무장관 Pierre Harmel이 NATO 각료이사회 보고자로서 "<u>동맹의 미래의 임무에 관한 보고</u>" 를 제출함. 각료 이사회로부터 통과된 이보고서에는 <u>NATO 안보정책의 목표</u>로서의 <u>두가지의 대등한 요소</u>가 내포되어 있음: <u>방위와 긴장완화</u> . 또한 NATO는 지속적으로 유럽의 평화체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함.</p>	<p>' 67 . 1 . 31 <u>루마니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Hallstein-Doktrin이 사실상 폐기됨.</u></p> <p>' 67 . 4 . 14 Kiesinger 수상(CDU)이 동독에게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분단고통 완화대책을 비롯하여 협력 및 문화교류의 강화를 건의 하였으나 '67.9.18 Stoph는 서한 교환을 통해 이를 거절함.</p> <p>' 67 . 5 . 27 - 6 . 4 이란왕 Reza Pahlevi의 서독방문과 더불어 특히 Berlin에서 심한 소요가 발생함. 야당그룹은 <u>원외야당 (Ausser-parlamentarische Opposition)</u>을 구성 함.</p>	<p>' 67 . 2 . 20 인민의회가 <u>동독의 국적에 관한 법률 (Gesetz uber die Staatsbuergerschaft der DDR)</u>을 결의함.</p> <p>' 67 . 3 . 15 - 3 . 17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간에 친선 · 협력 · 상호원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p> <p>' 67 . 4 . 17 - 22 SED는 그 전당대회에서 동독의 "<u>발전된 사회주의 체제</u>" 를 선전함. 그이래 <u>Ulbricht</u> 는 사회주의란 일종의 지속적이고 자유적인 사회형태로서 (즉 공산주의로가는 짧은 과도기가 아님) 동독에서 최초로 고도로 발전된 산업국이 실현된 선례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를 계속 피력함. 이로써 <u>소련 공산당의 주도권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u></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68. 6. 24 - 25 NATO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양진영간 균형된 무력감축에 관한 공동선언 ("Reykjavik의 신호"). 외무장관들은 "유럽의 지속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WP 가맹국들과의 회담을 유도하려 함.</p>	<p>' 68. 3. 11 Kiesinger 수상이 서독하원에서 동독과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p>	<p>' 68. 4. 6 동독의 사회주의 헌법에 관한 인민 투표에서 94.49%가 찬성함. 동독의 사회주의 헌법은 "독일민족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평화와 사회주의의 미래를 위한 길을 교시하기 위하여 ..."라고 시작함. 제1조에 SED의 주도권이 못박혀 있음.</p> <p>' 68. 4. 13 동독 정부가 서독의 장관 및 공무원들의 서 Berlin 통과 여행을 거절함.</p> <p>' 68. 6. 11 서독과 서 Berlin간 여행교통 및 통과 교통에 여권 및 사증의무제도의 도입. 이로써 NATO 회원국 국민들의 여행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68. 7. 1 Washington, Moskau, London에서 미국, 소련, 영국 및 50개국 이상이 핵무기 확산금지에 관한 조약 (Atomspervertrag)에 서명함. 서독은 '69.11.28에 가입.</p> <p>'68. 8. 21 Alexander Dubcek에 의한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 시도 ("Prag의 봄")는 WP 병력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됨.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의 제한적 주권을 주장함. ("<u>Breschniew-Doktrin</u>") 공산당 제12차 전당대회 이후 당지도층은 50년대의 인민재판의 희생자들을 복권 시켜줌. 경제학자 Ota Sik의 주도하에 국가경제계획 입안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함. 당지도층의 이데올로기적 교조주의에 대한 불만과 체코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간의 민족분규는 Dubcek이 주도하고 Sik등과 연합한 개혁그룹이 형성 되게 하는 계기가 됨.</p>	<p>'68. 7. 12 서독정부는 무력포기에 관한 독·쏘간 통첩교환을 발표함. 이는 '67.10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음. 양측이 합의한 신뢰는 소련정부에 의해 깨어짐.</p> <p>'68. 9. 22 <u>독일 공산당(DKP)은 SED와 밀접한 관계하에 창당됨.</u></p>	<p>'68. 8. 20 - 21 동독 NVA 병력은 WP 5대국의 병력과 함께 "Prag의 봄"을 격퇴하기 위한 체코슬로바키아에의 군사적 점령에 참여함.</p> <p>'68. 9. 14 "스포츠·기술협회"(Gesellschaft fuer Sport und Technik)의 학술회의에서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병영훈련이 결정됨. (잠정적으로 형식상 자발적)</p> <p>'68. 10. 12 <u>동독 NOK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함.</u> 이로써 동독은 자체의 국가와 국기와 함께 국제 스포츠 경기에 참석 할 수 있게 됨.</p>

국 제 관 계	서 록	동 록
<p>'68.1.5 중앙위내 개혁파들은 Novotny를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 후임에 Dubcek를 서기장으로 선출함. '68.3.22 Novotny의 후임으로 Svoboda장군이 대통령이 됨.</p> <p>'68.4.5.중앙위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실현할 행동 프로그램을 통과시킴. 자유화와 연방화 및 "새로운 경제모델"에 의한 경제의 형성이 개혁 정책의 주요내용이었으며, Dubcek라는 이름의 희망의 상징이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에 걸쳐 확산됨. 소련과의 맹방 관계지속 약속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이와 같은 발전을 불신하면서 500,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루마니아는 불참) 시킴. Dubcek는 Husak으로 교체된 후 '89 가을까지 단순노동자로서 생활함. 소련은 점령군으로서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둔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69. 8. 6 - 7 서방 3대국 대사가 Moskau에서 소련 정부에 대해 동·서독 관계개선에 관한 회담을 비롯하여 Berlin 내부문제 및 그 진입로에 관한 회담 개시의 관심을 표명함. '69.12.16. Berlin에 관한 제안을 반복함.</p>	<p>'69. 2. 6 동독은 서독대통령 선출을 서Berlin에서 수행하려는 서독의 의도에 항의함. Brandt 수상과 Ulbricht간에 서신 교환. Ulbricht는 통과사증 발행협정의 조건 개선을 서베를린에서 서독대통령 선출의 포기와 연계시켜 제안하였으나 Brandt는 이를 거절함.</p> <p>'69. 7. 3 서독은 소련에게 무력사용포기회담의 재개를 제안함.</p> <p>'69. 9. 28 제6대 서독하원 총선에서 CDU/CSU 46.1% SPD 42.7%, FDP 5.8%를 획득함. SPD와 FDP는 사민-자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10.21 Willy Brandt(SPD)를 수상, Walter Scheel(FDP)을 부수상으로 선출함.</p> <p>'69. 10. 16 - 19 <u>우편문제와 교통문제에 관한 동·서독 회담이 개시됨.</u></p>	<p>'69. 6. 10 지금까지 서독의 EKD에 소속되어 있던 동독의 신교주립교회는 "<u>동독신교동맹</u>" (Bund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der DDR) <u>으로 독립</u>하여 SED의 소망에 부응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69 . 10 . 28</p> <p>Brandt는 시정연설을 통해 동독과 대등한 회담 개시에 용의 표명.  <u>Brandt는 "1민족 2국가"를 역설함.</u>  그러나 Kiesinger의 Deutschland정책에 부연하여 <u>서독정부에 의한 국제법적</u>  <u>인정은 고려될수 없으며, 동·서독은</u>  <u>"서로 외국이 아니다 ("nicht Ausland fuereinander")"</u> 라고 강조함.</p> <p>' 69 . 12 . 8</p> <p>서독과 소련간에 무력사용포기 및 상호 관계개선에 관한 준비회담.</p> <p>' 69 . 12 . 18</p> <p>Ulbricht가 Heinemann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냄. 그 내용에는 동·서독의 대등한 관계수립에 관한 협정초안이 포함되었음. '70.1.14 Brandt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무력사용 포기선언을 교환할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 '70.1.19 Ulbricht는 1.10 Brandt 제안 수락의 전제조건은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 승인이라고 선언함. 처음으로 Ulbricht가 독일민족 통일과 정통성 계승문제에 이의를 제기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70 . 3 . 26 서방 3대국 대사들이 "베를린에 관한 4대 전승국 협정"(Viermaechte-Abkommen ueber Berlin)에 관한 회담을 개시함.</p> <p>' 70 . 8 . 7 Scheel 서독 외무장관과 소련의 Gromyko 외무장관은 <u>무력사용포기에</u> 관한 회담을 가서명 함. 동 조약은 '70. 8.12 Moskau에서 양측 수상에 의해 서명됨. 이 회담은 '70.1부터 Moskau에서 시작 되었음.</p> <p>' 70 . 8 . 9 - 11 서독정부는 서방3대국에게 <u>Moskau 조약 (Moskauer Vertrag)</u> 에 관하여 보고함. 서방3대국은 그답변 봉첩을 통해 독일 전체에 대한 4대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은 불변상태임을 확인함.</p>	<p>' 70 . 1 . 22 Willy Brandt 수상은 동독 각료회의 의장인 Willi Stoph에게 <u>무력사용 포기선언의 교환에 관한 장관급 회담을 제안</u> 함. 이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Stoph는 동Berlin에서의 회동 대신 '70.3.19 Erfurt 및 '70.5.21 Kassel 에서 <u>정상회담</u> 개최 요구. Brandt의 요구사항은 동·서독 관계의 특수한 법적성격("서로 외국이 아님 = Nicht Ausland fuereinander") 유지, 4대 전승국의 책임존중, 이산가족 합류대책 및 모든 차원에 걸친 관계강화 등 이었음. 동독은 "특수한 관계"(Beziehungen Besonderer Art)를 거부함. Kassel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남.</p> <p>' 70 . 4 . 29 <u>동·서독간 최초의 우편 합의</u></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70. 8. 11 - 13  <u>Brandt 수상 소련 방문 : 독·소 관계 정상화에 관한 조약에 서명.</u>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무력사용금지.</u> 협정당사국간의 분쟁은 UN헌장의 목표와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함.</li> <li>- 협정당사국은 "유럽내 제국간의 오늘의 국경과 내일의 국경은 불가침의 임을 인식함. 이에는 Oder-Neisse-Linie와 동·서독간 국경도 포함됨.</li> <li>- 이전에 체결된 양국간 및 다국간 협약과 합의는 불변임.</li> <li>- <u>서독정부는 "독일통일에 관한 서한" (Brief zur deutschen Einheit)를 전달.</u> 그 내용은 이 협약이 유럽의 평화에 기여하고 독일민족이 자유스런 자결권 행사를 통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는 것임.</li> </ul>	<p>'70. 11. 27  <u>Egon Bahr</u> 와 동독 국가평의회 국무차관 <u>실무적 의견교환 개시</u></p>	<p>'70. 9. 16  민방위에 관한 법률(Gesetz ueber die Zivilverteidigung) : 군사적으로 조직된('78년이래 국방부 소속) 구조대, 수리대, 위생대에서도 병역을 필할 수 있게됨.</p> <p><u>Michael Kohl</u>간에 관계 정상화를 위한</p> <p>'70. 12. 9 - 11  SED 제14차 중앙위 회의 :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공급의 난점 및 계획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지방분권화 되어야 함을 결의</p>

국 제 관 계	서 록	종 류
<p>' 70 . 12 . 7  Warschau에서 독·파 조약 이 서명됨.  ("Warschauer Vertra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er-Neisse-Linie가 폴란드의 "서부 국경"을 형성</li> <li>- "현재와 미래를 위한 <u>기존 국경의 불가침성</u>" 의 강조</li> <li>- 협정당사국은 "서로 영토권을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양국은 앞으로도 그와같은 것을 거론하지 않음."</li> <li>- 상호 무력 사용 포기</li> <li>- 관계 개선을 위한 광범한 계획 마련</li> <li>- 이전에 체결된 양국간 및 다국간 협약과 합의는 불변</li> <li>- 폴란드는 독일인의 출국 용이에 대한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보임.</li> </ul>		

규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71 . 1 . 23 폴란드에서 최초의 이주민이 도착함.</p> <p>' 71 . 1 . 31 19년만에 동·서 Berlin간의 전화교통이 재개됨.</p>	<p>' 71 . 5 . 3 SED 중앙위가 <u>Erich Honecker</u>를 중앙위 서기장으로 선출함. Ulbricht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명예직인 "SED 총재"가 됨. 6.24 Honecker는 국가 방위 자문회 의장이 됨. <u>Ulbricht의 실각</u> 과 함께 SED는 <u>조선 공산당의 대서방 노선에 편승</u> <u>조선의 주도적 역할을 무조건 인정함.</u></p> <p>' 71 . 6 . 15 - 19 SED 제8차 전당대회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개선된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목표를 설정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71. 9. 3</p> <p>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대사들이 서Berlin에서 "<u>베를린에 관한 4강 협정 (Viermaechte-Abkommen ueber Berlin)</u>에 서명함.</p> <p>1. 4대 전승국의 권한이 인정됨. 2. 소련은 민간인의 Berlin 교통을 보장하고, 그 용이화에 동의함. 3. 서Berlin의 서독에의 결속력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것이나 서Berlin은 서독의 일부는 아님. 4. 서Berlin 시민의 동Berlin 및 동독 방문의 용이화 5. 서독정부는 Berlin을 국제합의에 포함시킬 수 있음.(3항과 5항은 해석상 심대한 편차를 보임)</p>	<p>'71. 9. 30</p> <p>Berlin을 포함하여 동·서독간 우편교류 및 전화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서명됨.</p> <p>'71. 12. 17</p> <p>Bahr와 M.Kohl이 안전하고 계속적인 서Berlin 여행교통을 규정하기 위한 동·서독간 통과협정(Transit-Abkommen)에 서명함. 동·서 베를린 간에 지역교환이 이루어짐. '72.5.26에 동·서독간 통행협정(Verkehrsvertrag)이 서명됨.</p>	<p>'71. 10. 14</p> <p>Kurt Hager가 "발전된 사회주의적 사회" 및 "높은 경제수준과 풍요스런 성숙 또는 발전된 사회주의"에 관한 이론을 작성.</p>

국 제 관 계	서 독 독	동 독
<p>' 72 . 5 . 14 Breschnjew가 Tiflis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NATO 회원국의 제안을 수용, 군축 회담 개시를 제안함.</p> <p>' 72 . 5 . 26 "전략무기 제한에 관한 회담"의 결과로서 SALT I 협정이 서명됨. 미국과 소련은 5개년동안 대륙간 탄도탄의 지상발사대 및 전략 핵탄두의 해양발사대의 상한선에 합의함. 협정 당사국은 10개년 동안에 걸쳐 핵무기 요격 시스템(Anti-Nuklear-System : ABM)의 설치를 포기함. SALT II 협정에 관한 후속회담이 '70.11.21에 개시됨.</p>	<p>' 72 . 5 . 17 서독하원에서 동방조약(Ostvrtraege)에 관한 최종의결 이전에 <u>독일(통일)정책과 외교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이 결정됨</u> : 대소련 및 대폴란드 조약내에 무력사용 포기를 강조, 기존국경의 일방적 변경 불가능, 자결권 존중, Deutschland - Vertrag의 계속 유효, 독일전체 및 Berlin에 관한 4대 전승국의 책임성은 불변임. 동방조약은 유럽의 테두리 내에서 독일 통일의 평화적 추구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님. 대서양 동맹에 관한 확신, 유럽 통일정책의 계속, 서독과 서Berlin의 계속 유지, 대동독 관계 정상화 추구.</p>	<p>' 72 . 1 . 1 - 1 . 13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간에 여권과 사증이 없는 여행 교통.</p> <p>' 72 . 1 . 24 <u>동독이 UNESCO 회원국이 됨.</u></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72.10.19 - 20 EC 9개국의 최초 정상회담.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기존 회원국 6개국에 '73.1.1 발효된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의 3개 회원국 포함)은 통합을 가속화하고 '80년까지 유럽연합을 구성키로 함.</p> <p>'72.11.22 Helsinki에서 전유럽국가(알바니아제외) 및 미국과 캐나다가 "유럽안보협력회의"(KSZE:CSCE)를 위한 사전회담을 개시함.</p>	<p>'72.12.21 Bahr와 M.Kohl이 동Berlin에서 "동·서독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Grundlagenvertrag)에 서명함. 이때 서독정부는 "독일 통일을 위한 서한"(Brief zur deutschen Einheit)을 전달함. 독일문제는 미해결 상태로서,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 승인은 거부되고 국적문제는 규정되지 않음. "정상적인 선린관계"(Normale, gutnachbarliche Beziehungen)가 발전되도록 함과 동시에 현실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함.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양국중 어느 나라도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대표할수 없음. 양국은 상주대표를 교환함.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양국과 관계되는 양국간 및 다국간 협정은 불변임.</p>	<p>'72.10.16 동독의 신국적법으로 인하여 동독 탈출자들과 그자손들은 "동독국적"을 상실하게 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73 . 5 . 7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에 선린관계 발전을 위한 회담 개시</p> <p>' 73 . 5 . 19 서독과 소련 간에 경제·기술·산업 협력에 관한 협정 및 문화협정이 서명됨</p> <p>' 73 . 9 . 18 서독과 동독이 134번째 및 133번째 UN 회원국이 됨. 4대 전승국은 독일전체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계속 유지함.</p> <p>' 73 . 10 . 30 Wien 에서 NATO회원국 및 WP가맹국간에 유럽내 상호 병력 감축에 관한 MBFR 회담 개시</p> <p>' 73 . 12 . 11 Prag 협정 : '38년도 Muenchen 협정의" 무효화" 선언. 서독과 체코슬로바키아는 그 협정을 통해 국경의 불가침성을 강조함. 양국은 학술, 경제, 문화, 환경보호, 스포츠, 교통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Prag 주재 무역대표부가 대사관으로 승격됨.</p>	<p>' 73 . 1 . 31 Bonn에서 처음으로 기본조약에 합의된 국경위원회(Grenzkommission)가 개최 되어 동·서독간의 정확한 국경선을 확정하도록 함.</p> <p>' 73 . 3 . 5 - 7 서독 제1TV(ARD)와 제2TV(ZDF) 및 각종 신문사의 특파원들이 동독에서 취재활동이 허가됨.</p> <p>' 73 . 5 . 30 - 31 서독하원 사민당 원내총무 Herbert Wehner와 자민당 원내총무 Wolfgang Mischnick 이 동Berlin에서 Honecker와 회동함.</p> <p>' 73 . 7 . 31 Bayern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기본협정에 대한 판결을 통해 동 조약이 기본법(Grundgesetz)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적 유권해석을 내림. 독일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계속 불변함을 천명.</p>	<p>' 73 . 2 . 9 영국과 프랑스가 동독과 외교관계 수립</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73.12.21 Budapest 및 Sofia주제 서독 무역 대표부가 대사관이 됨.</p>	<p>'74.3.14 "상주대표부"(Staendige Vertretung)설치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 이에 따라 '74.5.2 동Berlin과 Bonn에서 상주대표부의 활동이 개시 됨.</p> <p>'74.5.8 동독과 체육협정 (Sportabkommen)이 서명됨.</p> <p>'74.5.16 Willy Brandt가 '74.5.6 참모진중 한명이 동독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실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선언하자 Helmut Schmidt(SPD)가 수상으로 선출됨.</p> <p>'74.6.25 동·서독간에 체결된 보건협정(Gesundheitsabkommen)으로 동·서독 여행자들에 대한 무료치료가 규정됨</p>	<p>'74.1.1 동독의 차량들은 국제교통상 국적표시인 "D"대신 "DDR"을 부착함.</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74.12.10 - 11 Paris에서 EC 회원국의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들이 앞으로 "유럽평의회" (Europaeischer Rat : EPC)를 통해 협력할것과 유럽공동체의회는 각주민들에 의해 직선될 것을 결의함.</p>	<p>'74.9.5 쏘련과 서기2000년까지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협정 체결</p> <p>'74.10.26/74.12.11 동독은 '73.11에 인상시킨 서독 방문자에 대한 강제외환전(Zwangsumtausch)액을 경감 내지 삭제함. 동·서독 무역의 무이자 차관에 관해 새롭게 체결된 합의에 따라 "Swing"은 8억 5,000만 VE(=DM)로 증액됨.</p>	<p>'74.9.4 미국과 동독이 외교관계 수립</p> <p>'74.10.7 '68년도 헌법의 개정 : 동독은 소련과 "영원한 변경될 수 없는" 동맹임을 선언하고 독일과 독일민족에 관한 관련 사항은 삭제됨. 기관의 명칭조차 "Deutschland"라는 이름을 대체적으로 기피함.</p> <p>'74.11.17 교육의 국가 독점에 반대하는 구교 주교들의 교서.</p>

국 제 관 계	서 록	동 록
<p>'75.3.4 서독과 동독은 새로운 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Genf 군축회담에 참가.</p> <p>'75.5.14 소련은 4대 전승국의 Berlin 전체에 대한 공동감시권으로부터 동Berlin에 대해서도 권한이 있음을 지적한 '75.4.23자 UN 사무총장 Waldheim에게 보낸 서방 3대국의 통첩을 "동독의 수도"인 동Berlin에 대해서는 2차대전으로 인하여 "근원적"으로 확정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반박함.</p> <p>'75.7.1 서방3대국은 Berlin시의 점령 지구 전체에 걸친 권한 및 책임감을 강조함.</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75. 7. 30 - 8. 1 Helsinki에서 CSCE정상회담 : 2년간의 회담결과 8.1.유럽(알바니아 제외) 및 북미의 35개국 수상 및 정부수반이 <u>최종선언</u> (Helsinki Schlussakte) 에 서명함. 최종선언은 모든 서명국들이 인정하는 정치적·도덕적 행동에 관한 법전으로서 유럽안보에 관한 문제(제 I 군), 경제·과학·환경분야 협력에 관한 문제(제 II 군), 인도주의 및 기타 문제(제 III 군)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성 선언임. 인권의 보장에 관한 공동선언이 특히 강조됨. 긴장완화 과정의 결과를 검토하고 계속 추진할 후속회담 개최가 합의됨. 최초의 후속회담이 '77.10.4 및 '78.9.3에 Belgrad에서 개최됨.</p>	<p>'75. 7. 7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동방조약에 <u>관해 판결</u> : 제조약은 평화협정의 성격을 띠지 않으며, 독일의 영토적 지위에 대해 규율하는것도 아님.</p> <p>'75. 12. 19 동독과 Berlin - Marienborn간 <u>고속도로의 개선에 관하여 합의</u> 하고 서독이 동독에게 지불하는 통과 교통 일괄 지불금(Transitpauschale)을 새로 확정함.</p>	<p>'75. 10. 7 동독과 소련은 우호조약을 새로 체결함. 이 조약은 '64.4.12자 조약을 대치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국가의 제한적주권에 관한 "Breschnjew-Doktrin"등을 확인함. ("사회주의적 국제주의")</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76. 1. 7 벨기에의 Leo Tindemans 총리가 유럽 연합 설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p>	<p>'76. 3. 30 Bonn에서 동·서독 우편·전화 협정 (Post- und Fernmeldeabkommen) 서명.</p> <p>'76. 6. 8 - 12 공산주의 "폴란드연합노동당" 중앙위 서기장 Edward Gierek이 서독방문. 문화 및 광범한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서명됨.</p> <p>'76. 7. 24 서독의 상주대표부 대표가 국경사태 이후 동·서독 국경에서의 총격사실에 반대하면서 항의함.</p>	<p>'76. 5. 18 - 22 제9차 SED 전당대회에서 <u>북독 관련 사항</u>을 <u>모두 삭제</u>해 버린 새로운 프로그램과 당헌을 결의함. Honecker가 "서기장"이란 직함을 수여 받음.</p> <p>'76. 8. 22 <u>Brusewitz 목사</u>가 Zeitz의 Markplatz에서 공산당의 교회간섭과 청소년들의 군사화 경향에 반대하며 <u>분신</u>함.</p>

규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76 . 10 . 26  Vatikan 교황청의 교령에 따라 동독 사제들의 기존 교회재판권자회의가 동독 지역을 위한 베를린회의(Berliner Bischofskonferenz)로 변함. 베를린 사제회의는 풀다 사제회의(Fuldaer Bischofskonferenz)로 부터 분리됨.</p> <p>' 76 . 10 . 29  인민의회가 Erich Honecker를 국가 평의회 의장 및 국방자문회의 의장, Willi Stoph를 각료회의 의장, Horst Sindermann을 인민의회 의장으로 선출함</p> <p>' 76 . 11 . 16  <u>Wolf Biermann이 서독에서 연주여행중 동독국적을 박탈 당하고 Reiner Kunze는 문인협회로부터 제명 되고 Robert Havemann이 가택에서 연금 됨.</u>  제8차 전당대회에서 시작된 문화정책의 자유화가 제한됨. '77에도 다수의 문인, 예술가, 야당단체 소속인원의 탈출이 있었음. <u>정권비판자들은 석방된후 서독으로 추방됨.</u></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78. 5. 4 - 7          소련의 국가수반이며 공산당수인 Leonid Breschnjew가 서독방문. 경제분야의 장기협력에 관한 협정이 서명됨.</p> <p>’78. 6. 19          서독하원 각정당의 원내총무들은 Berlin 정책에 대한 공동선언을 통해 서Berlin과 서독의 결속이 계속 보전되고 발전될 것이 민족적 과업임을 강조함.</p> <p>’78. 7. 13 - 15          동독과 동 Berlin 주재 소련대사는 미국의 Carter 대통령이 서 Berlin을 방문할때 서독의 "정치지도자들"이 동행하는 사실에 항의함. 통과교통에 방해가 일어남.</p> <p>’78. 11. 25          동독과 통행문제(Berlin - Hamburg간 고속도로의 확장, Teltow운하의 재개)와 지불교류에 관한 회담이 종결됨.</p>	<p>’78. 3. 6          Erich Honecker가 동독 신교지도자회의장인 Schoenherr 감독장과 대담. SED 지도층은 신교측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함.</p> <p>’78. 6. 25          신교 감독장들은 회담을 통해 계획중인 <u>학교에서의 군사학 학습을 비판적으로 논의함.</u></p> <p>’78. 9. 1  <u>제9학년과 제10학년에 군사학습이 도입됨.</u> 이는 교육의 군사화와 동시에 서방측 영향에 대처하는 이데올로기적 면역성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79 . 3 . 13 유럽통화 시스템(EWS : EMS)의 발효.</p> <p>’ 79 . 6 . 7 - 10 제1차 유럽의회 직선.</p> <p>’ 79 . 6 . 18 Wien에서 제2차 미.소 전략 핵무기 제한 협정이 서명됨.(SALT II)</p> <p>’ 79 . 12 . 12 <u>NATO회원국들이 "이중결정"(NATO - Doppelbeschluss)에 합의함.</u> 소련이 추진하고 있는 군비증강에 대처하려는 것임. (새로운 범주의 중거리 로켓트 SS20의 배치). 소련이 추진중인 광범한 핵시스템을 고려하여 NATO "유연반응" 전략이 신빙성을 갖도록 핵무기의 현대화(유럽내 미국의 지상발사 시스템 Pershing I 대신 Pershing II 및 크루스 미사일 배치)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 무기 체계에 대한 사전 군축회담을 제안함. 이결정은 Helmut Schmidt 수상의 이중 결정에 관한 분명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녹색주의자 및 SPD 당원의 대다수로부터 격렬하게 공격당함.</p>	<p>’ 79 . 4 . 8 서독의 독일연방 <u>청소년단체연합회(Bundesjugendring)의 사절단이 동독을 방문 함.</u> <u>FDJ와 청소년 교류확대에 관해 논쟁을 벌임.</u></p>	<p>’ 79 . 6 . 28 제3차 형법개정법과 더불어 특히 <u>정치적 형법이 확대 강화됨.</u></p> <p>’ 79 . 7 . 14 다른국가의 언론인을 통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및 Berlin에의 취재여행은 엄격하게 허가 통제됨</p>

국 제 관 계	서 록	일 록
<p>CDU/CSU와 FDP는 이 결정을 소련을 진지한 군축협상을 위한 회담으로 다시금 유도할수 있는 유일한 절호의 기회로 간주함.</p> <p>'79.12.27  <u>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u> 으로 인하여 동·서 관계에 새로운 긴장이 발생됨.  <u>SALT II 협정의 비준이 미국상원에서 좌절됨.</u> 전세계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10년간 점령함.</p>	<p>'80.7.1  Schmidt 수상은 소련 방문으로부터 돌아와 소련은 NATO가 중거리 핵로켓트에 관한 회담개시 이전에 추가 군비결정을 취소했어야 한다는 그들의 조건을 철회하였다고 설명함.</p>	<p>'80.6.13  종교개혁자 <u>Martin Luther의 탄생 500주년 기념식</u> 을 준비하기 위하여 Honecker의 주도하에 Martin-Luther-Komitee가 결성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0. 8. 31</p> <p><u>폴란드에 "연대" (Solidaritaet)</u>라는 명칭하에 새로운 <u>노조가 구성</u> 됨. Lech Walesa가 준비위원회 의장이 됨.</p>	<p>'80. 7. 3</p> <p>독일연방 내독관계성 Franke장관은 '64-'80간에 20,000명의 동독정치범이 "서독 정부의 특별한 노력"에 의해 조기에 석방되어 서독으로 올 수 있었으며, 동 기간중 30,000명의 시민들이 이산가족 재합류의 일환으로 동독을 떠날수 있었다고 발표함. Barzel 장관이 '64년부터 시작한 "<u>정치범 석방을 위한 거래(Freikauf)</u>"는 89년까지 계속 되었음(연간 2,500건)</p> <p>'80. 10. 9</p> <p>동독은 "비사회주의 국가출신"의 입국에 대한 <u>최소의무환전액을 일당 12 DM으로 부터 25 DM으로 인상</u> 함. 내독간 회담 진행중 '83/'84에 어린이에 대한 인상은 다시 취소되고 연금수령자에 대해서도 감액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0.10.13  <u>Gera에서 Honecker는 동·서독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선언함 :</u>  동독국적의 인정, 상주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Salzgitter 소재 동독 정치범 폭력사태 중앙기록소의 철폐, Elbe강 하천 중앙선을 동·서독 국경으로 확정( "<u>Gera요구</u>" : Geraer Forderungen)  서독정부는 이와같은 요구를 거절함.  "Gera 요구"는 "관계정상화"에 대한 견해차를 명확하게 함.</p> <p><u>동독측 :</u>  내독관계의 특수성제거, 양국을 서로 외국으로 간주.  따라서 서독에 대하여 독자적 행동을 취하고 자체의 주권을 강조함.</p> <p><u>서독측 :</u>  독일내 양국간의 주민들이 정상적이고 될수 있는한 장애가 없는 교류 희망,  따라서 모든 차원에 걸친 교류의 확장 및 장애 요소의 제거</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0.11.4 Ronald Reagan이 신임 미국대통령이 됨. 그의 재임기간중 이중결정이 실현되고 Berlin 장벽 철거를 주장하였으며 '85년 쏘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Michail Gorbatschow와 중대한 회동이 이룩됨.</p> <p>'81.1.1 그리스가 EC의 열번째 가맹국이 됨.</p> <p>'81.5.10 프랑스 사회당의 Francois Mitterrand 당수가 Giscard d'Estaing을 교체하고 대통령이 됨.</p> <p>'81.11.30 Genf에서 유럽내 중거리 로켓트 제한을 목표로 하는 미·쏘간 중거리핵전력 (INF) 회담이 시작됨.</p>		<p>'80.11.10 - 13 Honecker는 오스트리아 방문과 더불어 서방측과 제3세계 여러나라 방문을 시작함.</p> <p>'81.2.14 - 18 Honecker는 Berlin에서 개최된 당대의원 대회에서 "... 서독의 근로자들이 서독의 사회주의적 개혁을 시작하는 날이 오면 양독의 통일문제는 전혀 새롭게 제기될 것이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함.</p>



국 제 관 계	서 록	동 록
<p>'81.12.13 폴란드의 각료회의장 Jaruselski 장군 ('81.2.11부터 등장, '81.10.18 이래 공산당 당수)이 계엄령을 선포함. Walesa가 81.10.8 금지된 "Solidaritaet"의 지도자로서 체포되었다가 '82.11에 다시 석방됨. Jaruselski는 폴란드의 불안정을 유도한다는 근거로 개혁을 추구하는 "Solidaritaet"에 대한 다른나라의 지원을 경고하였음. '83.7.22 Jaruselski는 '83.6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의 폴란드 방문 이후 계엄령을 철회함. Walesa는 지하에서 활동을 계속함.</p>	<p>'81.12.11 - 13 Schmidt 수상이 동독 방문. 공동 커뮤니케를 통해 선린관계로서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함.</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82.10.1 서독하원에서 새로운 내각구성을 위한 불신임 결의로 Helmut Kohl(CDU)이 Helmut Schmidt(SPD)의 후임으로 취임하고 연립내각을 구성함. Hans-Dietrich Genscher는 부수상 겸 외무장관으로 유임함.</p> <p>'82.3.25 동독의 국경법(Grenzgesetz)이 효력 발효. 긴급한 가사의 경우 연금생활자가 아닌 연령의 동독주민들도 서독으로 여행할수 있게 됨.</p>	<p>'82.2.12 Honecker는 농산물 수입의 감소, 에너지 절약, 갈탄사용 증가를 촉구함.</p> <p>'82.2.14 약 5,000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Dresden의 Kreuz Kirche 교회에서 평화광장(Friedensforum)이 열림. 80년대 초부터 증가일로에 있는 지역적 평화운동은 신교 교회가 중심이 됨. 청소년담당 목사인 Rainer Eppelmann의 "베를린 호소"(Berliner Appel)는 커다란 호응을 받음.</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2. 6. 29 Reagan 대통령의 건의에 따라 Genf에서 전략적 대륙간 핵무기의 제한 및 철폐를 위한 전략무기 감축회담(START)이 개시됨.</p> <p>'82. 11. 10 쏘련공산당 서기장 Leonid Breschnjew의 사망. 후임 Juri Andropow도 84.2.9 사망. Konstantin Tschernenko 역시 '85.3.11 사망.</p>	<p>'82. 9. 20 <u>서독 청소년단체 연합회 (Deutscher Bundesjugendring) 와 동독의 FDJ가 청소년 교류를 합의함.</u></p>	<p>'82. 4. 14 신교의 감독장 Krusche(Magdeburg 교구)가 모든 신교 교회에 서한을 보내 <u>기독교적 평화운동의 독자성을 강조</u> 하고, "창검대신 쟁기"(Schwerter zu Pflugscharen : 구약성서 귀절)라는 평화의 상징을 내세우며 국가의 간섭을 비판함.</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83. 6. 19 EC회원국의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들이 Stuttgart회의를 마치면서 "유럽통합을 위한 선언"에 서명함.</p> <p>'83. 6. 28 Moskau에서 WP 정상회담 : NATO에게 불가침조약 제의.</p> <p>'83. 9. 6 약3년간에 걸친 회담('80.11.11.이후)이 끝난후 Madrid에서 CSCE후속회담이 종료됨. 그 결의문서에서 유럽내 신뢰구축 대책및 군축에 관한 회담(KVAE:CSBM)을 위한 법령과 유럽내 인적교류의 개선에 관한 CSCE의 제원칙을 강조함.</p> <p>'83. 11. 23 쏘련은 INF회담을 중단함.10월에 NATO는 참여국들의 의회가 미사일의 배치를 결의할 경우 12월부터 군비증강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하자 쏘련은 INF와 START('83.12.8)에 관한 계속적 회담은 불가능 하다고 선언함.</p>	<p>'83. 2. 1 동·서독 정부의 환경 전문가들이 최초의 회담을 실시함. '83.7.5에 회담이 계속됨.</p> <p>'83. 3. 6 서독하원의 회기만료이전의 조기선거에서 "녹색당"(Die Gruenen)이 5.6%를 획득, 처음으로 하원에 진출 함. CDU/CSU 48.8%, SPD 38.2%, FDP 6.9%</p> <p>'83. 6. 29 서독정부가 동독에게 10억 DM의 차관을 보증 하였는바, 이의 성사에는 F.J.Strauss (CSU)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83.11.CSU 출신의원 Handlos와 Voigt가 이에 항의하고 탈당함. 이들은 신당인 "공화당" (Die Republikaner)를 창당하였으며 Handlos 이후 Frauz Schoenhuber가 당수가 됨.</p> <p>'83. 11. 22 서독하원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NATO 이종결정의 수행을 결의함.</p>	<p>'83. 1. 1 동독의 구교사제들이 교서를 통해 근사학 학습의 시행을 비판함.</p> <p>'83. 10. 5 Honecker가 동·서독 국경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발사 장치의 철거를 공표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4. 1. 17 - 19 Stockholm에서 KVAE 회담이 개시됨.</p> <p>'84. 6. 15 서방3대국은 서Berlin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데 대한 소련의 항의를 묵살함.</p> <p>'84. 10. 6 동독 외무장관 Fischer는 UN에서 연설을 통해 <u>독일의 재통일은 있을수 없다</u>고 선언함. "동독인민"들은 사회주의를 "단호하게" 선택하였다는 것임.</p>	<p>'83. 12. 30 서Berlin이 베를린시 서부의 전철 (S-Bahn) 시설을 인수함.</p> <p>84. 3. 8 서독하원의 SPD 사절단이 동독의 인민 의회를 방문함.</p> <p>'84. 5. 23 Richard von Weizsaecker가 대통령으로 선출됨.</p> <p>'84. 6. 25 55명의 서독이주를 희망하는 동독주민들이 동 Berlin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를 접거하자 잠정적으로 문을 닫음.</p> <p>'84. 11. 30 동독은 동·서독간 국경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발사장치를 철거함.</p>	<p>'84. 7. 25 <u>동독은 서독정부가 보증하는 9억 5,000 DM의 Eurokredit차관을 받음.</u> 동독은 특히 국경부근 교통을 비롯한 <u>여행교통 완화</u>를 발표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5. 3. 11  <u>Michail Gorbatschow가</u> <u>쏘련 공산당</u>  <u>서기장이됨.</u> 그의 이름은 "<u>개방</u>"  (Glasnost)과 "<u>개혁</u>" (Perestrojka)이라는  두개념과 함께 전세계에 알려짐.  사회주의체제의 개혁 및 경제발전을 위한  막대한 군비지출의 삭감이 초기년도  개혁정책의 주된 항목으로 나타남.  그는 미국과 긴장완화의 길을 모색함.</p> <p>'85. 3. 12  쏘련은 군축회담의 책상으로 다시  돌아옴. 미국과 쏘련은 Genf에서 전략  핵무기, 중거리 핵시스템, 우주병기에  관한 군비 감시 회담을 개시함.</p>	<p>'84. 12. 30  <u>동독으로부터 '84년도에 34,900명(전년도 7,700명)의 출국허가가 내려짐.</u></p> <p>'85. 1. 25  Prag주재 서독대사관에 피신중인 동독출신 마지막 6명이 서독으로의 이주허가를  받기 위해 무죄로 출국허가가 보장된다는 조건으로 동독으로 귀환함.</p> <p>'85. 7. 5  동독에 대한 Swing의 계속제공 및 그증액에 관해 동·서독이 합의함(8억5,000만VE)</p> <p>'85. 9. 18 - 20  <u>Willy Brandt가 Honecker의 초청을 받고 동독을 방문함.</u></p> <p>'85. 11. 3  동·서독간 국경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부설 지역의 철거가 끝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6. 1. 15 Gorbatschow는 서기 2000년까지 핵무기 완전제거를 가장 중요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설정함.</p>	<p>'86. 2. 19 - 22 동독인민의회 의장 Horst Sindermann이 서독하원의 SPD 원내교섭단체의 초청을 받고 서독을 방문함.</p> <p>'86. 5. 6 <u>동·서독간 문화협정 (Kulturabkommen)</u> 체결 : 예술, 교육, 학술분야의 협력, 이회담은 -장기간의 중단을 포함- 12년간이나 걸렸음.</p> <p>'86. 10. 6 Saarlouis(서독)와 Eisenhuettenstadt (동독)가 <u>동·서독간 최초의 자매 결연을 맺음.</u></p>	<p>'86. 6. 26 동독의 에너지정책, 경제정책, 정보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며 인민의회에 대해 독자적 평화운동 및 환경운동 단체들이 호소문 결의.</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7. 1. 1 CSCE의 Stockholm 문서가 그 효력을 발효함.</p> <p>'87. 6. 12 Ronald Reagan대통령이 서Berlin을 방문 Gorbatschow에게 Berlin 장벽을 철거 할 것을 촉구 함.</p>		<p>'87. 4. 8 정치국원 Kurt Hager가 "Stern"지와 인터뷰에서 Gorbatschow의 개혁정책에 대해 거리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함 : "여담입니다만 이웃집이 새로 도배를 한다고 당신도 새로 도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p> <p>'87. 6. 7 동Berlin의 Brandenburg문 부근에서 서Berlin의 제국의사당 앞에서 열린 록콘서트를 청취하려는 청소년들과 인민경찰간에 심한 충돌이 벌어짐. 그 이틀후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u>Unter den Linden</u> 거리에서 장벽철거를 열창하면서 Gorbatschow 구호를 외침.</p> <p>'87. 7. 17 사형제도가 철폐됨.</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87. 7. 1 '85년 Luxemburg에서 통과된 "유럽통합 결의문"(Einheitliche Europaeische Akte) 이 발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평의회는 만장일치의 원칙을 제한함.</li> <li>- '92.12.31까지 유럽단일시장이 단계적으로 조성 되도록 함.</li> <li>- 유럽의회가 권한이 확장 됨.</li> <li>- "유럽정치협력체"(EPZ)가 유럽 공동 외교정책을 개발하고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면서 기관화 하도록 함.</li> </ul> <p>'87. 12. 8 Washington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Reagan과 Gorbatschow는 INF 협정 체결을 통해 유럽내 지상발사 중거리 핵무기의 철거에 합의함.</p>	<p>'87. 6. 10 Bonn에서 동.서독 대표들이 <u>환경보호분야의 협력에 관한 원칙협정</u> (Rahmenabkommen ue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이 서명됨.</p> <p>'87. 7. 6 - 11 Richard von Weizsaecker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함.</p> <p>'87. 8. 26 서독정부는 동독출신 방문자에 대한 <u>환영금</u> (Begrueesungsgeld)을 종래의 연2회에 걸친 때 30 DM으로부터 연1회에 걸쳐 <u>100 DM의 1회 지불로 인상</u> 시킴.</p> <p>'87. 8. 27 SPD와 SED가 동.서독간의 상이한 사회체제간의 <u>평화적 경쟁에 관한 기본원칙</u> <u>제시함.</u> (SPD-SED Grundsatzpapier)</p> <p>'87. 9. 7-11 <u>Honecker가 서독을 방문함.</u> Bonn에서 동·서독간의 환경보호에 관한 협정 등 수많은 협정이 서명됨. 이어서 그는 Nordrhein-Westfalen주, Rheinland-Pfalz주, Saarland주, Bayern주를 방문함.</p>	<p>'87. 11. 25 국가보위부(Staatssicherheitsdienst)가 동Berlin의 시온주의파교구의 여러방을 수색함. "환경도서관"의 자료가 압류됨. <u>교회의 평화운동단체와 환경보호단체의 회원들이 제포됨.</u></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88. 3. 31 서Berlin과 동독이 제3차 <u>지역조정 및 교환</u> (Gebietsaustausch)을 실시함. 96.7 ha의 비거주면적이 서Berlin으로 양도되고 이에 대해 동독은 7,600만 DM의 지불금을 받음.</p>	<p>'88. 1. 15 Karl Liebknecht와 Rosa Luxemburg 피살 ('19.1.15)기념시위에서 <u>평화운동단체, 환경보호단체, 인권보호단체</u>의 150여 회원들이 자체의 요구사항을 주장하자 체포된후 54명(그중 일부는 강압에 의해)이 서독으로 이주함.</p> <p>'88. 3. 14 동독의 신교는 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이 즐겁이 살기를 원하고 국적취소 신청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는 사회 건설에" 그 임무가 있다는 관점을 표방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8. 6. 25 EC와 COMECON이 공식관계수립에 합의함 COMECON은 지금까지 EC에 대한 거부 태도를 포기함.</p> <p>'88. 6. 27 - 28 Hannover에서 개최된 EC정상회담에서 '93.1.1부터 EC단일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공표됨.</p>	<p>'88. 10. 24 - 27 Kohl 수상이 소련을 방문함. 서독과 소련은 양국간의 관계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에 합의함. Berlin은 모든 협정에 포함됨.</p>	<p>'88. 8. 15 동독과 EC가 외교관계를 수립함.</p> <p>'88. 11. 17 - 18 루마니아의 국가수반 겸 공산당수인 Ceaucescu의 동독방문을 맞아 Honecker는 "우수하다고 입증된 SED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선언함</p>

국제관계	서 록	동 록
<p>'89. 1. 7 - 11 Paris에서 1925년도에 체결된 화학무기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Genfer Protokoll ueber chemische Waffen)의 협정당사국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됨. 소련 외무장관 Schewardnadse는 소련은 내년중에 재고 화학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함. 미국 외무장관 Schultz는 국제협력 체결을 촉구함.</p> <p>'89. 1 15 Wien의 CSCE최종결의문서('86.11.4시작)에서 NATO와 WP의 재래식 병력감축에 관한 회담이 합의됨. 서명국들은 인권 존중의 분명한 규정을 약속하고 제민족의 자결권을 강조함.</p> <p>'89. 1. 30 WP 회원국들은 처음으로 재래식 병력 규모 및 군비규모에 관한 "안전한 수치"를 제시함.</p>		<p>'89. 1. 15 Leipzig에서 수백명의 시위대가 Rosa Luxemburg 및 Karl Liebknecht 피살 70주년을 맞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촉구함. 80명이 체포됨. 3.12.에 약600여명의 이주 희망자가 또다시 시위함.</p>

국 제 관 계	서 록	동 록
<p>'89. 3. 6 - 8 '89.2.2 Wien의 MBFR회담이 아무런 결론없이 끝나버리자 <u>유럽재래식병력 (VKSE) 및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NATO와 WP의 23개 가맹국의 회담</u> 이 시작됨.</p> <p>'89. 5. 11 미국 외무장관 Baker가 소련을 방문함. 군축회담 계속에 합의함.</p> <p>'89. 5. 15 - 18 Gorbatschow가 중국을 방문함. 이미 중국에서 대학생시위는 절정에 달했으며 북경과 다른 도시의 주민 대다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합세함. 소련에서 개혁의 귀감이 되고 있는 Gorbatschow가 시위대와 조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 지도층은 계획된 방문계획을 변경함. 군병력 일부가 동족에 대한 사격을 거부하자 정부는 Deng Xiaoping의 권유에 따라 다른부대와 교체한후 6.4 밤 "천안문 광장"에서 무력으로 봉기를 제압함. 중국 전역에 걸쳐 체포선봉이 일고 다수가 사형됨. 이와함께 중·소간 관계 정상화의 계획은 전망이 흐려짐.</p>	<p>'89. 3. 6 서Berlin에서 Walter Momper시장의 주도하에 SPD와 Alternative Liste가 연립내각을 구성함.</p>	<p>'89. 5. 7 동독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민족전선 (Nationale Front : SED, CDU, LDPD, NDPD, 민중농민당)이 98.77%를 획득함.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정치국원 Egon Krenz는 "강력한 사회주의와 안정된 평화를 원하는 인민의 명확한 결단" 이라고 표현함. <u>교회와 야당은</u> '89.5.8 선거법 위반사실을 규탄함 :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u>선거조작이 있었다</u>".</p> <p>'89. 6. 7 SED의 정치국원이자 중앙위 서기장인 Egon Krenz가 SED중앙위 사절단과 함께 Saarbruecken에서 "사르뤼켄 대담" (Saarbruecker Gespraech)에 참석, Oskar Lafontaine 주지사와 대담.</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9. 5. 25 Gorbatschow 가 새로운 인민 대의원 대회의 입헌회의에서 <u>대통령</u> 으로 선출됨</p> <p>'89. 5. 26 쏘련 인민대의원대회에서 민족소비에트 와 연방소비에트를 대표하는 2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u>최고 소비에트</u>를 새로 <u>선출</u> 함.</p> <p>'89. 6. 15 - 18 EC 회원국 주민들이 세번째로 유럽 의회를 직접 선거함.</p> <p>'89. 7. 29 최고 소비에트내에 "좌경급진주의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됨. <u>쏘련의 건국 이래 최초의 당내 야당</u> 그룹 임.</p>	<p>'89. 6. 12 - 15 대통령이자 쏘련 공산당 서기장인 Michail Gorbatschow가 서독 방문.</p> <p>'89. 7. 17 <u>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에 연해 설치되었던 철책이 철거되자 동독시민들은 오스트리아로 피난한 후 서독으로 옮.</u></p> <p>'89. 7. 23 동독시민들의 피난물결은 점점더 커짐. 헝가리 경찰이 피난민을 귀환시키자 동독에서 공화국도주죄(Republikflucht)로 유죄 판결됨.</p> <p>'89. 8. 3 동Berlin 주재 서독의 상주대표부를 <u>이주희망자 80명이 점거함.</u> 희망자의 수가 늘어나자 8.8 <u>상주대표부는 당분간 민원처리를 할수 없어 폐쇄함.</u> 연방수상실 장관 Rudolf Seiters는 출국여행을 희망하는 동독주민들에게 서독으로 가기 위하여 외교기관 이용을 택하지 말것을 이성적으로 호소하면서 금년 7월말까지 46,343명이 합법적으로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올 수 있었다고 언급함.</p> <p>'89. 8. 10 5월이래 <u>1,600명이 동독으로부터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거쳐 피난함.</u> 헝가리는 도주 시도가 실패한 경우라도 여권상의 기록을 더이상 하지 않음. 8.13 Budapest 주재 서독대사관은 171명의 동독시민들이 피신처로 몰려들어 폐쇄하지 않을수 없게됨. 이에 대해 동독이 항의함.</p>	<p>'89. 6. 8 인민의회는 "천안문사태"를 "질서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문제"로 간주</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89 . 8 . 19 - 20</p> <p>동독으로부터의 대규모 난민이 증가함. 오스트리아의 범유럽연맹(PanEuropa-Union)과 헝가리의 야당단체들은 Sopron근교에서 "범유럽 피크닉"(Paneuropaisches Picknick)을 거행, 이를 600명 이상 동독주민들이 피신처로 이용함.</p> <p>’ 89 . 8 . 22</p> <p>Prag 주재 서독대사관은 동독피난민을 더이상 수용할수 없게되어 폐쇄하지 않을 수 없게 됨. 8.15 168명의 동독시민들이 무죄로 이주허가가 보장된다는 조건으로 Prag 주재 서독대사관으로부터 동독으로 귀환함. 그러나 피난민의 대다수는 계속해서 대사관에 잔류함.</p> <p>’ 89 . 8 . 25</p> <p>전날에 108명의 동독시민들이 Budapest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부터 서독으로 출국 여행할수 있었음. 헝가리는 대규모 피난을 막기 위하여 국경수비대를 강화함. 헝가리 외무장관 Horn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해결 방안을 약속함.</p>	<p>’ 89 . 8 . 14</p> <p>Honecker가 피난민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며, 사회주의적 사회체제의 좌절에 관한 서독 미디어의 승리의 아우성에 대해 경고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9. 9. 7 장기간에 걸친 폴란드공산당과 논쟁끝에 Tadeusz Mazowiecki 총리는 연립정부를 구성함. 노동자 지도자 Lech Walesa가 Bonn에도착, 대폴란드 경제원조를 요청함</p> <p>'89. 9. 12 폴란드 의회가 Mazowiecki 총리의 조각 완료를 인정하였는바, 시민 위원회 Solidarnosc(OKP)가 11명, 폴란드 연합 노동당(PVAP), 연합농민당(ZSL), 민주당(SD)의 4명의 장관으로 구성됨.</p>	<p>'89. 8. 28 제2차 세계대전 발발 50주년('39.9.1)에 즈음하여 Weizsaecker 대통령은 폴란드 민족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 폴란드에 대한 서독의 영토권 일체 포기를 강조함 '89.9.1 서독의회 토론회에서 여당의 원내교섭단체 대다수가 '70의 바르샤바 조약이 "문구와 정신 그대로" 지켜질 것을 확인하였으나 SPD 원내 교섭단체가 제안한 더 이상의 동의안에는 반대함.</p> <p>'89. 9. 3 헝가리에서 출국여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수가 5,000명으로 집계됨. <u>매일 500명</u> 이 추가됨. Budapest 주재 동독대사관 관계자들은 피난민의 동독 귀환을 증용했으나 실패함.</p> <p>'89. 9. 10 <u>헝가리 정부는 동독시민의 출국여행을 허용함.</u> '69 헝가리와 동독간에 체결된 규정이 이와같은 출국허용 조치에 위배됨으로 헝가리 정부는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는바 동독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함.</p>	



국 제 관 계	서 록	동 록
<p>' 89. 9. 20          쏘련공산당 중앙위가 개편됨. 개혁파의 지위는 Breschnjew 시대의 노장들이 물러나고 KGB 부장 Krjutschkow 및 지금까지 기획국장이었던 Masljukow의 신 기용으로 강화됨.</p> <p>' 89. 9. 22          Wien의 재래식 병력감축에 관한 회담에서 NATO는 기습공격이 불가능하도록 탱크와 항공기의 감축을 제안함.</p> <p>' 89. 9. 24  <u>외부장관 Genscher</u> 가 New York의 UN 총회를 기해 Budapest, Prag, Warschau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하고 있는 <u>동독 피난민의 현황에</u> 관하여 쏘련,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폴란드, 헝가리 <u>외부장관들과</u> <u>요담</u> 함.</p>		<p>' 89. 9. 13          야당그룹인 "<u>신광장</u>"(Neues Forum)이 <u>결성됨</u>. 신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발전과정"에 참여하고 "동독 전체제에 걸친 정치적 공통의 광장"이 된다고 함.</p> <p>' 89. 9. 16          SED는 SPD대표단의 동독방문을 대결과 직접적 간섭을 겨냥한다는 이유로 거부함. "<u>즉시 민주주의</u>" (Demokratie jetzt)라는 명칭의 <u>새로운 야당그룹이</u> <u>결성됨</u>.  <u>동독 신교동맹</u> 의 종교회의의 개회에 즈음하여 Leich 감독장은 <u>국가 지도층에게</u>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u>호소함</u>.</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9. 9. 23 외무장관 Baker와 Schewardnadse가 Jackson Hole/Wyoming에서 정보교환과 합의사항 검증과 관련되는 군축문제 합의에 서명하고 90년도에 Bush와 Gorbatschow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함. 그 다음날 Bush는 UN 총회에서 소련이 따른다면 화학무기의 80%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제안함. Schewardnadse는 모든 화학무기 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과 "여하한 상황하에서도"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제안함. 소련은 미국에 대해 SDI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음.</p> <p>'89 9. 27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베니아공화국 의회는 유고슬라비아 민족공동체의 연방 연합(Foederation)으로부터 탈퇴 역시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예 동의함.</p>	<p>'89. 9. 25 Prag주재 서독대사관의 경내에 몰려든 피난민의 수는 약900명으로 늘어남. Warschau주재 서독대사관의 피난민 수는 400명으로 증가됨.</p> <p>'89. 9. 27 Genscher외무장관이 UN총회에서 폴란드 서부국경에 대한 보장선언을 행함 : "50년전 폴란드 민족은 Hitler Deutschland가 근거없이 벌인 전쟁의 첫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민족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우리 독일 사람들로 부터 영토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안전한 국경속에서 살아갈 권한이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역사의 수레 바퀴는 거꾸로 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폴란드인들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의 유럽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국경의 불가침성은 유럽의 평화적 공동생활을 위한 기본원칙 입니다."</p>	<p>'89. 9. 25 Leipzig에서 전국규모의 야당이 모임. Neues Forum이 지역별, 주제별로 결성되어 있는 다수의 그룹의 최고 조직으로서 기능을 수행토록 함. 그 3일전 신광장은 동독 내무부로부터 "반국가적"(staatsfeindlich)이라고 선언됨. 문화성차관 Hoepcke와 Markus Wolf(전보안부장)가 더 많은 공개성과 여론의자유를 요구하면서 개혁에 동조함.</p> <p>'89. 9. 27 <u>Leipzig의 Nicolai교회에서 평화예배를 마친후 대규모 항의 행렬을 벌임.</u> Dresden의 당서기장 Hans Modrow가 Baden-Wuerttemberg주 SPD 전당대회에 내빈으로 초대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9.10.3          소련의 의회인 최고 소비에트가 정부가 제안한 15개월간의 일반적 스트라이크 금지를 거부하고 그대신 경제및 수송 분야에 있어서 스트라이크 금지에 동의함. 또한 정부에게 아세바이잔 내에서 아르미니아의 철도봉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부를 동원할 수 있도록 전권이 부여됨.</p>	<p>'89.9.30-10.1          동·서독간의 끈질긴 협상끝에 동독은 <u>대사관 체재 피난민들을 출국여행시킴.</u> Prag에서 5,500명, Warschau에서 약800명이 동독 국영철도(Reichsbahn)의 특별 열차편으로 서독으로 출국여행할수 있었음. 9월말까지 약25,000명의 동독출신 이주자들이 헝가리를 거쳐 서독으로 옴.</p> <p>'89.10.3          Prag에 또다시 6,000명의 피난민이 운집함. 동독은 폴란드행 여행을 어렵게 만듦.</p> <p>'89.10.4  <u>동독정부가 다시금 피난민의 출국여행을 허용함.</u> 약 7,600명이 특별 열차편으로 동독을 통과하여 서독으로 옴. 민주주의적 개혁을 외치는 지금까지 최대규모의 시위가 Leipzig에서 일어났으나 강력한 경찰출동으로 해산됨.</p> <p>'89.10.6  <u>동독 건국 40주년에 즈음하여 동독은 서독시민의 동Berlin 입국을 거절함</u> Honecker는 동독의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das hohe internationale Ansehen)을 찬양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9.10.7  <u>Gorbatschow가 건국기념식에 참석하고자 동독 방문.</u> "늦게 오는자는 역사의 벌을 받는다"라고 동독의 개혁을 촉구하고 "<u>동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Moskau에서 결정될 일이 아니라 Berlin에서 결정될 일임</u>"을 강조함.  Honecker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고수하려고 함.  수개의 도시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혁을 외치는 시위가 일어남. 동독의 안보 세력이 시위대를 해산, 일부 잔혹하게 진압함.</p> <p>'89.10.9  <u>Leipzig</u>에서 평화예배를 마친후 50,000명이 개혁과 평화적 대화를 주장하며 시위함. 그이래 월요일마다 Leipzig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u>월요일대모</u>"가 벌어지고 다른곳에서도 시위가 이따름. Dresden 시장 Berghofer (SED)가 시위대와 대화하고자 나섬. <u>사회민주당(SDP)</u>이 "환경보호 지향적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서 <u>참당</u> 됨.</p>

국 제 관 계	서 록	동 록
<p>' 89. 10. 16 Sofia에서 35개 CSCE회원국의 제1차 환경보호회의가 시작됨. 주제 : 산업 공해 재앙의 예방 및 척결,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금지, 국경을 초월하는 하천의 오염 방지</p> <p>' 89. 10. 18 수년동안 유배되었던 정권비판자이자 노벨물리학 수상자인 Sacharow가 민족 대의원 대회의 회원으로서 <u>쏘련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u></p> <p>' 89. 10. 27 WP가 동·서 진영간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찬의를 표명함. WP는 독일의 재통일을 경고하면서 국경의 "무조건 존중"을 요구함.</p>	<p>' 89. 10. 15 가을 방학이 끝난후 피난물결이 폭증해 버림. <u>처음으로 "Neues Deutschland"지와 동독 텔레비전의 "Aktuelle Kamera"에 비판의 소리가 일기 시작함.</u></p>	<p>' 89. 10. 11 동독 지도층의 비상회의시 Honecker로 하여금 상황보고를 제시하도록 함. Magdeburg와 Halle에서 경찰이 강력하게 시위대를 저지함.</p> <p>' 89. 10. 12 정치국원 Hager가 쏘련 방문. 쏘련정부 대변인 Gerassimow는 "우리는 서로 옥신각신하는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는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라고 언급</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89.10.18  시위대의 압력이 커지고 미디어가  <u>돌발적으로 개혁토론의 관심을 불러</u>  <u>일으키자 Honecker가 사임함.</u>  그와 함께 J.Herrmann과 G.Mittag 역시  정치국과 중앙위로부터 면직됨. SED  중앙위의 신임 <u>서기장에 Egon Krenz가</u>  되었으며, 그는 텔레비전을 통해 "SED의  정치적변화"(eine Wende in der Politik  der SED)를 공표함. 이와같은 선택에  대하여 Gorbatschow는 "시대의 요구에  적절한 기민한 대응"이라고 환영함.</p> <p>’89.10.24  Egon Krenz는 Honecker대신 국가평의회  의장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함.  동Berlin에서 반Krenz 데모 행렬이  벌어짐.</p> <p>’89.11.3  Egon Krenz는 TV를 통해 근본적 개혁 및  정치국의 교체를 공표함.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도록 함. Krenz는 주민들에게  국내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하고 SED는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을 원한다고 천명</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89.11.5 Krjutschkow KGB 의장은 소련의 10월 혁명 기념일을 맞아 소련 지도층은 외교정책의 "탈이데올로기"와 함께 세계 경제의 편입을 목표하고 있음을 선언. "폐쇄사회"는 더이상 존립할 수 없으며, 냉전시대의 전유물인 "세계정치의 양극화" 현상은 붕괴되고 있다고 함.</p>	<p>'89.11.3 <u>동독의 새로운 여행규정</u>에 따라 동독시민들은 체코슬로바키아 및 헝가리를 거쳐 복잡한 행정수속을 거치지 않고 동·서독 국경을 우회할 수 있게됨. 주말을 이용하여 15,000명의 피난민이 Bayern으로 오고 Prag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부터 특별열차를 이용하여 5,000명이 직접 서독으로 올 수 있었음. <u>'89.11.9까지 모두 40,000여명이 이 경로를 이용하여 서독으로 옴.</u></p>	<p>'89.11.4 <u>동독역사상 최대의 대중시위</u>, 50만명 이상이 동Berlin에서 특히 자유선거, 언론자유, SED 독점철폐 등 개혁을 외치며, 평화적으로 시위함. Stoph 내각의 퇴진 및 야당단체의 허용을 요구함. <u>시위대의 최종선언이 TV로 중계됨.</u> 경찰과 Stasi는 개입하지 않음</p> <p>'89.11.5 "민족전선"의 제휴정당내에서 새로운 움직임. 동독 CDU 당수 G.Goetting 및 NDPD 당수 H.Homann이 사임. Manfred Gerlach(LDPD)는 SED의 연속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민의회 소집, 내각사퇴 등을 요구함.(Gerlach은 '46 Leipzig의 공산주의 국립청소년협회의 창립 멤버였으며 '49-'59간 Honecker가 의장으로 있던 FDJ 중앙위원회 회원이었음)</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9.11.7 Moskau에서 처음으로 혁명기념식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짐. 시위대는 공산당의 권력독점에 반대하면서 다당제도를 요구함.</p> <p>'89.11.9 중국의 덩소평이 중앙군사위 의장직으로부터 물러남으로써 공식 직위에서 모두 사임함. 후임에 공산당수 강택만이 됨.</p> <p>'89.11.10 불가리아의 국가원수 및 공산당수인 Todor Schiwkow가 35년간의 재임후 물러남. 후임에 외무장관이었던 Petar Mladenow가 됨.</p>	<p>'89.11.8 서독하원은 찬성 400표, 반대 4표, 기권 33표로 폴란드의 서부국경에 대한 보장선언을 결의함.</p> <p>'89.11.9 Kohl 수상 폴란드 방문, 그는 폴란드의 민주화 및 경제의 재건을 지원할것을 약속하고 Warschau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권에 대한 양보선언을 강조함.</p> <p>'89.11.9 동독은 서독과 서Berlin에 대한 모든 국경을 개방함.</p>	<p>'89.11.7 Willi Stoph가 이끄는 각료회가 총사퇴. 이에 대해 Neues Forum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강력한 의사 표명. 시간당 200명의 동독시민들이 서독으로 이주 여행함.</p> <p>'89.11.8 정치국의 새로운 선거. Krenz는 자유선거의 가능성을 시사</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data-bbox="820 738 1106 769">* 89. 11. 13</p> <p data-bbox="820 785 2021 906">동독의 국경개방 이후 3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독 및 서Berlin으로와 소풍을 즐김. 서독으로 처음 여행온 동독인에게 100DM의 환영금이 지불됨. 대다수의 도시들은 경미하나마 추가적인 환영금을 지불함.</p> <p data-bbox="820 921 1942 953"><u>동·서독간의 차단지역은 철폐되고 사격 명령은 드디어 그 효력을 잃게 됨.</u></p>	<p data-bbox="1468 247 1749 279">* 89. 11. 10</p> <p data-bbox="1468 294 2021 415">동독국경 수비대원들이 동·서독간의 새로운 국경통과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Berlin 장벽을 철거하기 시작함.</p> <p data-bbox="1468 431 2021 503">Berlin의 대추제, 방문객이 줄을 잇고 <u>대규모 피난 행렬</u> 이 계속됨.</p> <p data-bbox="1468 561 1749 592">* 89. 11. 12</p> <p data-bbox="1468 608 1986 680">SED가 12월 중순에 비정기 전당대회 소집을 결의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89. 11. 12 Gorbatschow가 Bush 대통령에게 서한을 통해 동독의 국경 개방을 지원할것을 확인함. 이에 Bush는 소련의 Perestrojka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함.</p> <p>' 89. 11. 16 Bush와 Gorbatschow는 지중해의 Malta 섬에서 갖일 <u>정상회담</u>에 앞서 "유럽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유럽방안은 결의될 수 없다"고 선언함. Gorbatschow는 "Jalta로부터 Malta"는 있을수 없다고 표현함. 중국의 지도층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위해되지 않는한 독일통일을 지지한다고 발표함.</p> <p>' 89. 11. 17 불가리의 Mladenow총리는 자유선거를 발표함. 이날밤 10,000명이 의사당 앞에서 시위하고 그 다음날에는 50,000명이 허가를 받고 시위하면서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반대함.</p>	<p>' 89. 11. 14 Kohl 수상과 Mazowiecki 총리가 Kohl 수상의 폴란드 방문 완료에 즈음하여 70년 서독·폴란드간에 체결된 Warschau 조약이 양국간 관계의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는 선언에 서명함. 이에 Mazowiecki는 "나에게 더이상 국경문제는 있을수 없고, 있다면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이다"라고 부연함. 서독은 경제 원조를 약속하고 폴란드 정부는 독일계 소수집단에 대한 독자권을 보장함.</p> <p>' 89. 11. 16 서독하원은 동독내 자유선거를 촉구하면서 경제지원을 통한 개혁을 지지함.</p>	<p>' 89. 11. 13 각료회 의장이었던 Willi Stoph가 사임한후 <u>Hans Modrow</u>가 그 후임으로 선출 되고 내각의 요직은 SED가 맡음. Modrow는 "양독간의 <u>계약공동체</u>를 통한 책임공동체" 구성을 원함. 독일의 재통일은 반대함. Krenz가 다음날 취임선서함. 수 많은 도시에서 SED의 주도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남. 동독 CDU의 신임 당수 Lothar de Maiziere는 "능력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수호자이면서 고무자이고 투쟁하는 변호자"가 바로 CDU임을 강조함</p> <p>' 89. 11. 20 Modrow는 각서를 통해 EC와 광범한 협력을 요구하면서 자유, 일반, 비밀 선거를 공표함.</p> <p>' 89. 11. 22 동독최고법원은 정치적 형법의 개정 및 헌법과 판사법의 보완을 공표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독	동 독
<p>’ 89. 11. 18 EC는 헝가리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동독이 민주화를 추구하고 자유 선거를 실시하면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함.</p> <p>’ 89. 11. 29 <u>Baker외무장관은 독일 통일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u>을 선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독 사람들이 통일을 스스로 결정할것.</li> <li>- 통일독일은 NATO와 EC의 회원국 어어야 함.</li> <li>- 통일은 단계적으로 실현될것</li> <li>- 국경변경은 Helsinki합의에 따라서만 수행될 수 있음.</li> </ul>	<p>’ 89. 11. 28 <u>Kohl 수상은 서독하원에서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위한 10대 방안 (Zehn - Punkte-Programm)</u>을 제시, 그마지막 방안에 독일의 국가적 통일의 회복을 명시함. 공동성장은 유럽 통일과정에서 국제적 근축의 기초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함. "서로 공존과 상호신뢰의 분위기 속에서만 항상 독일의 분단이기도한 유럽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 (Nur miteinander und in einem Klima des wechselseitigen Vertrauens koennen wir die Teilung Europas, die immer auch die Teilung Deutschlands ist, ueberwinden.) "녹색당"을 제외하고 서독의회회 모든 정당들이 이와같은 제안에 동의함.</p> <p>’ 89. 11. 29 연방 재무장관 Theo Waigel(CSU)는 동독에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한 동독을 위한 특별지출(Sonderausgaben)을 거절함.</p>	<p>’ 89. 11. 25 <u>Krenz는 동.서독간의 국가연합 (Konfoederation)</u>을 배제하지 않으나 전제조건은 군사동맹체의 해체라고 함.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계속 잔류할 것이라고 말함.</p> <p>’ 89. 12. 1 인민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SED의 주도권 조항을 삭제함.</p>

국 제 관 계	서 록	동 록
<p>’89.12.3  <u>Bush와 Gorbatschow가 Malta에서 공동 기자회견</u> : 양국 원수는 자기 정상 회담시까지 전략핵무기 재고량의 반감에 관한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봄.  Busch는 소련에게 경제원조 용의 표명.  Gorbatschow는 독일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현실에 입각해야 한다"고 표명함. 두개 독일의 존립은 역사가 원한 사실이므로 "우리는 두개의 거대한 독일 국가의 인간들에 대한 변화가 인위적으로 가속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p> <p>’89.12.5  Genscher 외무장관 Moskau 방문.  Gorbatschow는 Kohl 수상의 독일 계획 (Deutschland-Plan)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 Schewardnadse 외무장관은 "이 계획은 명령하달과 동일하며 동독의 대서독 관계수립을 위한 지시에 가까운 서독의 요구는 수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여론은 그 결과와 관계되는 것이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결코 잊을수 없는 일이다."라고 부연함.</p>		<p>’89.12.3  SED중앙위 특별회의: <u>점치국과 중앙위가 총사퇴</u>. Krenz는 모든 당직으로부터 물러났으나 국가 평의회 의장직에 계속 유임. 당 업무는 잠정적으로 업무 위원회가 수행. <u>Honecker, Stoph, Mielke는 SED로부터 제명됨</u>. 경제정책 책임자였던 Guenther Mittag을 비롯하여 4명의 고위급이 배임혐의때문에 체포됨. 당 업무위원회의 변호사 Gregor Gysi는 "지금은 SED와 사회주의를 구출할 때이다."라고 선언함.</p> <p>’89.12.5  <u>Honecker가 연금됨</u>. 검찰총장 Wendland가 전국에 걸친 부정부패 사건의 무마 및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증하자 사임함. 수개의 도시에서 주민들이 Stasi 문서의 파기를 위한 운반을 저지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9.12.6 Gorbatschow와 Mitterand이 Kiew에서 회동. 이들은 동·서독 관계의 미래 문제에 관하여 독일의 단독행위를 경고함. Mitterand은 국경문제는 제1차적 문제가 아니라고 함. 유럽의 유럽의 어느 한 나라도 다른국가와 협력하지 않고 행동할 수 없으며 균형과 역사적 관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EC의 강화라고 역설.</p> <p>'89.12.13 Bruessel에서 NATO 추계회의의 전야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외무장관이 회동. 서방 3대국은 서Berlin 시민들이 그 시의원을 서독의회에 직접 파견할 수 있는 조건은 동독에서 일반, 자유, 비밀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함.</p> <p>'89.12.14 쏘련의 민권운동가이자 핵물리학자인 Andrej Sacharow가 사망. 그는 Gorbatschow의 권력집중에 반대하여 방대한 개혁을 주장함.</p>	<p>'89.12.6 수상실장관 Seiters가 동독 수상 Modrow를 방문. '90.1.1.부터 여행교통에 있어서 환영금을 대체할 수 있는 유리한 환전 가능성이 마련되도록 함. 이를 위해 "<u>외환기금</u>"(Devisenfonds)이 설치 되도록 함.</p>	<p>'89.12.6 Krenz가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사임함.</p> <p>'89.12.7 정부대표와 야당대표들간에 동독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u>최초의 "원탁회의"</u>(Runder Tisch)가 개최됨. '90.5.6에 인민의회의 선거 실시가 계획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9.12.17 - 18 Kohl 수상 헝가리 방문 : "헝가리가 장벽의 돌을 제일 먼저 깨뜨렸다." 라고 언급. 헝가리 정부에게 '89 가을 동독 피난민 원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경제 원조를 약속함.</p> <p>'89.12.9 Strassburg에서 EC 정상회담 의제선택에 관한 끝질긴 회담끝에 회원국 정상들은 서독정부의 Deutschlandpolitik을 수락함. Mitterrand은 "독일민족이 자결에 의해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은 Helsinki 최종선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임은 물론 "공동통합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함.</p>	<p>'89.12.13 Weizsaecker 대통령 은 동독 TV와 같은 최초의 인터뷰 를 통해 "나의 견해로는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사실이며, 그리고 공동으로 소속되어 있는것은 공동으로 성장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꼭 공동성장 되도록 해야한다. 서로 분열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않된다. 우리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함. SPD의 명예총재 Willy Brandt는 Leipzig 시의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동독의 인민군이 출동한 '89.10.9에 대하여 "바로 이날 소련군 장교들이 Leipzig시 에서 일어날수 있었던 유혈사태를 방지 하였으므로 독·쏘 친선의 특별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함.</p>	<p>'89.12.8/9 - 16/17 SED 특별전당대회 에서 Gregor Gysi가 신임 당수로 선출됨(부당수:Hans Modrow Wolfgang Berghofer). 향후 당 운영은 집단지도체제(Praesidium)에 의하도록 함. SED는 과거의 당 지도자들이 동독을 존립이 위해될 정도의 위기로 유도한점을 사과하면서 <u>Stalin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함</u>.SED는 당명을 "사회주의 독일통일당-민주사회주의당" (SED-PDS :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로 개명함. Gysi 당수에게 독일 통일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p> <p>'89.12.11 Leipzig 및 기타 도시의 "월요시위"에서 독일 통일의 주제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89. 12. 10</p> <p>Gorbatschow는 중앙위에서 소련은 WP 회원국의 국내사태 진전에 개입하지 않을것임을 선언함.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민주화와 혁신" 이라고 함. 독일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동독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것임을 단호하게 강조한다. 동독은 우리의 전략적 동맹국이며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이다. - 전쟁 종료와 함께 발생된 두개의 독일국의 존립이라는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른 형태의 정책은 유럽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언급함.</p> <p>’ 90. 12. 11</p> <p>제2차 세계대전의 4대전승국은 71년도 4대전승국 협정(Vier-Maechte-Abkommen) 이래 연합국 감시위원회(Allierter Kontrollrat)의 건물에서 회동함. 4대국 대사들은 특히 Berlin 항공교통의 확장을 논의하기로 함.</p>		<p>’ 89. 12. 17</p> <p>"민주돌진"(DA : Demokratischer Aufbruch)당이 창당되고 전당대회에서 사회복지와 환경보호를 기초로 시장 경제를 표방하며 통일된 유럽내에서 독일의 국가적 통일을 원하는 당강령이 결의됨.</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89.12.12 - 13  <u>Baker외무장관 서독 방문.</u> 그는 Berlin에서 기본원칙에 관한 연설을 통해 "유럽의 집과 새로운 시대를 위한 건축"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목표를 강조함 : "첫째,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자유와 평화속에 독일의 분단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건축은 미국의 안보가 유럽의 안보에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결속되어 있음이 반영되어야 한다." <u>NATO와 EC에 대한 서독의 맹방으로서의 신의가 독일 통일의 전제 조건임.</u> Baker는 Modrow와 전격적으로 회동,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을 약속함.</p> <p>’89.12.18  Genscher외무장관은 Bruessel에서 갖은 국제 기자회견 석상에서 미래의 군사동맹은 변경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함 : "군사동맹은 정치동맹으로 될 것이다. 동맹체가 없다면 과연 누가 군축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89.12.19 Schewardnadse가 <u>쏘련</u> 외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u>Bruessel</u>의 NATO사령부를 방문함. NATO 회원국 대사들과 갖은 대담에서 Schewardnadse는 냉전은 궁극적으로 끝났다고 선언함. 동맹체들은 "유럽대륙의 안정을 공동으로 보장하려는 근본역할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면서 EC 회원국의 결속을 "암운을 제거하는 역동력"의 쇄신과정이라 칭함. 이와같은 것이 Perestrojka와 함께 EC 12개 회원국과 <u>쏘련</u>의 "양상불을 위한" 초석을 이룩한 것임. Schewardnadse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급격한 통일의 실현을 경고함. 독일통일이 다른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임. <u>쏘련</u>은 독일이 통일될 경우 중립상태를 구상 한다고 함. <u>쏘련</u>은 오늘의 유럽안정을 위하여 2차대전에서 2,000만명의 희생을 불사했다는 것임.</p>	<p>'89.12.19 - 20 Kohl 수상이 <u>Dresden</u> 방문.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속에서 Kohl은 동 Berlin에서 Modrow 수상과 회동함 : 성탄 전야일로부터 서독인들은 사증과 강제 의무환전 없이 동독으로 여행할 수 있게됨. 모든 정치범은 석방되도록 함. '90년 초에 동·서독간에 "계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가 체결되도록 함. Kohl은 교회 및 야당단체의 대표자들과도 대담을 진행함.</p>	<p>'89.12.18 Runder Tisch의 제2차 회의 : Modrow 정부에 대한 합법성 논쟁 및 동독경제의 극심한 파탄이 논의 됨. 정부결정 일체에 대한 감독권 및 거부권이 요구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89 . 12 . 23</p> <p>Genscher 외무장관과 체코슬로바키아의 Dienstbier 외무장관은 Waidhaus - Rosshaupt에 있는 국경검문소에서 독일·체코간의 국경철책을 상징적으로 절단해 버림. Genscher는 유럽내 모든 국가의 지역적 통합, 주권 및 국경의 불가침성을 강조함. 프랑스혁명이 일어난지 200년이 지난 1989년은 "제민족이 자유, 평등, 형제애를 외치면서 다시금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게된 해"로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함. Dienstbier는 독일민족을 비롯하여 어떤 민족도 자결권이 불법으로 박탈될 수 없다고 함. Mitterrand은 동독방문을 마치면서 Berlin 상태에 관한 회담재개의 용의를 시사하고 동독에 대한 경제원조를 선언함. 동·서독의 접근 또는 통일에 대해서는 독일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고,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함. 유럽의 세력균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의 모든 이웃나라는 물론 4대전승국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함.</p>	<p>' 89 . 12 . 22</p> <p>Berlin의 Brandenburger Tor가 다시 열림. Kohl수상과 Modrow수상이 동·서Berlin 시장인 Momper와 Krack과 함께 28년간의 봉쇄끝에 보행자를 위한 국경통과소를 새로 개설함.</p> <p>' 89 . 12 . 26</p> <p>50만명에 이르는 서독민과 서Berlin 시민들이 동독과 동Berlin을 방문함. 동독에서는 약250만명이 서독 및 서Berlin을 방문함.</p> <p>' 89 . 12 . 29</p> <p>Kohl수상은 "Handelsblatt"지에 "현 정부는 독일의 독자노선 추구나 단독행동에 대해서 고려치 않고 있다. 92년 말까지 공동시장의 실현은 유럽 통합을 당설하기 위한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통일의 방법은 이론적인 모델이나 약속된 일정으로 계획할수 있는것이 아니다."라고 말함.</p>	<p>' 89 . 12 . 27</p> <p>Runder Tisch의 제 4차 회의 :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감독되어야 할 것이며, 야당단체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경시되었으며,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결정된 사실의 사후추인에 그쳤다고 불만을 토로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1. 2 체코슬로바키아의 Vaclav Havel 대통령이 Muenchen 및 동 Berlin을 방문.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동·서독 통일의 전망에 관하여 "우리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에 대한 공포를 갖일 필요가 없으며, 그 국가는 원하는 만큼 거대해도 좋다"고 말함.</p> <p>'90. 1. 9 <u>Sofia에서 COMECON 회의.</u> 무역에 있어서 자유롭게 태환이 가능한 화폐로 세계시장가격에 맞게 정산하도록 하는 과도기적 문제에 관하여 합의함. 쏘련의 Ryschkow 총리는 이에 대하여 "우리 경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라고 언급</p>	<p>'89. 12. 31 - 90. 1. 1 수십만명에 이르는 동·서 Berlin 시민들이 Brandenburger Tor 주변에서 축제를 벌임.</p>	<p>'90. 1. 3 동 Berlin에서 제5차 원탁회의 : 회원들은 다음 총선이 실시될때까지 헌법보호청 등 정보기구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합의함. 야당단체들은 '90.1.8까지 정부가 Stasi의 무장해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원탁회의를 탈퇴할 것이라고 말함.</p> <p>'90. 1. 4 동독 각료회의는 병역의무 연한을 18개월로부터 12개월로 단축할 것을 결의함.</p> <p>'90. 1. 5 <u>SED-PDS 당 의장단 회의</u>에서 Gregor Gysi 당수는 "우리는 주권국가로서의 동독을 원하며 전독 국가연합의 범위내에서 독·독 공동체 구성을 추구한다."고 선언함. 그는 10개항에 걸친 "<u>안보모델 2000</u>" (Sicherheitsmodell 2000) 을 제시함.</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90. 1. 12 SPD의 제1차 각주 대표회의. 이들 대표들은 당명을 "독일사회민주당(SPD :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으로 변경할 것을 결의. 동독 SPD는 '46년 SED와 통합되어 소멸된 SPD의 전통을 고수할 것을 표방함. 서독 SPD의 Hans-Jochen Vogel 당수가 참석한 가운데 동독 SPD는 "민족통일"(Einheit der Nation)을 표방하는 선언문을 통과시킴.</p>	<p>'90. 1. 8 Leipzig의 월요시위 참가자들은 "<u>통일조국, 독일</u>" (Deutschland einig Vaterland) 구호를 외침. 조속한 통일을 촉구하는 이 구호는 계속되는 비폭력시위 요구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음.</p> <p>'90. 1. 11 동독의 인민의회가 헌법개정에 동의함으로써 동독내에 "<u>외국 참여 기업체</u>"의 설립이 가능 토록 함. 새로운 여행법(Reisegesetz) 및 수공업 촉진 변경법안이 결의됨. 이제부터 사설 수공업체도 10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게됨.</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 90. 1. 16  동독의 정부수반으로서 <u>Modrow</u> 수상이 처음으로 서 Berlin을 방문.  신년도 첫주일동안 이주민의 수는 매일 1,800-2,000명에 달함.  따라서 서독정부는 동독의 급선무는 시장경제체제와 자유의 조속한  실현이라고 판단함.</p>	<p>' 90. 1. 14  동독의 수많은 도시에서 개혁에 찬성하고 SED의 권력남용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남. SED-PDS가 Rosa Luxemburg 및 Karl Liebknecht의 기일을 맞아 시위를 벌이자 이를 반대하는 SPD의 반대시위가 Alexanderplatz에서 열림.</p> <p>' 90. 1. 15  <u>Modrow</u> 수상이 <u>Runder Tisch</u>의 제7차 회의에 참가하여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정부업무에의 참여" 및 Kohl 수상과의 회동에 참여할 것을 권함. Stasi 해체에 관한 민간차원의 감시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Stasi 요원 85,000명중 많은사람이 면직되었다고 말함. Stasi에는 정규요원 이외에 109,000명에 달하는 "비공식 정탐요원"도 근무하고 있다고 함.</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90. 1. 17</p> <p>독일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로안정성 Klaus Toepfer 장관이 동독의 관계장관과 회동. 이들은 Smog 조기경보 시스템 건설 및 핵시설 안전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에 서명함.</p> <p>동독의 수개도시에서 기존 권력관계에 반대하는 파업이 일어남.</p>	<p>'90. 1. 20</p> <p>Leipzig에서 기독교적 보수주의 그룹과 정당이 모여 "독일사회연합"(DSU : Deutsche Soziale Union)을 창당함. 그 당수에 Leipzig의 Hans-Wilhelm Ebeling 목사가 됨.</p> <p>'90. 1. 20 - 21</p> <p><u>SED-PDS의 의장단의 대다수는 정당 해체에는 반대하나 당명중 SED라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결의함.</u></p> <p>그 이전에 수많은 당원들이 정당해체를 촉구한바 있음. 당의 심벌('46년도 SPD와 KPD가 SED로 통합된 것을 표현하는 두손의 악수) 및 당원 뺏지의 폐기. SED-PDS의 부당수이며 Dresden 시장인 Berghofer를 비롯한 인사들이 탈당함. <u>Egon Krenz를 비롯 13명의 구정치국원 및 정치국원 후보자들이 제명됨.</u></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1. 23</p> <p>동 Berlin에서 <u>내독 경제위원회 (Innerdeutsche Wirtschaftskommission) 가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함.</u> 독일연방 경제성 Helmut Haussmann 장관은 동독의 경제현황에 관한 전문위원회(Sachverstaendigenrat)의 특별진단 보고서를 수교함. 생산수단의 사유화 및 영업의 자유화를 도입할 것이 권고됨.</p>	<p>'90. 1. 25</p> <p><u>동독 각료회는 수공업체, 무역업체, 용역업체에 대한 완전한 영업의 자유를 결의함.</u> 기업체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는 "기업체의 목적"에 합당할 경우 최고 49% 내지 그 이상까지 보장됨.</p> <p>'90. 1. 27</p> <p>동 Berlin에서 "Neues Forum"은 새로운 정관 및 프로그램을 통과시킴. Neues Forum은 민권운동 단체로 잔류하면서 정당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 독일통일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들간에 논쟁이 벌어짐.</p> <p>'90. 1. 28</p> <p>Modrow 수상과 Runder Tisch의 대표들은 인민의회의 선거는 '90.3.18에, 그리고 지자단체의 선거는 '90.5.6에 실시할 것에 합의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2. 1</p> <p>Baker <u>외무장관</u>은 미상원 외교분과 위원회에서 <u>독일통일이</u> 변함없는 미국 정책의 목표임을 천명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u>4대원칙</u>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과에 관계없이 자결원칙이 관철되어야 함."</li> <li>2. 통일의 재실현은 "독일연방공화국의 NATO 잔류 및 유럽 단일시장 조성의 일환"으로서 달성되어야 함.</li> <li>3. 통일은 "유럽의 안정이라는 목표 인식하에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함.</li> <li>4. 국경문제는 Helsinki 최종선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여 해결되어야 함.</li> </ol>	<p>'90. 2. 1</p> <p>Modrow 수상은 "<u>독일통일을 위한 방안(Weg zur deutschen Einheit)</u>의 중간단계로서의 <u>국가연합 및 독일의 중립성</u>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함. Kohl 수상은 Modrow의 독일통일에 대한 견해표명을 환영하면서 "<u>독일의 중립화 방안</u>"에 대해서는 <u>반대의사를 명확히 함</u>.</p> <p>동독의 신 여행법이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동독주민들의 자유스런 출입국이 보장됨.</p>	<p>'90. 1. 29</p> <p>Erich Honecker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체포되었으나 형집행 불능으로 인하여 석방됨. 그는 부인 Margot와 함께 신교목사에 의해 거처가 주선됨.</p> <p>'90. 2. 4</p> <p>동 Berlin에서 동독 자유민주당(FDP : Freie demokratische Partei)의 창당 대회가 거행됨. Bruno Menzel이 당수가 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2. 7  <u>쑤련 공산당</u> 중앙위 위원들은 차기  전당대회를 위하여 <u>헌법에 명기된</u>  <u>공산당의 주도권</u>을 현재의 형태로부터  <u>삭제</u> 할 것을 결의함.</p>	<p>'90. 2. 5  동독정부는 각 정당과 정치단체로부터 13명의 무임소장관이 선출되어 범민족적인  책임정부(Regierung der nationalen Verantwortung)가 될 것을 결의함.  Kohl 수상의 참석하에 동독의 CDU, DSU, DA가 인민의회선거에 대비 공동선거  추진기구인 "독일동맹"(Allianz fuer Deutschland)을 창립함.</p> <p>'90. 2. 5 - 8  폴란드 외상 Krzystof Skubiszwski가  서독을 방문. 그는 Kohl 수상과  회담에서 독일은 유럽의 한지붕  아래에서 통일될 것과 유럽 안보체제에  걸속될 것에 동의함. 독일의 중립화  아이디어나 독일의 독자노선 추구는  역사적으로 시대에 뒤진것일 뿐더러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p> <p>'90. 2. 7  독일연방 내각의 결의에 따라 Kohl 수상의 주재하에 "<u>독일통일</u>" 내각위원회  (Kabinettausschuss "Deutsche Einheit") 가 구성됨.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와  함께 통화통합(Waehrungsunion) 및 경제통합(Wirtschaftsunion)에 관한 회담개최  용의가 있음을 선언함. Neues Forum, Demokratie Jetzt, Initiative fuer  Frieden und Menschenrechte와 같은 시민운동 단체가 인민의회 선거에 대비하여  '90 동맹(Buendnis '90)으로 합류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2. 10 Kohl 수상과 Genscher 외무장관이 Gorbatschow를 방문하기 위하여 Moskau 도착. Kohl은 Gorbatschow와 소련이 독일인들의 한 국가에서 살고자 원하는 결정을 존중하였으며, 통일의 시점과 방법은 독일인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라고 명료하게 확인하였다고 선언함. 독일문제의 해결방안은 전 유럽 및 동·서 관계의 전체과정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비롯하여 유럽과 전세계의 우방국과 파트너들의 정당한 관심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함. 동독의 소련에 대한 장기적 물자공급 협정을 배려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련측은 희망함.</p>	<p>'90. 2. 12 - 13 Kohl 수상과 Modrow 수상은 Bonn에서 회동 : Modrow는 Runder Tisch의 결의를 기초로 명확한 사용목적 없이 100억 내지 150억 DM의 "연대지원금"(Solidarbeitrag) 을 요구함.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서독정부는 야당측의 강력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거절함.</p>	<p>'90. 2. 8 Modrow는 선언을 통해 동독은 유대 민족에 대한 나치의 만행에 대하여 전독일 민족의 책임임을 처음으로 시인함. 동독 각료회는 실업보조금 제도 및 조기 정년퇴직 규정을 결의함.</p> <p>'90. 2. 10 LDPD 전당대회. 정당의 쇄신이 선언됨. Rainer Ortleb가 신임 당수가 됨. 당명을 LDP로 변경함.</p> <p>'90. 2. 11 동독 3대 중도민주정당인 LDP, FDP, DFP가 선거동맹인 "자유민주동맹(Bund freier Demokraten)을 구성할 것을 합의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2. 14</p> <p>Ottawa 에서 개최된 "개방된 하늘" (Offener Himmel : Open Sky) 회담에서 동·서독 및 4대전승국 외무장관들이 회동함. 이들은 2+4로 구성되는 회담 개최에 합의함. 이때 독일통일의 국제적 측면 및 인접국가들의 안보 문제가 논의되도록 함. 또한 헌법, 경제통합과 통화통합 및 사회통합은 독일인의 내적 사안임이 합의됨. 외무장관들은 90년도에 CSCE 정상 회담이 개최될 것에 합의함. 서독정부의 의도에 따라 이 회담에서 2+4 합의가 추진될 것이 양해됨. 통일독일의 NATO 잔류문제가 쟁점으로 남음.</p>	<p>'90. 2. 15</p> <p>Kohl 수상이 Gorbatschow와 Modrow와 회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독 인민의회 선거후의 목표는 "<u>가능한 한 조속한 통일</u>"임. (Einheit sobald wie moeglich)</li> <li>- 독일인들은 이웃나라와 유럽 제민족의 관심을 존중할 것임. "앞으로 독일땅에서는 평화가 보장될 것임."</li> <li>- 통화통합에의 제안은 동독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반응이었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그 방법은 달랐을 것임.</li> <li>- 통화통합은 시장경제적 개혁이 도입될때에만 의의가 있음.</li> <li>- 개혁정책은 환경보호와 사회복지적 보장책이 마련되도록 함.</li> </ul> <p>'90. 2. 109</p> <p>Brandenburger Tor 부근의 장벽철거가 시작됨.</p>	<p>'90. 2. 18</p> <p>Leipzig에서 DSU의 제1차 전당대회. Ebeling 당수는 즉각적인 독일통일 및 서독의 헌정질서와 법치제도의 즉각 도입을 촉구함.</p> <p>'90. 2. 20</p> <p>동독 인민의회가 새로운 선거법을 결의함. 앞으로 민방위 근무로 병역 의무 수행을 대체할 수 있음.</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2.24 - 25 Kohl 수상 Washington 도착. Bush 대통령은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독일통일을 환영한다. 서방동맹국과 소련은 통독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통일독일은 NATO의 정회원국으로 잔류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주둔군은 유럽의 "안정 보장체"로서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함.</p>	<p>’90. 3. 1 "독일연맹"(CDU, DA, DSU)의 의장단은 Kohl 수상과 대담후 "기본법(Grundgesetz)을 원칙으로 하는 독일통일"을 표명함. 재통일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성취되어야 한다고 결의.</p>	<p>’90. 2.24 동독의 교회동맹(Kirchenbund)의 종교 회의에서 Sachsen의 신교 감독장인 Christoph Demke가 동독의 신교지도자회 (Konferenz der Evangelischen Kirchenleitungen)의 의장으로 선출됨.</p> <p>’90. 2.25 Leipzig에서 동독 SDP의 제1차 전당대회. Ibrahim Boehme가 당수가 되고 Willy Brandt는 명예총재가 됨. 기본강령에 민주적, 사회복지적, 환경 보호적 시장경제가 촉구됨.</p> <p>’90. 3. 5 Runder Tisch 는 동·서독간 회담에 상정하도록(Sozialchart)을 통과시킴. : - 사회복지수준의 확보 및 확장 - 남녀 평등 -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권 - 직장생활의 민주화 - 주택 신청권 - 건강보호, 노인간호, 장애자의 보호</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3. 15 Gorbatschow가 <u>소련 대통령으로</u> <u>선출됨.</u></p>	<p>'90. 3. 8 폴란드 서부국경에 관한 서독하원의 선언.</p> <p>'90. 3. 9 동·서독간의 공동문화위원회(Gemeinsame Kulturkommission)가 그 업무를 개시함.</p> <p>'90. 3. 12 동독 각료회의 대표단이 Salzgitter에 있는 "동·서독 국경지역에서 발생된 폭력 행위의 기록 및 조사를 위한 각주 법무성 위임기관인 중앙기록보존소"(통칭 : Zentrale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를 방문함. 중앙기록보존소는 89년 말까지 동독에서 발생된 40,288건의 폭력행위를 기록함.</p> <p>'90. 3. 15 Weizsaecker 대통령이 독일군 체코 침공 51주년을 맞아 Prag 방문. Weizsaecker 대통령과 Havel 대통령은 양국의 화해를 호소함.</p>	<p>'90. 3. 8 동독 각료회는 Stasi의 비공식요원 109,000명을 면직할 것을 결의함.</p> <p>'90. 3. 12 <u>Runder Tisch</u> 가 그 최종회의를 통해 <u>헌법초안을 결의 함.</u></p>

국제관계	서 록	동 록																
<p>'90. 3. 15 Gorbatschow가 소련 대통령으로 선출됨.</p> <p>'90. 3. 18 Prag에서 WP 회원국 외무장관 회동. - 이들은 통일에 대한 독일민족의 권리를 인정함. - 독일통일은 독일민족의 결정사항임. - 독일통일은 유럽통합 과정에 연계되어야 함. - 소련은 독일의 중립화를 고수하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독일의 NATO 잔류를 가능 내지 소망사항으로 봄.</p> <p>'90. 3. 19 - 4. 11 Bonn에서 제1차 CSCE 경제회담이 개최됨. 참가국들은 최종 결의문서에서 민주적 다당제도와 법치국가의 원칙을 고수할 의무를 명백히 함. 이들은 또한 자유스럽고 경쟁력이 있는 시장경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도입할 것에 진력할 것을 결의함.</p>		<p>'90. 3. 18 동독 인민의회 선거 : 투표율 93.2%</p> <p>정당별 득표율 :</p> <table data-bbox="1455 608 1995 995"> <tr> <td>C D U</td> <td>40.9%</td> </tr> <tr> <td>D S U</td> <td>6.3%</td> </tr> <tr> <td>D A</td> <td>0.9%</td> </tr> <tr> <td>Allianz fuer Deutschland</td> <td>48.1%</td> </tr> <tr> <td>S P D</td> <td>21.8%</td> </tr> <tr> <td>P D S</td> <td>16.3%</td> </tr> <tr> <td>Bund Freier Demokraten</td> <td>5.3%</td> </tr> <tr> <td>기 타</td> <td>3.4%</td> </tr> </table> <p>'90. 3. 25 Neubrandenburg 부근의 소련 점령군 수용소에서 희생된 수천명의 대규모 공동묘혈이 발굴됨. Oranienburg와 Bautzen에서도 대규모 공동묘혈이 발견됨.</p>	C D U	40.9%	D S U	6.3%	D A	0.9%	Allianz fuer Deutschland	48.1%	S P D	21.8%	P D S	16.3%	Bund Freier Demokraten	5.3%	기 타	3.4%
C D U	40.9%																	
D S U	6.3%																	
D A	0.9%																	
Allianz fuer Deutschland	48.1%																	
S P D	21.8%																	
P D S	16.3%																	
Bund Freier Demokraten	5.3%																	
기 타	3.4%																	

국 제 관 계	서 관 독	동 독
<p>’ 90 . 4 . 6</p> <p>Schewardnadse 외무장관이 Baker 외무 장관과 회담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 소련은 독일의 중립화 주장을 유보하면서 NATO 회원국 잔류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함. Genscher 외무장관은 미국과 캐나다 및 EC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북대서양 파트너십" 결속에 대하여 호소함.</p> <p>’ 90 . 4 . 11</p> <p>NATO 기관지 "NOTO's Sixteen Nation"에 기고를 통해 Schewardnadse 외무장관은 <u>통일통일은 과도기간중 NATO 및 WP의 동시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u> 이와 함께 현 동·서 동맹체를 기초로한 전유럽 안보체제의 구성원이 되도록 함.</p>	<p>’ 90 . 4 . 18</p> <p>독일연방 내무성 Wolfgang Schaeuble 장관과 동독 내무성장관 Michael Diestel이 회담을 개시함. 동독 국경상의 검문은 철폐되고 정보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첩보행위를 중단하도록 함.</p>	<p>’ 90 . 4 . 5</p> <p>처음으로 자유총선에 의해 선출된 동독 인민의회가 구성됨. Dr. Sabine Bergmann-Pohl(CDU) 여사가 인민회의의 의장 겸 국가평의회 해체와 함께 직무 대리 국가원수가 됨. CDU의 당수인 Lothar de Maiziere가 내각을 구성토록 위임됨. 동독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을 가도록 의무화시킨 헌법 전문은 만장일치로 삭제됨.</p> <p>’ 90 . 4 . 12</p> <p>Lothar de Maiziere가 수상으로 선출됨. 내각은 CDU,DSU, DA, SPD 및 중도민주주의 정당에 의한 대연정으로 구성됨.</p> <p>’ 90 . 4 . 19</p> <p>de Maiziere 수상의 시점연설 :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u>독일통일 실현</u>, 통일의 방법과 관련 동독은 중요한 발언권이 있음. 그는 동독내 임금과 연금의 1:1 교환율을 비롯하여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을 요구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4. 20 Bush 대통령과 Mitterrand 대통령이 Florida에서 회동. Berlin과 독일에 대한 4대국의 특권을 전부 취소되도록 함. 국경문제도 영원히 해결되도록 함. 통일독일은 NATO의 정회원국이어야 하며 유럽내 미군의 주둔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함.</p> <p>'90. 4. 29 <u>Dublin에서 EC 특별 정상회담.</u> 회담의 확정사항 : "우리는 통일독일이 유럽공동체 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을 확신한다."</p>	<p>'90. 4. 24 <u>Kohl 수상과 de Maiziere 수상이 회동.</u> '90.7.1부터 <u>경제통합 (Wirtschaftsunion), 통화통합 (Waehrungsunion), 사회통합 (Sozialunion)을 실시하기로 합의</u> 함.</p> <p>'90. 4. 27 독일연방의회의 독일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정부와 SPD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세금인상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함. Seiders 수상실 장관은 서독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함. 중요재원은 경제성장이라는 것임.</p> <p>'90. 5. 1 Berlin에서 처음으로 양독간 5월 노동절 군중집회가 열림. 독일노총(DGB)의 Breit 총재는 사회복지적 급부능력의 약화를 경고하면서 조속한 동·서독의 노조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p>	<p>'90. 4. 29 de Maiziere 수상이 Gorbatschow를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독일의 NATO 가입은 서방동맹체의 원칙적인 변화가 있을때에만 고려될 수 있다고 말함. 중립화 또는 비동맹은 거절함. 동독은 소련과의 경제협약을 준수하고 경제관계를 확대하기로 함.</p>



국제관계	서독	동독																				
<p>’90. 5. 4 미국정부는 유럽주둔 단거리 핵무기의 현대화를 포기할 것을 선언함.</p> <p>’90. 5. 5 제1차 2+4 회담(Bonn), 4대전승국과 동·서독 외무장관은 가을까지 계속될 회담의 일정에 합의하였는바, 폴란드 역시 부분적으로 참가하도록 함. 독일인들이 통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과 함께 독일의 동부국경이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확정될 것에 전원이 합의함. 앞으로 전독(통일독일)의 동맹체 소속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함. Schewardnadse는 이 회담을 "복잡한 의견조성의 일부" 라고 표현. 그는 독일통일의 외교적 문제에 관한 궁극적 해결방안은 연기할 것과 함께 우선 -4강권한(Vier-Maechte-Rechte)의 유지하에- 잠정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함.</p>	<p>’90. 5. 2 동·서독 정부는 오랜 회담끝에 <u>통화통합에 관하여 합의함.</u> 임금, 봉급, 장학금, 주택임대료, 임차료, 연금은 1:1로 교환됨. 현금 및 저축금에 대한 1:1 교환은 연령별로 등급화되며, 초과액수의 DM 대 동독마르크의 교환율은 1:2가 적용됨.</p> <p>’90. 5. 2 - 6 Weizsaecker 대통령은 Warschau에서 동구 이웃나라의 유럽에의 진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독일인들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함.</p>	<p>’90. 5. 6 <u>동독 지방자치단체 선거 :</u></p> <table border="0"> <tr> <td>투표율 :</td> <td>75 %</td> </tr> <tr> <td>정당별 득표율 :</td> <td></td> </tr> <tr> <td>C D U</td> <td>34.4 %</td> </tr> <tr> <td>S P D</td> <td>21.3 %</td> </tr> <tr> <td>P D S</td> <td>14.6 %</td> </tr> <tr> <td>Liberales</td> <td>6.7 %</td> </tr> <tr> <td>Bauernparteien</td> <td>5.7 %</td> </tr> <tr> <td>D S U</td> <td>3.4 %</td> </tr> <tr> <td>Buendnis 90</td> <td>2.4 %</td> </tr> <tr> <td>기타 정당</td> <td>11.5 %</td> </tr> </table>	투표율 :	75 %	정당별 득표율 :		C D U	34.4 %	S P D	21.3 %	P D S	14.6 %	Liberales	6.7 %	Bauernparteien	5.7 %	D S U	3.4 %	Buendnis 90	2.4 %	기타 정당	11.5 %
투표율 :	75 %																					
정당별 득표율 :																						
C D U	34.4 %																					
S P D	21.3 %																					
P D S	14.6 %																					
Liberales	6.7 %																					
Bauernparteien	5.7 %																					
D S U	3.4 %																					
Buendnis 90	2.4 %																					
기타 정당	11.5 %																					

국제관계	서독	동독
<p>* 90. 5. 7 유럽의회 춘기 본회의에 처음으로 동독과 체코가 특별초빙객 자격으로 참가함.</p> <p>* 90. 5. 8 Bruessel에서 EC와 동독간에 무역협정 및 협력협정이 서명됨.</p> <p>* 90. 5. 16 유럽의회에 Kohl 수상과 de Maiziere 수상이 함께 참석함. 이들은 독일 통일이 유럽통일의 기초위에 추진될 것을 강조함.</p> <p>* 90. 5. 17 Kohl 수상, Genscher 외무장관, Stoltenberg 국방장관이 Washington에 도착, 미국정부와 함께 통일독일의 안보정책적 결속문제에 관하여 완전한 의견일치를 봄.</p>	<p>* 90. 5. 15 서독의 연립내각은 전독선거일을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중에 실시하기로 함.</p> <p>* 90. 5. 16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Bonn에서 "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을 구성할 것에 합의, '94년도까지 통일을 위한 공공지출의 충당에 기여토록 함. 그 총액은 1,150억 DM이며, 그중 200억 DM은 연방재원이며 950억 DM은 공채로서 충당토록 함.</p> <p>* 90. 5. 17 동·서독 체신성 장관들이 전독 우편통합 (Gesamtdeutsche Postunion) 에 관한 <u>공동선언</u> : 전화통화 등 실질적 개선에 관한 합의.</p>	<p>* 90. 5. 9 동독의 개별산업노조의 위원장들은 <u>동독자유노총 FDGB의 해산을 결의함.</u> 동독정부는 Kombinat의 총책을 면직키로 결의함. 그러나 기업은 안정화를 위해 기한부로 계속 운영할 수 있음.</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5. 21 - 23            Bruessel의 NATO 국방장관 추계회의에서 NATO 전략 ('67년 이래 전방위 방어, 단계적 보복)을 유럽 재래식 병력에 관한 회담(VKSE)이 성공리에 종결된다는 조건하에 수정할 것이 결의 됨.</p>	<p>90. 5. 18            Bonn에서 동·서독 재무장관 Waigel과 Romberg가 국가조약 (Staatsvertrag) 에 서명. '90.7.1부터 통화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이 발효할 수 있게 됨.</p> <p>'90. 5. 19            SPD의 수상후보 Lafontaine은 사민당이 국가조약에 반대할 것을 권고함.            '90.5.21 SPD 총재단은 추가개선 요구 사항을 결의, 이에 동의할때 찬성한다고 조건을 내세움. 이에 대해 5.23 Kohl 수상은 정부-SPD간 의견교환 모임을 제안. 5.29에 시작하여 3개 작업반이 가서명 될때까지 계속 활동함.            5.28 Lafontaine은 SPD로 하여금 분리된 표결을 할 것을 건의함.            즉 하원에서는 부결시키되 상원에서는 통과되도록 하자는 것임. 정부-SPD간 의견교환은 국가조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종결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90 . 5 . 22          소련의 대통령 자문단이 Gorbatschow의 "통제된 시장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과도기적 프로그램을 승인함.</p> <p>' 90 . 5 . 23          Genf에서 Genscher 외무장관과 Schewardnadse 외무장관은 독일통일의 외교적 측면에 관하여 협의함.          양국간 외무장관 회담은 Kopenhagen (6.5 CSCE 회담에 병행), Brest(6.11), Muenster(6.19)에서 속개됨.</p> <p>' 90 5 . 29          고급 테크놀러지의 동구권 수출을 제한하는 COCOM 목록은 동·서독 무역촉진을 위해 대폭 자유화 됨.</p>	<p>' 90 . 5 . 23          서방 3대국의 동의하에 서독하원은 앞으로 Berlin 의원들의 직접선출 및 완전한 의결권이 부여될 것을 결의함.          Bonn에서 "독일통일" (Deutsche Einheit) 을 위한 동·서독 의회 위원회"의 공동회의.</p> <p>' 90 . 5 . 23 - 27          Berlin에서 제90차 독일카톨릭 대회. '58년 이래 다시 전독대회가 개최됨.</p> <p>' 90 . 5 . 28          전독환경위원회 (Gesamtdeutsche Umweltkommission)가 동독의 환경조성법 (Umweltrahmengesetz)에 관한 토의를 결의함. 동 법은 7.1부터 발효토록 함.          동·서독 국방장관 Stoltenberg와 Eppelmann이 동 Berlin에서 회동.          Stoltenberg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Gorbatschow가 제안한 독일의 제한적 NATO 회원국 안을 거절함.</p>	<p>' 90 . 5 . 30          동 Berlin에서 구 국가보위부 (Stasi) 의 해체를 위한 정부위원회가 구성 됨.</p> <p>' 90 . 5 . 31          동독인민의회가 정당 및 대중 전위조직의 재산감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          감사가 종결될때까지 모든재산은 신탁 관리하에 둠.</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5. 30 - 6. 3 Washington에서 Bush 대통령과 Gorbatschow 대통령간에 미·쏘 정상 회담(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회담후 미국 여행을 계속함). 통일독일의 동맹 소속문제에 관하여 아직 합의에 도달치 못함. 그러나 동·서 관계의 계속 발전에 관한 의견교환은 커다란 진전이 따름.</p> <p>’90. 6. 7 WP 회원국의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은 Moskau에서 동맹체제의 성격과 역할을 변경(“민주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동등한 주권국가의 동맹”)할 것을 결의함. Gorbatschow는 WP와 NATO간의 관계진작을 희망함. 유럽의 동·서 진영간 분단을 극복하고 유럽적 경제 및 법률 공동체가 조성되도록 함.</p> <p>’90. 6. 7 - 8 Turnberry(Schottland)에서 순회적으로 개최된 NATO 외무장관의 자문회담. CSCE 과정의 의의와 Wien CFE 회담의 의의가 강조되고 WP 국가들에게 “친선과 협력”을 제안함.</p>	<p>’90. 6. 1 동독 인민의회는 제1 회기에서 국가조약에 대한 부속법규(Mantelgesetz)를 토론함. 이로써 서독의 연방법(Bundesrecht) 중 26개의 법률과 법률의 일부가 동독으로 수용되도록 함.</p> <p>’90. 6. 7 동독정부는 “인민소유재산”의 재편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ganigation des “Volkseigenen Vermoegens” : Treuhandgesetz : 신탁법)을 제출함. 6.29 de Maiziere 수상은 회취 주식회사(Hoesch AG)의 이사장 Rohwedder를 신탁정(Treuhandanstalt)의 행정위원회 회장으로, 그리고 서독 산업계의 유능인사 6명을 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함. ’90.8.21 전임 청장인 Reiner Gohlke가 사임하자 Rohwedder가 신탁정 청장이 됨. 동 Berlin에서 지명수재중이던 적군파(RAF) 테러리스트 용의자 Susanne Albrecht가 체포됨. 그녀는 10년전에 동독으로 임국하였음이 드러남. 그 이후 수일동안에 RAF 테러리스트들이 동독 및 동 Berlin에서 속속 체포되었는바, 이들은 Stasi의 도움으로 동독시민권을 받았음. 동독 내무성 Diestel 장관은 7.11 동독이 국제 테러조직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6.21 Karlsruhe 지방법원의 검찰은 Honecker, Mielke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방해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함. 7.13 동독 검찰청은 Mielke에 대하여 테러집단 비호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6. 11 de Maiziere 수상을 Bush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영접함. 그는 이어서 프랑스 대통령(6.18/19) 및 영국 총리(6.28)를 방문함.</p>	<p>'90. 6. 15 동·서독 정부가 동독의 <u>미해결 재산문제 처리에 관한 공동성명</u>을 발표함.</p> <p>'90. 6. 17 동 Berlin의 독일극장(Deutsches Schauspielhaus)에서 동·서독 의원들이 "독일통일의 날"(Tag der deutschen Einheit) 합동 기념식을 거행함. 동독 인민의회 특별 본회의에서 헌법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이 결의됨. 동독은 이로써 자유, 민주, 연방, 법치국가, 사회복지의 기본질서를 표방함.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헌법으로부터 삭제됨. 기본법의 적용범위 내의 즉각적인 가입(Beitritt)을 선언하도록 하자는 DSU의 건의는 전원 3/4의 동의로 의사일정으로 채택되고 토론후 각 위원회에 이관됨.</p> <p>'90. 6. 17 - 18 CDU, SPD, FDP의 지도층은 Bonn에서 동·서독 각 정당의 통합을 준비함.</p>	<p>'90. 6. 9 동독 SPD의 특별 전당대회에서 Wolfgang Thierse가 신임 당수로 선출됨.</p> <p>'90. 6. 13 동독 인민회의의 CDU/DA DSU 및 중도 민주당의 원내교섭단체는 '90년 12월에 전독총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독	동 독
<p>'90. 6. 22 Kohl 수상과 Mitterrand 대통령은 Rhein 강변의 Assmannshausen에서 EC가 소련에 대한 "자조를 위한 원조"를 하도록 하는 건의에 합의함. <u>제2차 "2+4" 외무장관 회담(동Berlin)</u>에서 Schewardnadse는 독일의 잠정적인 동·서 동맹체제 동시가입에 관한 토의 안건을 제출함. 이 안건은 참가국들로부터 거절됨.</p>	<p>'90. 6. 21 서독하원과 동독인민의회는 Oder-Neisse-Linie에 관한 독일-폴란드간 국경을 통일독일과 폴란드간의 협정체결을 통해 확정되도록 하는 공동방안을 대다수의 지지(서독하원 : 반대 15표, 기권 18표. 동독하원 : 반대 6표, 기권 18표)와 함께 결의함. 동·서독 정부는 이와 같은 결의사실을 폴란드 정부에게 알림.</p> <p>'90. 6. 21 - 22 <u>서독삼원 (Bundesrat)과 서독하원 (Bundestag)은 국가조약 비준</u>에 관한 최종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함. 국가조약은 Bundesrat에서는 Saarland 주와 Niedersachsen주만의 반대와 Bundestag에서는 445:60의 찬반 및 1표의 기권으로 통과됨.</p> <p>'90. 6. 22 Berlin에서 "2+4" 외무장관들의 참석하에 <u>Checkpoint Charlie 연합국 국경 검문소가 철거됨.</u> Bundestag의 예결위원회가 연방정부가 제안한 소련을 위한 50억 DM 차관에 대한 연방정부 보증을 승인함.</p>	<p>'90. 6. 22 동독 인민의회는 PDS와 90 동맹 및 녹색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가조약을 비준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6. 25 - 26  <u>Dublin에서 EC 정상회담</u> : de Maiziere 수상은 객원으로 참석.  EC 집행위로 하여금 대소련 원조계획안을 수립토록 함. 12월에 정부간 회담이 개최되어 유럽경제통합 및 유럽 통화통합과 정치적통합(Politische Union)의 실현을 위한 토의가 실시될 것을 결의함.</p> <p>'90. 6. 29  Kopenhagen에서 CSCE의 인권적 문제에 관한 회담이 종결됨(이미 '89.6 Paris에서 개최된 바 있음).  다음회의는 '91.9 Moskau에서 개최할 것에 합의함. 참가국들은 결의문서를 통해 민주주의의 법치국가성이 준수될 것이 의무화 됨.</p>	<p>'90. 6. 24  동·서독의 사민당 역시 '90년 12월중에 전독선거가 개최될 것을 주장함.</p> <p>'90. 6. 25  SPD의 당 총재단은 당내토론을 거친후 동·서독 사민당의 통합시 신임당수를 선출하는 대신 '91년까지 H. J. Vogel이 전독 SPD의 당수로서 계속 유임될 것을 권고함.</p> <p>'90. 6. 29  40년만에 처음으로 Richard von Weizsaecker 대통령은 전체 Berlin의 명예시민권을 획득함. 그는 감사의 연설을 통해 통일독일의 수도 및 행정 수도에 관한 국내정치적 토론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면서 Berlin을 우선적으로 지지함.</p>	<p>'90. 6. 22  동독 인민의회에서 주정부제도의 부활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제1차 회의가 개최되고 토론됨. 이 법률안은 향후 주정부 소속에 관한 15개군(Kreis)의 시민 여론조사 이후 7.22에 통과되도록 함. 인민회의가 그 최종회의에서 서독의 조세법 인수를 결의함.</p> <p>'90. 6. 29  동독 검찰청은 과거 국경부근에서 희생자에 대한 살인혐의로 Erich Honecker를 고발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7. 2 - 13  <u>쏘련공산당 제28차 전당대회.</u>          쏘련의 정치제도에 있어서 당의 비중이 눈에 띄게 퇴조함. 새로운 당 정관은 당내 "의견집단"의 구성을 허용함. 러시아 공화국의 Jelzin 대통령과 기타 개혁정치가들이 공산당을 탈당함. <u>Gorbatschow가 3/4의 지지로 당 서기장으로 임명됨.</u> Gorbatschow의 적수인 교조주의자 Ligatschow가 부서기장 선출에서 좌절된후 정치적으로 은퇴함.</p> <p>'90. 7. 5 - 6  <u>London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담</u> 에서 "<u>변화된 NATO에 관한 선언</u>" 이 결의됨 : NATO는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 핵무기는 "최종방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함. 회원국들은 WP 가맹국들과 함께 무력 사용 포기선언 및 광범한 협력을 할 용의가 있음. 동맹체제의 정치적 요소는 강화되고 NATO 전략은 수정될 것임. CSCE 과정은 정례회담, 사무국 설립, 분쟁방지본부를 통해 강화되도록 함.</p>	<p>'90. 7. 1  <u>전독 경제통합, 통화통합, 사회통합이 발효됨.</u> 이로써 독일통일의 결정적인 첫단계가 착수됨. 이와 동시에 동·서독 국경 및 Berlin 점령지역간의 신분증 검사는 중지됨. 6.30 동독의 수개도시에서는 축하전야제가 벌어짐. 7월 첫주간에 걸쳐 동독정부는 상업조직매장(HO-Geschaeften) 및 소비품 직매장에서의 상품가격 인상을 저지키로 함. 농업생산조합(LPG)의 판매난으로 인하여 동독정부는 7월 제3주간에 우유와 돼지고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용으로 이 품목들을 구매할 것을 결의함. 금속가공산업 및 화학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임금계약 및 임금인상이 합의됨. 경제통합, 통화통합, 사회통합이 실시된 1주일후 통합조약(Einigungsvertrag)에 관한 회담이 시작되었으며, 8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함.</p>	<p>'90. 7. 1          7월 첫주에 총선일정에 관한 합의가 이룩됨 : <u>동독의 연립내각</u> 참여 제정당은 <u>12월 2일을 전독총선일로</u>, <u>10월 14일을 주의회 선거일</u> (Berlin만은 12.2일) 로 <u>결정</u> 할 것을 제안함. 이 제안에 대해 서독의 제정당이 환영함. 동독의 서독에의 가입일을 전독총선일 전 또는 후로 할것인가, 선거방법에 관한 문제, 특히 5% 의회진출 차단조항(5%-Klausel)을 동·서독 단일선거지역 또는 분리지역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토론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7. 9 - 11 Houston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에서 참가국들은 Gorbatschow의 개혁노력을 환영하면서 시장경제에의 계속적인 진행을 환영함. Dublin에 개최된 EC 정상회담에 연계하여 대 소련 지원 대책에 관한 연구가 위촉됨. 참가국 각국이 수행하는 양국간 차원의 지원 대책은 인정됨.</p>	<p>'90. 8. 16 독일연방 내독관계성 Dorothee Wilms 장관은 Dresden에서 손상직전에 있는 동독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총 620만 DM의 즉각 지원계획을 발표함.</p> <p>'90. 8. 17 Bonn에서 발표된 Infas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독시민중 27%만이 동독정부의 행정업무에 만족하고 있다고 나타남. 5월중 만족도는 56% 였음.</p> <p>'90. 8. 19 독일연방 환경성 Klaus Toepfer 장관은 동독 환경성 Karl-Hermann Steinberg 장관과 함께 3일간에 걸쳐 동·서독 국경지역의 자연보호 대상에 관한 정보수집 여행을 시작함.</p>	<p>'90. 8. 16 동독 유리공업 종사자 50,000명에 대하여 임금 파트너간에 35%의 임금 인상이 합의됨. de Maiziere 수상은 전동독지역 출신 200명의 지방의회 의원 (Landrat)들과 함께 경제현황 및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에 관한 지자체 (Kommune)의 제문제점에 관해 토론.</p> <p>'90. 8. 17 동독 섬유·피혁산업 종사자 240,000명에 대하여 임금 파트너간에 월 250 DM의 임금 보조금 지불이 합의됨.</p> <p>'90. 8. 20 동독 철강산업 종사자 80,000명에 대하여 임금 파트너간에 월 300 DM의 소득 보조금 지불이 합의됨. 동 Berlin에 유대인 이민신청자를 위한 상담소가 개설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7. 16 Kohl 수상, Genscher 외무장관, Waigel 재무장관이 2일간에 걸친 소련방문을 마침. Kohl 수상과 Gorbatschow 대통령은 독일통일의 외교적 측면에 관한 합의점에 도달함. 주요결론 : 독일은 통일된 후 완전한 주권을 회복함. 4대 전승국의 권한은 끝남. 독일은 동맹체제 소속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 Oder-Neisse-Linie에 연한 독일의 동부 국경은 인정됨. 독일은 Wien의 VKSE 회담이 진행되는중 3-4년에 걸쳐 병력수를 370,000명으로 감축시킬 의무가 있음. 독일은 계속적으로 대량살상 무기의 보유를 포기하며 비확산 조약의 회원국으로서 잔류함. 소련은 그 주둔군을 3-4년 안에 독일로부터 철수함. 이와 같은 과도 기간중 NATO 시설은 구동독지역에 확장 될 수 없음. 독일연방정부는 서방 3대국에게 이 기간중 그 병력을 Berlin에 계속 주둔시킬 것을 건의함. 독일과 소련은 관계개선을 원칙으로하는 광범한 조약을 체결하도록 함. 이와 같은 합의와 함께 독일의 NATO 회원국 잔류에 대한 소련의 기존 반대의사는 포기되고 독일통일의 외교적 문제는 해결됨.</p>	<p>'90. 8. 24 Helmut Kohl 수상이 동 Berlin에서 개최된 인민회의의 원내 교섭단체인 CDU/DA의 회의에 참석한후 Lothar de Maiziere 수상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회동함.</p>	<p>'90. 8. 22 - 23 동독 인민회의가 선거협약 (Wahlvertrag)을 결의('90.8.22. Bundestag은 '90.8.23)한후 '90.8.23 찬성 294표, 반대 62표, 기권 7표로 '90년 10월 3일에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가입할 것을 결의 함. 최초의 전독선거가 '90.12.2에 실시됨. '90.10.14에 동독의 각주를 신설하기 위한 주의회(Landtag) 선거가 실시됨.</p> <p>'90. 8. 24 동독 내무성 Eberhard Stief 정무차관의 주도하에 동 Berlin에서 10.14에 실시될 주의회 선거를 위한 "최고선거위원회"가 구성됨. 동독의 작가 Heinz Knobloch가 동독 PEN 클럽 총재직으로부터 사임함. 동독의 국가수반 직무서리이자 동독 인민회의 의장인 Sabine Bergmann-Pohl 여사가 동독 국가평의회 건물에서 동 Berlin 주제 외교관들과 석별의 인사를 나눔.</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7. 17 제3차 "2+4" 외무장관 회담 (Paris)에 폴란드의 Skubiszewski 외무장관이 참석함. 독일-폴란드간의 국경조약에 관한 일정이 합의됨.</p> <p>’90. 8. 17 Berlin에서 IOC의 Juan Antonio Samaranch 총재는 서 Berlin의 Walter Momper 시장과 동 Berlin의 Tino Schwierzina 시장과 함께 Berlin시의 서기 2000년을 위한 올림픽 유치운동에 관하여 논의함.</p>	<p>’90. 8. 27 Hessen주와 Niedersachsen주에 연해있는 수개처의 구동독 국경통과소에서 동·서독 농민들이 농업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임.</p>	<p>’90. 8. 27 SED의 전 정치국원 Guenter Mittag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미겔수 구치소로부터 석방됨.</p> <p>’90. 8. 28 동독 공공기관 종사자 45,000명 이상이 경고성 스트라이크 및 30%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임. 그 이후 수일간에 걸쳐 스트라이크는 계속됨. Carl Zeiss Jena 콤비나트의 구 총책임자였던 Wolfgang Biermann은 회사 박물관의 "문화재"를 횡령했다는 혐의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Saarbruecken에서 체포되었으나 서독 검찰청이 동독이 발행한 구속영장에 의한 구인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8.29 다시 석방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b>’90. 8. 28</b></p> <p>독일연방 Kohl 수상과 동독의 de Maiziere 수상은 Halle에서 독일상공회(DIHT)와 독일 수공업중앙회(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s)가 공동 주최하에 개최된 "직업교육훈련 90"(Ausbildung 90)의 개막테이프를 끊었는 바, 이로서 동독 기업체로 하여금 직업훈련 실습장이 더욱 많이 마련되도록 꾀함.</p>	<p><b>’90. 8. 29</b></p> <p>동독정부 대변인 Mathias Gehler는 동 Berlin 소재 독일 역사박물관(Museum fuer Deutsche Geschichte)이 SED의 관점에만 입각하여 전시되어 있으므로 9.15를 기해 폐쇄한다고 선언함.</p> <p>동독 인민의회내 원내교섭단체인 독일 민주농민당(Demokratischer Bauernbund Deutschlands : DBD)이 해산을 결의함. DBD는 6월말 그 당원들에게 CDU에 입당할 것을 권고함. 10명의 DBD 출신 인민의회 의원중 4명은 CDU 원내교섭단체로, 3명은 SPD 원내교섭단체 및 1명은 FDP 원내교섭단체에 가입함.</p> <p>DBD 전 당수 Gunther Maleuda와 유일한 DBD 출신 여성의원인 Karin Bencze는 무소속으로 잔류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8. 30</p> <p>독일연방 외무성 Hans-Dietrich Genscher 장관과 동독의 Lothar de Maiziere 수상 겸 외무부장관 서리는 Wien에서 개최될 유럽 재래식병력 감축에 관한 회담이 개시되기전 통일독일의 병력수를 4년간에 걸쳐 370,000명으로 감축한다는 성명을 발표함.</p>	<p>'90. 8. 30</p> <p>Nordrhein-Westfalen주 법무성 Krumsiek 장관은 수일이내에 35명의 NRW주 출신의 판사가 신설 Brandenburg주 및 Mecklenburg-Vorpommern주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공지함. 또한 10월부터 총 360명의 <u>동독출신 판사</u>들이 12주간의 <u>연수</u> 과정을 밟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함. <u>준사법관(Rechtspfleger)</u>과 <u>형집행 근무원</u>에 대한 과정도 준비중이라고 함.</p> <p>'90. 8. 31</p> <p>서독 내무장관 Schaeuble와 동독 국무차관 Krause간에 동·서독 통합조약 (Einigungsvertrag)이 서명됨.</p> <p>'90. 9. 3</p> <p>Koeln시와 동 Berlin의 Treptow 구간에 도시자매결연에 관한 협약이 서명됨.</p> <p>'90. 9. 4</p> <p>동·서독 정부는 통합조약(Einigungsvertrag)에 대한 추가협의조항에 합의한 바, Stasi 자료를 우선 동독내에 그대로 두었다가 전독의회가 자료문제에 관한 최종결정을 취하도록 함.</p>	<p>'90. 9. 4</p> <p>20명 이상에 달하는 <u>동독민권운동가</u>들이 Stasi 문서를 서독으로 옮겨 보관함에 반대하기 위하여 동 Berlin의 Normannenstrasse에 있는 <u>전국가보위부 본부(MfS-Zentrale)</u>를 점거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9. 5  동Berlin에서 앞으로 신설될 동독지역내 5개주의 전권위원(Beauftragte)이 취임 인사함. 이들은 10.14에 실시될 주의회 선거시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락기관"의 역할을 수행함.</p> <p>'90. 9. 6  Carl Zeiss Jena사의 종업원 약 3,000명이 해고조치에 반대하며 직장고수를 위한 시위를 벌임.</p> <p>'90. 9. 7  동 Berlin에 창설된 "국립문화재단"(Nationale Stiftung Kulturfonds)이 동독의 문화기구와 예술인을 지원 촉진하도록 함. Guben시 시의회는 다수가결에 의하여 "Wilhelm-Pieck-Stadt"라는 도시의 주가명칭을 폐기할 것을 결의함. '46-60간 동독 대통령이었던 Pieck는 Guben 시에서 출생 하였음.</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90. 9. 12 모스크바에서 "2+4" 회담. 쏘련군 철수비용(130억 DM) 합의. 쏘련 철수군 주택건설에 독일기업 참여 보장. 독일의 완전주권을 명시한 최종합의서 채택.</p> <p>’90. 9. 13 독·쏘간 선린·우호·협력조약이 가서명됨.</p>	<p>’90. 9. 8 동·서 Berlin시 의 CDU 가 주당위원회(Landesverband)로 통합함. 초대 주당위원장에는 지금까지 서 Berlin시 CDU 위원장이었던 Eberhard Diepgen이 됨. 서독의 청년 자유파(Junge Liberale)와 동독의 청년자유주의 운동(Jungliberale Aktion Jugendverband)이 Junge Liberale로 통합함.</p> <p>’90. 9. 14 독일청년 연맹파(Junge Union Deutschlands : JU)는 Berlin에서 동독 CDU와 DSU 및 DA의 청년단체와 통합함. 초대 연방의장에 지금까지 JU 의장이었던 Hermann Groehe가 선출됨.</p> <p>’90. 9. 15 동·서 Berlin의 SPD 군당위원회(kreisverband)들은 전 Berlin의 SPD 주당위원회로 통합 함. 초대 위원장에는 서 Berlin 시장인 Walter Momper가 선출됨.</p>	<p>’90. 9. 9 동독 녹색주의자들은 Magdeburg에서 개최된 특별전당대회에서 당명을 "Die Gruenen"으로 고칠것과 연말에 서독 녹색주의자들과 합당할 것을 결의함.</p> <p>’90. 9. 14 동독 소매상 종사자 650,000명에 대하여 임금파트너간에 10월부터 매월 평균 300 DM의 임금을 인상할 것을 합의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90 . 9 . 18</p> <p>8명의 독일연방 하원의원이 제기한 <u>Oder-Neisse 국경을 독일·폴란드간 최종국경으로 확정</u> 명기한 통합조약의 위헌여부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u>독일 연방 헌법재판소</u> 는 이유없다고 기각함. 독일연방 검찰청의 Alexander von Stahl 청장은 구동독 국가보위부 Erich Mielke 부장 및 전 차장 Gerhard Neiber에 대하여 "적군파(RAF : Rote Armee Fraktion)를 지원한 혐의" 때문에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발표함.</p> <p>' 90 . 9 . 22</p> <p>Bayreuth에서 개최된 녹색주의자들의 연방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동독의 녹색주의자 및 시민운동권들과 선거동맹을 체결할 것을 동의하고 12.2에 실시될 전독총선에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벌일것을 결의함. 동독의 독일체조·체육연맹(DTSB : Deutscher Turn-und Sportbund)은 동 Berlin에서 개최된 연맹 총재단회의에서 12.5부로 해체할 것을 결의함. 주단위 체육연맹은 서독의 독일체육연맹(DSB : Deutscher Sportbun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고됨.</p>	<p>' 90 . 9 . 16</p> <p>PDS는 동 Berlin에서 2월에 시작된 제1차 전당대회를 속개함.</p>

국 제 관 계	서 록	동 록
		<p>’ 90 . 9 . 23</p> <p>9.19 Brandenburg의 교도소에서 발단한 <u>죄수들의 폭동</u> 은 동독내 20개 교도소로 확대됨. 사태가 악화된 원인중에는 동독 법무성 Manfred Walther 장관서리가 10월 3일 통독을 기한 "특별사면"을 거부함 이었음. 동독의 "Helsinki 그룹"은 4,300명의 구금자중에 한명의 정치범도 없다는 Walther 장관 서리의 주장을 반박함. 특히 Bautzen 교도소에 정치적 동기에 의한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수들이 구금되어 있다는 것임. Walther와는 반대로 동독 내무성 Peter-Michael Diestel 장관은 Brandenburg 교도소에서 죄수들과 행한 대담에서 "<u>제한적 사면</u>" 의 가능성을 시사함. 9.28에 실시된 동독 인민의회의 최종 회의에서 대부분의 구금자에 대한 <u>형량의 1/3이 감형</u> 될 것을 결의함.</p> <p>’ 90 . 9 . 25</p> <p>Stasi 해체 국가위원회(Das Staatliche Komitee zur Stasi-Auflösung)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p>

국 제 관 계	서 독	동 독
<p>* 90. 9. 27 de Maiziere는 UN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통독과 함께 <u>동독의 UN 대표권을 통일독일로 이양</u> 하게 됨을 알림.</p> <p>* 90. 10. 1 <u>New York에서 4대전승국 외무장관</u> 은 10월 3일부터 독일에 대한 최종규정에 관한 조약이 발효될때까지 "Berlin 및 Deutschland 전체에 대한 <u>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효력정지에 관한 선언</u>"에 서명 함.</p>	<p>* 90. 9. 26 동독에서 마지막으로 체포된 전 RAF 요원 Monika Helbing이 자신의 동의하에 서독으로 인도됨.</p> <p>* 90. 9. 27 Berlin에서 거행된 전당대회를 통하여 <u>서독의 SPD와 동독의 SPD가 통합</u> 함.</p> <p>* 90. 9. 29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녹색주의자, 공화주의자, 좌파 PDS 연합이 제소한 12.2에 실시될 최초의 전독총선에 대한 선거법의 중요내용이 기본법상 위헌임을 선언함.</p> <p>* 90. 10. 1 Hamburg에서 거행된 전당대회를 통하여 서독의 CDU와 동독의 <u>CDU가 통합</u>함. Helmut Kohl이 절대다수의 지지로 당수로 선출되고 Lothar de Maiziere가 부당수가 됨.</p> <p>* 90. 10. 2 '74에 설치된 <u>동 Berlin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Staendige Vertretung) 가 그 업무를 중단</u>함.</p> <p>* 90. 10. 2 서 Berlin 시청(Schoneberger Rathaus)에서 개최된 합동회의에서 동 Berlin 시의회(Magistrat)와 서 Berlin 시의회(Senat)는 "동·서 Berlin시 통일달성에 관한 공동선언"(Gemeinsame Erklarung zur Wiederherstellung der Einheit Berlins)을 결의함.</p>	<p>* 90. 10. 2 동 Berlin 소재 구동독 평의회 건물에서 동독인민회의의 마지막 회의가 열림.</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10. 3</p> <p>독일연방 Helmut Kohl수상은 전세계의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통일독일의 국경에 대한 최종적 성격"(Die endgueltige Charakter der Grenzen des Vereinigten Deutschlands)을 재차 확인함.</p> <p>독일연방 Helmut Kohl 수상은 이스라엘의 Yilzhak Shamir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독일은 그 역사적 책임감을 의식속에 간직하고 독일인 및 독일이라는 이름하에 유대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을 결코 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함.</p> <p>’ 90. 10. 3</p> <p>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은 UN 사무총장에게 통일독일이 앞으로 UN에서 동·서독을 단독으로 대표하며 UN에서 "Deutschland"(영어 Germany)로 표기하여 줄 것을 통지함.</p>	<p>’ 90. 10. 3</p> <p>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가입함으로써 <u>독일은 재통일됨.</u> 구동독지역에 신설된 5개주는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가 됨.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거행된 <u>독일통일의 날</u> (Tag der Deutschen Einheit)기념행사에서 구동독인민회의의장 Sabine Bergmann-Pohl 여사, 독일연방하원의장 Rita Suessmuth 여사, Berlin 시장 겸 현 독일연방상원의장인 Walter Momper 및 Richard von Weizsaecker 대통령이 기념사를 행함.</p> <p>Sabine Bergmann-Pohl전동독인민회의의장, Lothar de Maiziere 전동독수상, Rainer Ortleb FDP부당수, Hausjoachim Walther DSU당수가 Richard von Weizsaecker 대통령으로부터 독일연방 특임장관으로 임명됨(선서식은 10.4.연방하원에서 거행됨.)</p> <p>독일연방국방성 Gerhard Stoltenberg 장관은 Strausberg에서 구 동독인민군 (NVA : Nationale Volksarmee)의 지휘권을 인수하였으며 이로써 통독과 함께 "<u>독일연방군 동부사령부</u>" (Bundeswehrkommando Ost)가 됨.</p> <p>구동독국가보위부 경찰주무국장 Werner Grossmann이 피체됨. Grossmann은 체포명령이 내려져 외국으로 피신한 구동독 첩보 부장 Markus Wolf의 후계자였음.</p>

국 제 관 계	독 일
	<p>'90.10.4</p> <p><u>Berlin의 제국의사당 (Reichstagsgebäude) 에서 최초의 전독의회가 개최</u> 되어 144명의 구동독 인민회의의원도 참석하게 됨. 독일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uer Arbeit)이 노동시장의 발전에 관한 최초의 전독보고서를 통해 구동독 지역의 실업자 수를 444,800명(9월말 현재)으로 집계함.</p> <p>구 Stasi 문서담당 독일연방정부 전권위원이었던 Joachim Gauck(원내교섭단체 녹색주의자·90동맹 소속)이 전권위원직이 "의원의 의무와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함. 구동독내 신탁청(Treuhandanstalt)의 15개 지역사무소는 서독출신의 경제전문가에 의해 운영권이 인수됨.</p> <p>구동독 국가보위부 Erich Mielke부장과 구동독 자유독일노총(FDGB)의 Harry Tisch의장은 Hohenschoenhausen 교도소로부터 Moabit 교도소 병원으로 이송됨.</p>

국 제 관 계	독 일
	<p><b>* 90.10.5</b>  <u>독일연방하원</u>은 독일관계 최종결정에 관한조약 ("<u>2+4조약</u>")  <u>에 비준하고 12.2 실시될 최초의 전독총선을 위한 선거법의</u>  <u>개정안을 결의함.</u> 이법에 따라 전독총선은 5% 의회진출 차단  조항을 구동·서독 지역에 분리하여 적용되도록 함.  또한 정당과 정치단체는 구동독지역에서 연합공천  (Listenverbindungen)이 가능하게 됨.  독일연방통계청(Das Statistische Bundesamt)은 동Berlin  지역에 지점을 개설함. 구동독통계청(Amt fuer Statistik)의  700명 근무원중 370명이 인수됨. 나머지 요원은 신설5개주의  각주 통계청이 설립될 때까지 우선 공동운영 주정부  통계청에서 근무함.</p> <p><b>* 90.10.6</b>  서독 신교연합회(EKD :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의 평의회와 구동독 신교연합지도층간의 최초의 합동회의에서  신설5개주 소유권문제의 재정립을 위한 결의가 "불법을  극복하되 평화를 유지하자"는 구호아래 통과됨. 이로써 신교  지도자들은 현재의 소유권자를 통한 공정한 구입이 구소유권  자의 법적청구권보다 우선하되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원칙을  표방함. "<u>동독적십자 (Deutsches Rotes Kreuz der DDR e.V.)</u>  가 연말을 기해 <u>해체</u> 할 것을 결의함. 신설 주단위 지사들은  <u>독일 적십자(Deutsches Rotes Kreuz)에 가입할것</u>을 결의함.</p>

국제관계	독일
<p>90.10.9 독일연방재무성 Theo Waigel 장관과 소련대사 Wladislaw Terechow가 Bonn에서 구동독주둔 소련접령군의 체류 및 철수를 위한 과도기조치에 관한 독·소간 협정에 서명함.</p>	<p>'90.10.7 독일연방 Richard von Weizsaecker 대통령은 교회의 초청을 받고 Leipzig를 방문, Nikolaikirche 교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평화애호심과 비폭력주의로 정치적 변혁을 초래케한 동독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함. Dresden에서 "국적을 박탈당하다"(Ausgebuergert)라는 제하의 전시회가 '49년이래 동독을 떠난 170명의 미술가에 의해 개최됨.</p> <p>'90.10.8 Magdeburg에서 독일연방환경성 Klaus Toepfer 장관과 체코슬로바키아의 Josef Vavrousek 장관 및 EC전문위원 Laurens Jan Brinkhorst간에 Elbe강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사항이 서명됨. Toepfer 장관은 즉각대책으로서 신설 5개주에 20개의 정화시설을 설치할것을 공시함. <u>독일연방상원은 12.2에 실시될 최초의 전독총선을 위한 새로운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2+4 조약을 비준함.</u></p> <p>'90.10.9 Berlin, Leipzig, Magdeburg에서 수천여명이 '89.10.9에 일어난 SED정권 반대평화시위를 기념하는 행사를 치름.</p>

국 제 관 계	독 일
<p>'90.10.11 미국상원이 독일에게 주권을 완전히 부여하는 "2+4조약" 을 비준 함.</p>	<p>'90.10.10 독일 연방환경성 Klaus Toepfer 장관은 Berlin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u>신설5개주를 위한 35개 환경보호 파일럿 프로젝트를 소개함.</u> 또한 Toepfer 장관은 구동독지역의 음료수가 심히 오염되었음에 근거, 경우에 따라 긴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천명함.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11월중에 제출될 것이라고 함.</p> <p>'90.10.11 독일연방 노동·사회성 Norbert Bluem 장관은 Berlin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u>신설5개주의 연금수령자들이 '91.1.1부터 15% 인상된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함.</u></p> <p>독일연방정부는 신설5개주의 주택의 현대화 및 보수유지를 위해 호조건의 이들과 함께 100억 DM의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현재 독일연방 수상실 Berlin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동독 각료이사회 건물에서 최초의 자문회의가 개최 되었는바, 수상실장관 Rudolf Seiters 주도하에 5명의 신임 무임소장관과 수상실 Berlin 사무소 전담 국무차관 및 신설5개주 주정부 파견관들이 참석함. 독일연방 연구·기술성 Heinz Riesenhuber 장관이 Bonn에서 신설5개주의 촉진과 개발을 위한 8대 방안(Acht-Punkte- Programm)을 소개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0 . 12</p> <p>독일연방외무성 Hans-Dietrich Genscher 장관과 소련대사 Wladislaw Terechnow가 Bonn에서 <u>쏘련군의 기한부 주둔에 관한 조약에 서명함</u>. 그 내용은 94년도까지 구동독지역 쏘련 주둔군의 철수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p> <p>' 90 . 10 . 15</p> <p>Bruessel의 EC 집행위원회는 Berlin의 교육혼련 대책 및 계속 교육대책을 위해 EC 사회복지 기금으로부터 4,200만 DM의 Berlin 지원금 지불을 결의함.</p>	<p>' 90 . 10 . 12</p> <p>독일연방 환경성 Klaus Toepfer 장관이 Bonn에서 신설5개주를 위한 환경정책적 행동지침(Umweltpolitisches Handlungsprogramm)을 소개함.</p> <p>' 90 . 10 . 13</p> <p>구동독 우편노조(Deutsche Postgewerkschaft)는 해산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구서독 우편노조(Deutsche Postgewerkschaft)에 가입할 것을 권고함.</p> <p>' 90 . 10 . 14</p> <p>구동독지역내 신설5개주에서 주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됨. Berlin에서 개최된 전당대회를 통해 PDS는'90.12.2에 실시될 최초의 전독총선에 참여하기로 결의함.</p> <p>' 90 . 10 . 15</p> <p>독일연방 법무성 Hans Engelhard 장관은 동 법무성 공보실을 통해 행정규칙을 공지하였는바, 그 내용은 구동독의 집중적인 부동산 매매업무는 관할 부동산 등기소에 의해 우선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임.</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0 . 17</p> <p>독일연방 외무성 Hans-Dietrich Genscher 장관과 UNESCO의 Frederico Mayor 사무총장이 Sachsen-Anhalt주의 문화재를 시찰하였는바, 이들 문화재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 UNESCO 목록에 수록되도록 함.</p> <p>신설5개주의 35개 문화재 및 자연유적이 이에 해당되었음.</p>	<p>’ 90 . 10 . 16</p> <p>구동독 인민군 출신의 장교 80명이 Hamburg의 지휘관 아카데미에서 3주간에 걸친 "내부지휘"(Innere Fuehrung)에 관한 연수과정을 시작함. 주정부 파견관들은 전 Bayern 방송의 편집국장인 Rudolf Muehlfenzl을 신설5개주 방송 전문위원으로 선출함.</p> <p>지금까지 Berlin 장벽 조각의 매각으로 210만 DM이 수입되었는바, 이 돈은 전적으로 보건분야 및 유적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함.</p> <p>’ 90 . 10 . 17</p> <p>구서독 기독교연맹(EKD)의 자선단체와 구동독 신교의 자선단체의 총회간에 Wolfsburg에서 개최된 합동회의에서 양 기구의 통합이 만장일치로 결의됨.</p> <p>Hamburg에서 구서독의 각 주는 신설5개주의 법치국가적 법률 체계 구축을 위해 500여명의 법관이 파견될 것이라고 공지됨.</p> <p>’ 90 . 10 . 18</p> <p>Hannover에서 2일간에 걸쳐 통독이후 최초의 각주대표회의가 개최됨. 신설5개주의 주정부 전권위원이 참석함. 지자체 대표기관 연방연합회(Bundesvereinigung der Kommunalen Spitzenverbaende)가 개최한 "독일연방공화국내 신설5개주의 지자체 자치행정"(Kommunale Selbstverwaltung in den neuen Lae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제하의 2일간에 걸친 회의가 Kassel에서 시작됨.</p>

국제관계	독일
<p>’90.10.19 미국의 George Bush 대통령이 "2+4조약"을 비준함.</p>	<p>’90.10.19 Thuringen주의 Bad Salzungen에서 독일연방국방성 Gerhard Stoltenberg장관이·임석한 가운데 구동독지역의 독일연방군 최초의 선서식이 거행됨. 신설5개주에서 주단위 연합회로 결속된 세입자 협회가 최고기관인 독일세입자연맹(Deutscher Mieterbund)에 가입함. 구동독"정권의 범죄"(Regierungskriminalitaet) 척결을 위한 Berlin 고등법원 특별그룹은 Erich Honecker를 비롯하여 구 SED 지도층 및 정부지도층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 Berlin의 PDS 본부가 경찰에 의해 수색됨. 출동담당 검사는 1억 DM 상당의 부당한 유용액에 관한 확증이 있다고 수색 활동의 근거를 제시함.</p> <p>’90.10.20 DSU의 연방총재단은 Leipzig에서 12.2.에 실시될 전독총선에 신설5개주에서 출마할 것을 결의함. Dresden에서 시발된 교통안전을 위한 운동 "우리의 도로에서 함께 안전하게"가 독일연방 교통성의 선도하에 각종교통안전 기구 및 경찰의 지원을 받으면서 신설5개주의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해 시작됨.</p> <p>’90.10.21 구동독 독일연극연맹(Deutscher Buehnenbund)이 서독의 독일연극 연방연합회(Bundesverband Deutscher Theater)에 가입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0 . 22</p> <p>독일연방경제성 Helmut Haussmann 장관은 신설5개주 대규모의 기업체의 대부를 위한 용자로서 신탁청과 무관하거나 일부만 이 지분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도 독일연방정부의 보증을 증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함.</p> <p>' 90 . 10 . 23</p> <p>독일연방 수상실 안보담당 국무차관 Lutz Stavenhagen은 Bonn에서 SED 정권이 실각한 이래 구서독지역에서 178명의 구 MfS 첩자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함. 연립내각은 '91.1.1 부터 신설5개주에서 월 495 DM 미만의 연금수령자중 사회복지 보조금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위해 15%의 연금을 인상할 것에 합의함.</p> <p>신탁청의 Birgit Breuel 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8,000개의 구동독 국영기업체중 지금까지 신탁청의 협조하에 200개의 기업체가 사유화될 수 있었다고 함.</p> <p>Berlin의 공동통계청(Das Gemeinsame Statistische Amt)는 년초부터 9월말까지 신설5개주에서 197,000건의 영업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90.10.25 Strassburg의 유럽의회는 구동독인민의회 출신 18명 의원에 대하여 '94에 실시될 차기 유럽의회 선거시까지 참관인의 자격을 부여함.</p>	<p>'90.10.25 독일연방경제성 Berlin 사무소 소장 Walter Kittel 차관은 신설5개주의 농업현황이 최근 수주일간에 걸쳐 호전되었다고 발표함. 독일연방법무성은 Salzgitter기록보존소의 서류는 자료보호를 이유로, 당사자가 동의할 때에만 신설5개주의 판사에게 검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함. 해산된 <u>구동독철도노조 (Eisenbahner Gewerkschaft)</u>의 회원 220,000명은 <u>구서독 철도노조 (Gewerkschaft der Eisenbahner Deutschland : GDED)</u>에 가입함.</p> <p>'90.10.26 <u>PDS의 부당수검 경리부장 Wolfgang Pohl과 재무부장Wolfgang Langnitschke는 Berlin에서 횡령혐의로 체포됨.</u> 당 간부직을 사임한 Pohl은 닥아올 당재산 몰수에 대비, 당을 위해 "재원 확보" 명목으로 당비로부터 1억 700만 DM을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이전하였다고 시인 하였었음. Gregor Gysi 당수 및 기타 당지도층은 이와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함. 독일연방경제성 Helmut Haussmaun 장관은 신탁청의 업무가 이제 막 "완전가동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비난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약200개의 기업체가 사유화됐다고 발표. 독일연방 체신성 산하기업인 Telekom은 Bonn에서 금년중 동·서독간 전화회선 수는 4배나 증가하였다고 발표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b>* 90.10.27</b>            Berlin에서 카톨릭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음.            PDS 총재단이 불법당비 해외이전때문에 소집한 "비상회의"에서 Gregor Gysi 당수는 당수직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함.            10.28 이른새벽 PDS 총재단은 "PDS의 정치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지않는" 재산을 당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결의함.         </p> <p> <b>* 90.10.28</b>            45년간의 강제휴항이 끝난다음 독일 <u>루프트한자 항공은</u>, <u>Berlin 왕복운행</u>을 재개 하였는바, Deutsche Lufthansa는 '26년 Berlin에서 창설되었었음.         </p> <p> <b>* 90.10.29</b>            신설5개주에서 특히 노인 간호에 전념하고 있는 등록단체 "민족연대(Volkssolidaritaet e.V.)는 독일 신·구교 자선단체 연합회(Deutscher Paritaetischer Wohlfahrtsverband)의 정회원이 됨.         </p>

국제관계	독일
	<p><b>'90.10.30</b>  PDS의 부당수 Andre Brie의 말에 따르면 당재산은 현재 40억 DM 정도라고 함.  FDP의 Hermann Otto Solms 경리부장은 Bonn에서 동독의 자유민주주의 동맹(Bund der Freien Demokraten)은 현재 FDP와의 통합으로 1,900만 DM의 "순재산"을 제공하였다고 성명함. 이에 덧붙여 기업 자산 지분으로 2,000만 내지 3,000만 DM 정도가 더 있다고 발표함.</p> <p><b>'90.10.31</b>  Richard von Weizsaecker 대통령은 동Berlin에 있는 2개의 유대인 공동묘지를 방문함. 대통령은 그전날 밤 베를린 필하모니의 자선음악회를 초청하였는바, 그 수익금으로 베를린시의 유대인 공동묘지 운영에 사용하도록 함.  대부분 신교전통이 지배적인 신설5개주에서 종교개혁의 날이 다시금 법정공휴일이 됨(단, Berlin만은 제외). 그대신 구교전통이 지배적인 지역(Thueringische Rhoen, Eichsfeld, 카톨릭 Sorben 지역의 지자단체)에서는 대축일(11월1일)이 법정공휴일이 됨.  CDU의 Volker Ruhe 사무총장은 구동독 CDU의 재산현황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함. 동·서독 CDU의 통합 당시의 순재산을 1,300만 DM이라고 보고함. Ruhe 사무총장은 CDU는 당재산이 SED 집권당시와 관련되는한 사절할 것이라고 선언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1 . 1 Manfred Stolpe(SPD)가 Brandenburg의 주지사로 선출됨.</p> <p>' 90 . 11 . 2 Thyssen Handelsunion이 Berlin에 신설5개주의 3,000여명의 종업원의 직업훈련, 승진교육, 전직교육을 위한 교육센터를 개설하였음. 독일연방법무성 Hans Engelhard 장관은 신설5개주의 주지사 및 법무장관들에게 "구동독 출신 판사 및 검사에 대한 심사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호소함. 금속노조(IG Metall)는 Bonn에서 개최된 임시노조대회를 통해 신설5개주로 확장할 것을 결의함.</p> <p><u>전 동독 관구자문회(Bezirksrat)의장</u> 이었던 Lothar Fichtner는 Chemnitz 군법원으로부터 '89.5에 실시했던 <u>지자단체 선거시 투표결과를 위조했다는 혐의때문에</u> <u>10개월간의 구금·집행유예 판결을</u> 받음.</p> <p>' 90 . 11 . 3 Leipzig에서 열렸던 축구경기중 심한 관중소동이 일어나자 청년 한명이 경찰에 의해 사살됨. 동독 건축가 연맹(Der Bund der Architekten der DDR)은 11.30부로 활동을 정지할 것을 결의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1 . 4</p> <p><u>Berlin의 Alexanderplatz에서 경찰 추산 약 30,000명이 전 독일내 사회적 평등권을 외치면서 시위함.</u> 꼭 1년전 이 광장에서 500,000명 이상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시위하였음.</p> <p>Luebeck-Travemuende에서 시작된 독일신교연맹 종교회의(EKD-Synode)의 연례대회에 주요의제는 동·서독 신교의 주단위 교회(Landerkirchen)의 통합과정 준비였음.</p> <p>' 90 . 11 . 5</p> <p>Bonn에서 개최된 제25회 보건분야를 위한 정부·노조·기업 합동회의에서 신설5개주의 보건분야 지원개선에 관한 선언이 채택됨.</p> <p>Chemnitz에서 대동유럽무역촉진회사(Gesellschaft zur Foerderung des Osthandels)가 설립됨.</p> <p><u>서독대학총장회(WRK : Westdeutsche Rektorenkonferenz)는 신설5개주의 21개 대학을 회원으로 접수 하고 단체명을 대학 총장회(HRK : Hochschulrektorenkonferenz)라 개명함.</u></p>

국제관계	독일
	<p>’90.11.6 Nuernberg 소재 독일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uer Arbeit)의 발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신설5개주의 실업자 수는 537,800명 이라고 함. Leipzig에서 신설5개주에 처음으로 프랑스로문화원(Centre Culturel Francais)이 개원함. 독일기자협회 (Deutscher Journalisten-Verband)가 Bonn에서 <u>신설5개주의 주단위협회(Landesverbaende)의 회원가입을 결의함.</u></p> <p>’90.11.7 Thueringen주 주의회는 Erfurt에서 임시 주헌법을 채택, 주헌법(Landesverfassung)이 결의될때까지 유효하도록 함. 독일연방정부가 제시한 삼림현황 보고에 따르면 신설 5개주의 삼림피해 수준은 35.5%로서 기타 연방지역 평균치 15.0%와 비교 2배나 높다고 함. 독일연방국방성 Strausberg 사무소는 앞으로 동부독일에 50,000명이 주둔할 것인바, 그중 90-95%는 신설5개주로부터 충당된다고 발표함. 구동독 인민군 장교 35,000명중 약 6,000명이 현역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임. Josef Duchac(CDU)가 Thueringen 주지사로 선출됨. 독일연방 건설성장관 Gerda Hasselfeld 여사가 개막의 테이프를 끊은 Leipzig건축전문 박람회에 20개국으로부터 1,800개 기업체가 전시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1 . 9 Bonn에서 독·쏘간 선린·우호·협력 조약이 서명됨.</p>	<p>' 90 . 11 . 8 구동독 원탁회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를 맡았던 공로로 Berlin의 Martin Ziegler 교회 평의회 최고위원은 Wien에서 오스트리아정부가 수여하는 Bruno Kreisky 총리상을 수여받음.</p> <p>' 90 . 11 . 9 Berlin의 구 붕괴초소였던 Bornholmer Strasse에 Berlin 장벽 붕괴 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문이 설립됨. 59년이래 최초로 Berlin에서 독일연방상원이 회의를 갖음. 이 회의에 신설5개주의 주지사인 Alfred Gomolka (Mecklenburg-Vorpommern주), Manfred Stolpe(Brandenburg주), Gerd Gies(Sachsen-Anhalt주), Josef Duchac(Thuringen주), Kurt Biedenkopf(Sachsen주)도 참석함.</p> <p>' 90 . 11 . 10 Berlin에서 개최된 근로자자선단체(Arbeiter Wohlfahrt) 연방집회에서 구동독 근로자자선단체들은 독일연방근로자 자선단체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함. 신설5개주 주단위 적십자사는 독일연방적십자(DRK : Deutsches Rotes Kreuz)에 회원으로 가입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1 . 11  구동독 문화연맹(Kulturbund)내 Weimar 소재 Schiller 협회는 20년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해산하기로 결의함.  PDS 총재단은 당재산의 약80%를 헌납하기로 결의함.</p> <p>’ 90 . 11 . 12  서 Berlin의 Walter Momper 시장과 동 Berlin의 Tino Schwierzina 시장은 Moskau를 방문하는 도중, Berlin과 Moskau간 친선·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에 서명함. 독일연방하원 신탁청 감독위원회는 구동독의 모든 정당과 대중단체의 전재산을 몰수할 것을 촉구함.  Berlin 동부지역내 빈주택을 처음으로 정리하자 경찰과 점거자들간에 심한 충돌이 벌어짐.</p> <p>’ 90 . 11 . 13  Berlin에서 무공해 농산물에 대한 최초의 전독 안내전시회가 열림. Berlin의 동·서 경제아카데미(OWWA : Ost-West-Wirtschafts-Akademie)는 "시장경제로 향하는 동유럽, 90년대애의 도전" 이라는 제하의 2일간의 학술회의를 마친후 그 연구업무를 시작함. 이 아카데미는 독일기업연맹 Berlin 전담위원의 주선으로 설립된 것임.</p>

국 제 관 계	독 일 일
<p>' 90 . 11 . 14</p> <p>독일연방외무성 Hans-Dietrich Genscher 장관 과 폴란드의 Krzystof Skubiszewski 외무장관 은 Warschau에서 국경조약 에 서명함. Moskau에서 동유럽 좌파정당의 대표자회담이 개최됨. PDS는 Gregor Gysi당수로 대표되었으며 Gysi는 Gorbatschow 대통령과 회담함.</p>	<p>' 90 . 11 . 14</p> <p>독일연방정부는 신설5개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9억 DM을 지출하도록 결의함. 약 3,000명의 경찰이 Berlin 동부지역의 13개 피점거 주택을 급습함. 약300명에 이르는 폭력적 점거자들이 체포되고 5명의 경찰관을 포함, 13명이 부상하여 병원으로 후송됨.</p> <p>' 90 . 11 . 15</p> <p>CDU 당수 겸 독일연방 수상인 Helmut Kohl과 Volker Ruhe 사무총장은 Bonn에서 구 동독 CDU 재산에 대한 접수사절에 관한 공증된 원본에 서명하였음.</p> <p>' 90 . 11 . 16</p> <p>독일연방 경제협력성 Juergen Warnke 장관은 구동독이 제3세계에 수행하던 개발원조 계획의 약 절반을 독일연방 공화국이 계속 수행 할 것이라고 발표함. 독일연방 범죄 수사국(BKA : Bundeskriminalamt)의 공표에 따르면 금년중에 이미 100여명의 Stasi 첩자가 체포되었다고 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90.11.19</p> <p>Paris의 Elvsee궁에서 NATO 및 WP가 맹 22개 회원국의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들이 Wien에서 계속된 <u>유럽재래식 병력감축에 관한 협력조약(CFE)에 서명</u> 하였는바, 이로써 참가국들은 불가침 및 상호 무력사용 금지의 의무를 갖게됨.</p> <p>NATO와 WP는 공동선언을 통해 더이상 적대자가 아님을 확약함.</p>	<p>'90.11.17</p> <p>Berlin의 제국의사당 건물에서 40년이상 분리되었던 동·서독 <u>올림픽위원회 (NOK : Nationales Olympisches Komitee) 의 통합이</u> 수행되었으며 독일 NOK의 새로운 정관이 채택됨.</p> <p>현 독일연방 특임장관이며 구동독 수상이었던 Lothar de Maiziere는 Potsdam에서 CDU의 Brandenburg 주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 Berlin에서 PDS는 2일간에 걸쳐 독일 공산당과 독일사회주의 통일당내 스탈린주의 -그 근원, 영향, 결과”(Der Stalinismus in der KPD und SED - Wurzeln, Wirkungen, Folgen)라는 테마로 회합을 가짐.</p> <p>'90.11.22</p> <p>Helmut Kohl 수상 및 CDU가 장악하고 있는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Anhalt, Sachsen, Thuringen 주지사들은 독일 제1TV(ARD)와 제2TV(ZDF)의 총감독 및 신설5개주 방송 전담위원 Rudolf Muehlfnenzl은 신설5개주의 프로그램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에 합의 함.</p>

국제관계	독일
	<p><b>'90.11.23</b>  독일연방 16개주 환경성장관들이 Berlin에서 최초의 합동 회의를 개최함. 이들은 지구대기권 보호를 위한 선언을 채택함. Berlin 소재 상업 사유화회사(Gesellschaft zur Privatisierung des Handels)가 11.26부터 12.3까지 신설 5개주내 11,000개의 상업기구인 HO(Handelsorganisation)에 대한 공매처분이 실시된다고 발표함.</p> <p><b>'90.11.26</b>  Bonn에서 Batikan의 로마교황청이 Berlin 사제회와 독일 사제회가 통합됨으로써 독일내 구교의 통합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동독국철(DR : Deutsche Reichsbahn)의 스트라이크가 시작됨. 구동독 철도노조(GdEd)는 신설5개주의 철도 근로자를 위해 구서독 연방철도(DB : Deutsche Bundesbahn)의 임금수준의 50-60%에 상당하는 임금인상을 비롯하여 동독 국철에도 서독연방철도의 임금협약을 도입할 것을 요구함. 11.29.에 임금파트너들은 새로운 임금협약에 합의 하였는바, 해고보호 및 봉급인상과 같은 중요쟁점은 우선 후일에 협의하기로 연기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1 . 27</p> <p>Nordrhein-Westfalen주 Johannes Rau 지사와 Brandenburg주 Manfred Stolpe 지사는 Potsdam에서 주정부정책의 협력에 관한 총체적 합의에 서명함.</p> <p>Berlin 시청 Rathaus Schoeneberg에서 Brandenburg주 Manfred Stolpe 지사와 동·서 Berlin시 Walter Momper 시장 및 Tino Schwierzina 시장은 Berlin시와 Brandenburg주가 광범하게 협력할 것에 합의함.</p> <p>Bonn에서 구동독 정당재산 심사 정부위원회 위원장인 Volker Kaehne가 교체될 것이라고 발표됨.</p> <p>그의 후임에는 Sebastian von Hammerstein 국장이 됨.</p> <p>구동독 작가협회 연합회 총재단은 마지막으로 회동하고 '90.12.31부로 연합회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함.</p> <p>' 90 . 11 . 28</p> <p>지멘스 주식회사(Siemens AG)는 신설5개주내에서 10억 DM 이상의 투자를 할것이라고 발표함.</p> <p>구동독 정당재산 심사위원회의 정부 전담위원으로 아직 근무중인 Volker Kaehne는 구동독 CDU가 수백만 DM을 해외에 불법적으로 이전하였다는 비난에 대하여 사실무근임을 발표함.</p> <p>독일연방내각은 신설5개주를 위해 공무원제도(Beamtentum)의 도입에 관한 행정규칙을 통과시킴.</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1 . 29 .</p> <p>최초의 전독총선이 실시되기전 마지막으로 회동한 서Berlin 주의회는 여성차별금지법(Gesetz gegen die Diskriminierung von Frauen)을 결의함.</p> <p>Brandenburg주의 Manfred Stolpe지사는 프로이센 제국의 Prinz Louis Ferdinand von Preussen 태자와 Potsdam에서 갖은 대담을 통해 Hohenzollern 왕가가 Brandenburg에서 주거권을 갖어야 한다고 발표함.</p> <p>Berlin에서 SED 중앙 문서보관소, 정치국 특별자료보관소, 구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도서관은 당분간 국가의 보호하에 놓이게 된다고 발표됨.</p> <p>' 90 . 11 . 30</p> <p>Berlin의 문인 Guenter de Bruyn이 Koeln에서 Heinrich-Boell 상을 수여 받음.</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2 . 1 Potsdam에서 신설5개주 지사와 동·서 Berlin의 Walter Momper 시장 및 Tino Schwierzina 시장이 공동협의를 위해 회동하였는바, 그 주안점은 신탁청의 업무와 미디어정책 이었음.</p> <p>' 90 . 12 . 2 <u>처음으로 실시된 전독총선</u> 에서 지금까지의 집권 연립내각인 <u>CDU/CSU와 FDP는 다시금 다수를 획득함.</u> 전Berlin 주의회 선거에서 CDU가 제1정당으로 부상함.</p> <p>' 90 . 12 . 5 독일연방고용청의 발표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신설5개주의 실업자수는 589,200명이며 단축조업자의 수는 177만명이라고 함. <u>구동독 체조·체육연맹(DTSB)의 연방 총재단은 Berlin에서 연맹의 해산을 결의 함.</u></p> <p>' 90 . 12 . 6 Bonn에서 CDU는 구동독 CDU의 재산은 Berlin의 신탁청에 위임했음을 발표함. Leipzig에서 6일간에 걸친 "관광·캠핑 90"(Touristik und Camping 90)전시회가 개막됨. Magdeburg에서 Sachsen-Anhalt주 경제촉진회사가 설립되었는바, 그 운명은 잠정적으로 경제성의 Rudolf Bohn 차관이 맡기로 함. Brandenburg 주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Manfred Stolpe 주지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재정관계의 근본적인 재편성을 주장함.</p>

국제관계	독일
<p>'90.12.7 Bonn에서 독·쏘 청소년 자문위원회(Jugendrat)가 구성되었는바, 이 위원회는 독일과 쏘련의 젊은이들의 만남 촉진에 목적이 있음.</p>	<p>'90.12.7 Mecklenburg-Vorpommern주가 북부독일주지사회(Norddeutsche Ministerpraesidentenkonferenz)의 공식회원으로 가입됨. Berlin에서 <u>42년만에 다시 열린 전독 문화장관회</u> (Gesamtdeutsche Kultusministerkonferenz)가 <u>2일간에 걸친</u> <u>대회를 끝냄.</u> 구동독 원탁회의(Runder Tisch)개최 1주년 기념식을 맞아 Neues Forum의 Barbel Bohley 및 Demokratie Jetzt의 Wolfgang Ullmann이 '89/90년도 동독민주화의 발의자 전체를 대표하여 Berlin에서 "독일정책 및 국제정책" 잡지사의 민주주의상을 수여 받음.</p> <p>'90.12.8 Brandenburg주의 Manfred Stolpe 지사와 Sachsen주의 Kurt Biedenkopf 지사가 회담하기 위하여 Herzberg에서 회동, Lausitz의 갈탄광산 지역의 미래와 Sorben족의 이해관계 등에 관하여 논의함.</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2 . 9</p> <p>영화감독이자 90동맹/녹색당 출신의 독일연방 하원의원이며 구동독 시민운동인 Demokratie Jetzt의 창립요원인 Konrad Weiss가 국제인권연맹으로부터 90년도 Carl-von-Ossietzky 메달을 수여 받음.</p> <p>Berlin-Brandenburg 신교 교회의 동부지역 및 서부지역은 합동종교회의를 마치면서 양대지역 최고교회기구의 통합을 위한 교회법(Kirchengesetz)을 결의함.</p> <p>’ 90 . 12 . 10</p> <p>Magdberg에서 개최된 최초의 신설5개주 법무장관 회합에서 구동독내에 "법치국가의 구성" 문제가 논의됨.</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 12 . 13  <u>프랑스 국민의회가 독일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에 관한 조약 (2+4 조약)을 비준 함.</u></p>	<p>' 90 . 12 . 11  Richard von Weizsaecker 대통령은 신설5개주를 방문하기 시작하였으며, 2일간에 걸쳐 Mecklenburg-Vorpommern에 체류함. Bonn에서 Ibrahim Boehme가 구동독 Stasi 요원이었다는 비난이 다시 일자, 사건이 해명될때까지 SPD 정당 총재단 위원직을 사임키로 함.  Sachsen 주정부는 '90.12.31까지 Leipzig 체육대학 (Hochschule fuer Koerperkultur und Sport)을 폐교할 것을 결의함. 그 이외에 Leipzig 소재 "Johannes R.Becher" 문학연구소와 Meissen 농과대학의 폐교도 결의함.  Berlin에서 개최된 최초의 신설5개주 및 Berlin주 재무장관 합동회담에서 성명서가 채택되었는바, 그 내용은 91년도 예산 조세수입은 "경상지출 비용의 2/3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전문그룹을 구성 할 것이 촉구됨.</p> <p>' 90 . 12 . 12  Sachsen주 경제성은 Meissen 도자기 공장이 Berlin 신탁청의 결정에 따라 Sachsen주의 소유가 되었음을 공지함.  Matwej Burlakow 대장이 Boris Snetkow 장군과 교체, 주독일</p>

국제관계	독일
	<p><b>’90.12.14</b>  <u>Dresden에서 처음으로 독일연방 16개주 내무장관 회의가</u>  2일간에 걸쳐 시작되었으며, 국내치안 및 소련으로부터  유대인 이민 수용문제 등을 거론함.  독일연방정부는 주독일 소련대사 Wladislaw Terechow에게  Potsdam 근교 Beelitz 소련 육군병원에 입원중인 구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겸 SED 서기장이었던 Erich Honecker를 독일  법률기관에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함. Honecker의 변호인에  의해 제출된 12.1차 체포명령 거부 소원은 Berlin 주립  법원으로부터 이유없다고 기각됨.  Frankfurt am Main에서 "Bauhaus로부터 Bitterfeld에  이르기까지"라는 제하의 41년간에 걸친 동독 디자인 전시회가  개최됨. 구동독지역에서 TV 방송에 관한 신규정이 발효함.</p> <p><b>’90.12.15</b>  Potsdam에서 Fontane 협회가 창립됨.  <u>신설5개주 주단위 체육협회 (Landessportbunde)는</u>  Hannover에서 개최된 제21차 <u>독일체육연맹 (DSB : Deutscher</u>  <u>Sportbund의 연방총회에서 회원협회로 가입함.</u> 이미 해체된  동독체육연맹 DTSB의 전 총재 Martin Kilian이 DSB의  부총재로 선출됨.</p>

국제관계	독일
	<p>'90.12.17</p> <p>CDU의 <u>Lothar de Maiziere</u> 부당수는 Stasi에 협력했을 것이라는 미확인 혐의때문에 독일연방 특임장관직을 사퇴함. 그는 당직을 포기하지만 독일연방 하원의원직은 계속 수행하겠다고 함.</p> <p>Allensbach 소재 여론조사연구소(Institut fuer Demoskopie)가 발표한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신설5개주민들의 건강상태는 구서독 주민들의 건강상태보다 훨씬 불량하다고 발표. 특히, 정신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학적 질병이 심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임.</p> <p>Wiesbaden 소재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발표에 따르면 '90.1부터 10월까지 신설5개주에는 226,600건의 영업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약 절반은 상업과 요식업이었다고 함.</p> <p>'90.12.18</p> <p>신설5개주 보건성 장관들은 Potsdam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종합병원과 개업의가 대등하게 병존할수 있도록 주장함. 현재 신설5개주에는 약 1,000명의 개업의가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Berlin에서 수천명의 대학생이 Humboldt 대학의 각 학부의 해체를 반대하는 대학생 저항이 잇따름. Greifswald 원자력발전소의 마지막 핵 반응로가 가동 중단됨.</p>

국 제 관 계	독 일
<p>' 90. 12. 19</p> <p>EC는 앞으로 3년간 신설5개주의 구조적응을 돕기위해 총 62억 DM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p>	<p>' 90. 12. 19</p> <p>16개주 경제장관들과 갖은 회담이 끝난후 Berlin의 신탁청 Detlev Carsten Rohwedder청장은 이미 신탁청은 100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신설5개주내에서 약 250,000에 달하는 직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발표함.</p> <p>신설5개주 지사와 Koeln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의 Manfred Lenning 소장은 Berlin의 신탁청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p> <p>독일연방내무성 정당위원회(Parteienkommission)는 PDS가 외국에 갖고 있는 은행구좌를 전혀 모른다는 내용의 PDS가 제출한 자료를 반려함.</p> <p>' 90. 12. 20</p> <p>Berlin의 제국의사당 건물에서 12.2에 선출된 전독총선에 따른 독일연방하원이 구성됨. 독일연방 16개주 지사들은 Muenchen에서 2일간에 걸쳐 회동함. 이들은 "뮌헨선언"(Muenchner Erklaerung)을 통해 독일과 유럽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 연방주의(Foederalismus)의 의미를 강조함.</p> <p>독일연방 내독관계성은 Berlin과 Dresden의 DEFA-Filmstudio의 활동을 위해 300만 D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p>



국제관계	특 일
	<p><b>'90.12.21</b>  독일연방정부가 녹색주의자들의 질의에 대해 행한 답변에 따르면 '90.1부터 9월까지 약 30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구동독지역으로부터 구서독으로 왔다고 함.  Wiesbaden 소재 독일연방통계청은 90.1부터 10월까지 구동독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9년도 동기간에 비해 91%나 증가하였으며 부상자수는 50%가 증가하였다고 함.</p> <p><b>'90.12.22</b>  Berlin의 Tiergarten 소재 쏘련 전몰용사탑은 Berlin 주정부에게 이관됨.</p> <p><b>90.12.23</b>  독일연방내무성 Wolfgang Schaeuble 장관은 독일연방하원이 조각이 끝난 직후 구동독 국가보위부의 서류처리의 미해결 문제점에 관한 법적 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예고함.  Wiesbaden 소재 독일어협회(Gesellschaft fuer deutsche Sprache)는 90년도의 가장 멋진 말로서 "신설5개주"(die neuen Bundeslaender)라는 단어를 선정함.</p> <p><b>'90.12.27</b>  Berlin주 법무성은 Stasi 해체 국민위원회(Nationales Komitee zur Stasi-Aufloesung)의 Gunter Eichhorn 전 위원장이 "재정흑막"등과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발표함.</p>

국제관계	독일
	<p><b>'90.12.28</b>  독일연방 환경성 Klaus Toepfer 장관은 Bonn에서 독일연방 정부가 90년도를 위한 긴급대책 및 구동독 환경보호를 위한 35개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해 14억 DM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고 발표함. <u>서기 2000년까지 독일의 환경통합 (Umweltunion)이 완료되도록</u> 한다고 함 .</p> <p><b>'90.12.30</b>  Allensbach 소재 여론조사연구소의 연례 신년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구서독주민 57%, 신설5개주에서는 50%가 다가올 신년도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함.</p>